

北韓의 体育分野 事業總和集

(1949—1970)

1973. 6

目 次

1. 1949年度 事業総和	3
2. 1950 - 1951年度 事業総和	11
3. 1952年度 事業総和	17
4. 1953 1954年度 事業総和	23
5. 1955年度 事業総和	29
6. 1957年度 事業総和	35
7. 1959年度 事業総和	45
8. 1961年度 事業総和	59
9. 1962年度 事業総和	67
10. 1963年度 事業総和	79
11. 1964年度 事業総和	93
12. 1965 - 1966年度 事業総和	107
13. 1967年度 事業総和	121
14. 1968年度 事業総和	137
15. 1969年度 事業総和	155
16. 1970年度 事業総和	179

1. 1949年度事業總和

1. 1949 年度 事業總和

가. 體育의 民主化

過去 一部 特權階級の 占有物로 되어 있던 體育運動競技가 共和國 北半部에 있어서는 完全히 全 人民의 것으로 發展되고 있다. 北半部の 體育文化事業은 職盟, 農盟, 民青等의 大衆的 社會 團體의 協助下에 全 職場 農村學園에서 群衆的 體育의 規模로써 發展되어 가고 있다.

1948 年度에 있어서 重要한 競技大會로서는 水上大會, 스키-大會, 축구 리그戰 6 大學 體育大會 8.15 記念 體育大會 祝典, 共和國 樹立慶祝 全國 體育大會等 中央會가 있었는데 參加한 選手들의 97.8%가 勞動者, 農民, 事務員, 學生, 人民軍, 內務員等이었다.

北半部の 體育은 肉體的으로 健康하게 되어 勤勞와 祖國保衛에 從事할 수 있는 性格과 技能을 所有하는 組織있고 規律있는 青年世代를 育成하여 直接生産과 祖國保衛에 結付되는 方向으로 發展되고 있다.

나. 體育節 制定

共和國 內閣은 體育을 通하여 勞力과 祖國保衛에 準備된 人民들의 健全한 體位와 無限한 愛國心과 高度로 發展하는 體育文化를 國內外에 示威하며 國家的으로 人民들과 青年들에게 더욱 廣汎하게 體育敎養을 받도록 推進시키기 위하여 每年 10 月 둘째 日曜日을 體育節로 制定할 것을 1949 年 8 月 2 日 內閣 決定으

로 採択하였다.

體育節에는 全國的으로 體育人들의 慶祝示威 및 體育行事が 벌어지며 그리고 每年 體育節을 中心으로 하여 全國 綜合體育大會가 開催된다.

다. 體育組織

體育組織으로서는 政府 各 政黨 社會團體로서 構成된 中央體育指導委員會 以下 各級地 體育指導委員會 指導아래 職業同盟, 農民同盟, 民青等에 所屬하는 11,203 個에 達하는 體育團 또는 體育會-클이 움직이고 있으며 每年 5.1 節 8.15 慶祝大會 全國綜合體育大會 또는 當該年の 各種 競技 選手權大會等이 組織되고 있다.

北半部 體育團 組織狀況

職場體育團	2,946 個	會 員	123,673 名
農民體育團	4,783 個	會 員	104,613 名
學校體育團	3,209 個	會 員	368,408 名
其他體育團	265 個	會 員	4,471 名

라. 體育施設

體育의 大衆化와 함께 北半部 各地에서 大小의 公設運動場과 工場, 農村等의 附設運動場들이 多數히 設置되어 1947 年度까지에는 全 北半부에 3,902 個의 運動場과 20 餘個의 體育館이 施設되어 있었는데 1948 年度末에는 大規模의 運動場이 4,113 個所로 工場, 鉸山等의 職場과 農村部落 및 街頭等에 小運動場이 7,800

餘個로 그리고 現代式 施設을 갖춘 體育館과 體育室이 700 餘個所로 水泳場, 海水浴場이 44 個所로 長成되었다. 다시 1949 年末에는 5,000 餘의 競技場과 3,000 餘個의 小運動場이 增設된 것이 予見되고 있다.

마. 主要 競技大會

1949 年에 進行된 主要 競技大會는 全國 스키 選手權大會를 비롯하여 5.1 節 慶祝體育大會 世界青年 및 大學生 祝典 派遣 選手 選拔體育大會 8.15 記念體育大會 全國 水上競技 記錄大會 第 1 回 體育節 記念 全國綜合體育大會등이다.

○ 全國 스키-選手權大會는 1 月 28 日부터 3 日間에 걸쳐 江原道 三防 스키-場에서 開催되었다. 大會에는 各 道에서 選拔된 選手 90 餘名이 參加하였다.

○ 5.1 節 慶祝大會는 北半部 各 市·郡에서 盛大히 進行되었는데 平壤市에서는 市競技場에서 1 日과 8 日 兩日間에 걸쳐 進行되었다. 大會는 職盟傘下 14 個 産別團體 各級 學校 人民軍隊 內務省에서 選拔된 4,000 餘名의 選手들이 參加하여 축구, 籠球, 排球, 陸上, 그네, 씨름, 力技, 体操等 各 種目에 걸쳐 進行되었다.

○ 世界青年 및 大學生祝典 派遣 選手 選拔 體育大會는 5 月 14 日부터 4 日間에 걸쳐 平壤市 競技場에서 開催되었다. 競技는 축구, 籠球, 陸上, 自轉車 競技等の 種目으로 進行되었는데 축구 籠球는 리-그戰을 하였다.

○ 8.15 解放 4 週年記念 全國體育祝典은 8 月 16 日 17 日 兩日
에 걸쳐 平壤市 競技場에서 開催되었다. 祝典에는 北半部 各
道에서 選拔된 男女 選手들과 마스크 出演隊 및 南半部 選手
等 5,000 餘名이 參加하였으며 競技는 各道 對抗으로 進行되
었다.

○ 全國 水上競技 記録大會는 9 月 11 日 12 日 兩日에 걸쳐
興南肥料工場 水泳場에서 各地 代表 多數 參加下에 열리었다.
競技는 男子 300 米 競技를 비롯하여 23 種目에 걸쳐 進行
되었으므로 大會에서 樹立된 新記録은 10 種目에 達한다.

○ 第 1 回 體育節 記念 全國綜合體育大會는 10 月 30 日부터 4 日
間에 걸쳐 平壤市 競技場을 비롯하여 平壤師範大學 競技場, 平
壤第 1 高級中學 競技場, 第 1 高級中學 體育館, 北朝鮮民青體育館, 牧丹
峯 野外劇場等 6 個所의 大會場에서 3,000 餘名의 選手 參加
下에 豪華롭게 進行되었다.

競技는 축구, 籠球, 排球, 陸上, 레스링, 拳鬪等을 비롯하여
13 種에 걸쳐 各道 및 平壤市 內務省 民族保衛省等 各 팀의
對抗戰과 北半部 各 大學들의 對抗戰으로 進行되었다. 大會는
共和國 政府의 올바른 施策아래 나날이 向上되어 가는 群衆體
育文化의 찬란한 成果를 示威하였으며 多數新記録을 續出하고
終幕되었다.

바. 國際舞台進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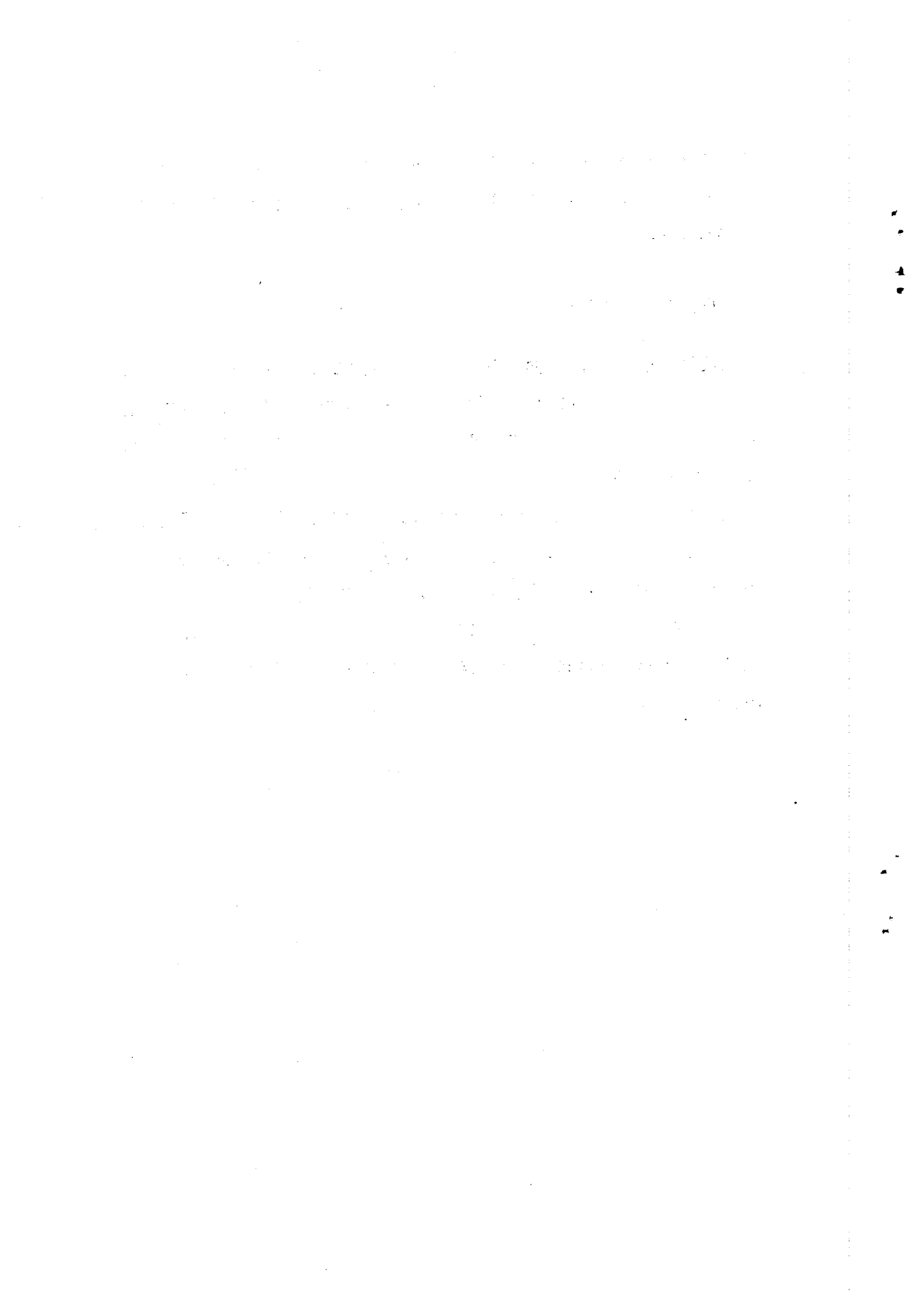
1949 年 8 月 14 日 부다 페스트에서 開催된 世界青年 및 大學
生 祝典에 朝鮮體育代表團 축구부 14 名, 籠球部 9 名, 陸上競技

部 1名, 一行 24名이 出戰하였다. 代表들은 祖國의 榮譽와
쁘라그 祝典에서의 빛나는 勝利의 傳統을 繼承하고자 始終如一
奮闘하였다.

사. 人民體力 檢定實施

人民體育의 計劃的 向上을 圖謀할 目的으로 1948年度부터 每
年 9月1일부터 11月5일까지 사이에 實施하게된 人民體力檢定
은 其 規定을 一部 改正하여 1949년부터는 每年 5月1일부터
10月末까지 사이에 實施되고 있다.

實施方法도 一部 改正되어 基本檢定과 特殊檢定으로 区分되어
實施되고 있는데 基本檢定은 疾走力, 持久力, 跳躍力, 投擲力, 運搬
力 및 體操等이며 特殊檢定은 泳力, 遠行力 및 滑空等 部門中에
서 選擇하게 되어 있다. 廣汎한 人民大衆들은 自願的 原則에
依하여 檢定에 參加하여 自己의 基本體力을 把握하며 體位向上을
圖謀하고 있다.



2. 1950—1951年度 事業總和

1918

1919

1920

1921

1922

2. 1950 - 1951 年度 事業總和

가. 체육의 민주화

과거 일부 특권계급의 점유물로 되어 있던 체육운동경기가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는 완전히 전 인민의 것으로 발전되고 있다. 북반부의 체육문화사업은 직맹, 농맹, 민청등의 대중적 사회단체의 협조하에 전 직장 농촌학원에서 군중적 체육의 규모로써 발전되어 가고 있다.

북반부의 체육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단련되어 근로와 조국보위에 종사할 수 있는 성격과 기능을 소유하는 조직있고 규율있는 청년세대를 육성하여 직접생산과 조국보위에 결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나. 체육절 제정

공화국 내각은 체육을 통하여 로력과 조국보위에 준비된 인민들의 전전한 체위와 무한한 애국심과 고도로 발전하는 체육문화를 국내외에 시위하여 국가적으로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더욱 광범하게 체육교양을 받도록 추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일요일을 체육절로 제정할 것을 1949년 8월 2일 내각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체육절에는 전국적으로 체육인들의 경축시위 및 체육행사가 벌어지며 그리고 매년 체육절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종합체육대회가 개최된다.

다. 체육조직

체육조직으로는 정부 및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로써 구성된 중앙체육지도위원회가 조직되며 지방에는 지방체육지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각급학교, 민청직맹, 농맹에 소속되는 각 체육단등이 조직되어 정부의 체육문화 지도사업을 협조 보장하며 체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이 체육만을 구성하는 노동자, 사무원, 농민, 학생들의 조직이 체육문화 사업의 기본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매년 5.1절, 8.15 경축체육대회 또는 해당 년도의 각종 경기 선수권 대회등이 조직되고 있다. 1949년말까지 공화국 북반부 체육단 조직 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체육단	3,131개	단원수	140,113
농민체육단	3,536개	단원수	118,984
학교체육단	4,381개	단원수	505,861
기타체육단	265개	단원수	4,471

라. 체육시설

인민체육의 물질적 토대인 체육시설의 확충은 지대하다.

1949년 말까지의 그 정형을 보면 대소 공설운동장과 공장, 농촌의 부설운동장들이 수다히 설치되었는데 그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경기장	4,803개소
소운동장	10,007개소
체육관 및 체육실	127개소

수 영 장 34개소

특히 각도 소재지에서는 대경기장 건설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강원도 원산을 비롯하여 각 도시에 건설되었으며 평양특별시 대경기장의 대확충공사도 진행중에 있었다.

이와같은 체육시설의 정비는 대도시들 뿐만 아니라 소도시와 농촌지대들에 가지도 진행되고 있었다.

마. 주요 경기대회

1949년에 진행된 전국적 경기대회는 다음과 같다.

행 사 명	실시 일수	장소	참가 단 수	인 원 수	비 고
빙상선수권대회	3	평양	135	35,000	
선수권대회	3	삼방	99	250	
제 2 차 세계청년 축전 선수 선발 대회	3	평양	105	100,000	
8.15 4주년기 념 체육대회	2	평양	6,995	8,000	
전국체육대회	4	평양	20,000	25,000	
빙상경기특별훈련	11	강계		30	
수빙기록대	228	충남		30	
계				27,494,465,250	

공화국 정부의 올바른 시책아래 이러한 대회들에서는 나날이 향상되어 가는 군중체육문화의 찬란한 성과를 시위하였으며 다수 신기록들을 계속 내고 있었다.

바. 국제무대진출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이 쟁취한 체육 문화사업은 1947년부터 이미 국제무대에 등장하였다. 1947년 8월 브라그에서 개최된 세계 민청 축전에 북조선 민주청년을 대표한 롱구, 축구팀이 참가하여 음악 무용단과 같이 1등을 획득하였다.

또한 1949년 8월에는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세계청년 및 대학생축전에 조선축구대표단 축구부, 룡상경기부 일행이 출전하여 많은 성과들을 거두면서 시종일관 당당히 분투하였다.

사. 인민 체력검정 실시

인민체육의 계획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48년도부터 실시하게 된 인민체력검정은 그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1949년부터는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사이에 실시되었다.

실시방침은 기본검정과 특수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기본검정은 질주력, 지구력, 조약력, 투척력, 현수력, 운반력 및 체조 등이며 특수검정은 영력, 원행력 및 활공등 부분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 광범한 인민 대중들은 자원력 원칙에 의하여 검정에 참가하여 자기의 기본체력을 파악하며 체위향상을 도모하였다.

이리하여 1949년도에 실시한 인민체력검정에는 전 북반부를 통하여 830,725명의 근로자들과 각계 각층 인민이 자원적으로 이에 참가하였는데 이는 1948년도에 비하여 참가자수에 있어서 12.2배, 합격자에 있어서 4배나 된다.

3. 1952年度事業總和

1920

1921

3. 1952 年度 事業總和

가. 체육의 민주화

과거 일부 특권계급의 점유물로 되어 있던 체육운동경기가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는 완전히 전 인민의 것으로 발전되고 있다. 북반부의 체육문화 사업은 직맹, 농맹, 민청등의 대중적 사회단체의 협조하에 전 직장 농촌학원에서 균등적 체육의 규모로써 발전되어 가고 있다.

북반부의 체육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단련되어 근로와 조국보위에 종사할 수 있는 성격과 기능을 소유하는 조직있고 규를있는 청년세대를 육성하여 직접생산과 조국보위에 결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나. 체육절 제정

공화국 내각은 체육을 통하여 로력과 조국보위에 준비된 인민들의 건전한 체위와 무한한 애국심과 고도로 발전하는 체육문화를 국내외에 시위하며 국가적으로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더욱 광범하게 체육교양을 받도록 추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일요일을 체육절로 제정할 것을 1949년 8월 2일 내각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체육절에는 전국적으로 체육인들의 경축시위 및 체육행사가 버려지며 그리고 매년 체육절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종합체육대회가 개최된다.

다. 체육조직

체육조직으로는 정부 및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로써 구성된 중앙체육지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지방에는 지방체육지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각급학교 민청, 직맹, 농맹에 소속되는 각 체육단 등이 조직되어 정부의 체육문화 지도사업을 협조 보장하며 체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이 체육단을 구성하는 노동자, 사무원, 농민, 학생들의 조직이 체육문화 사업의 기본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매년 5.1절 8.15 경축체육대회 또는 해당년도의 각종 경기 선수권 대회등이 조직되고 있다. 1949년 말까지 공화국 북반부 체육단 조직 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체육단	3,131개	단원수	140,113
농민체육단	3,536개	단원수	118,984
학교체육단	4,381개	단원수	505,861
기타체육단	265개	단원수	4,471

라. 체육시설

인민체육의 물질적 토대인 체육시설의 확충은 지대한다.

1949년 말까지의 그 정형을 보면 대소 공설운동장과 공장 농촌의 부설운동장들이 수다히 설치되었는데 그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경기장	4,803개소
소운동장	10,007개소
체육관 및 체육실	127개소

수 명 장 34 개소

특히 각도 소재지에서는 대경기장 건설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강원도 원산을 비롯하여 각 도시에 건설되었으며 평양특별시 대경기장의 대 확충공사도 진행중에 있었다.

이와같은 체육시설의 정비는 대도시를 뿐만 아니라 소도시와 농촌지대들에 까지도 진행되고 있었다.

마. 주요 경기대회

1949년에 진행된 전국적 경기대회는 다음과 같다.

행 사 명	실시일수	장 소	참가수	인 원 수
빙산 선수권 대회	3	평양	135	35,000
선수권 대회	3	삼 방	99	250
제 2 차 세계 청년축전 선수권 대회	3	평양	105	100,000
8.15 4주년 기념 체육축전	2	평양	6,995	8,000
빙상경기 특별훈련	11	강 계		30
전국 체육대회	4	평양	20,000	25,000
수빙기록대	228	홍 남		30
계				27,494,465,250

공화국 정부의 올바른 시책아래 이러한 대회들에서는 나날이 향상되어 가는 군중체육 문화의 찬란한 성과를 시위하였으며 다수 신기록들을 계속 내고 있었다.

바. 국제부대 진출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이 쟁취한 체육문화 사업은 1947년부터 이미 국제부대에 등장하였다.

1947년 8월 브라-그에서 개최된 세계민청축전에 북조선 민주청년을 대표한 룡구, 축구팀이 참가하여 음악 부용단과 같이 1등을 획득하였다. 또한 1949년 8월에는 부다케스트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 및 대학생 축전에 조선체육대표단 축구부, 룡상 경기부 일행이 출전하여 많은 성과들을 거두면서 시종일관 당당히 분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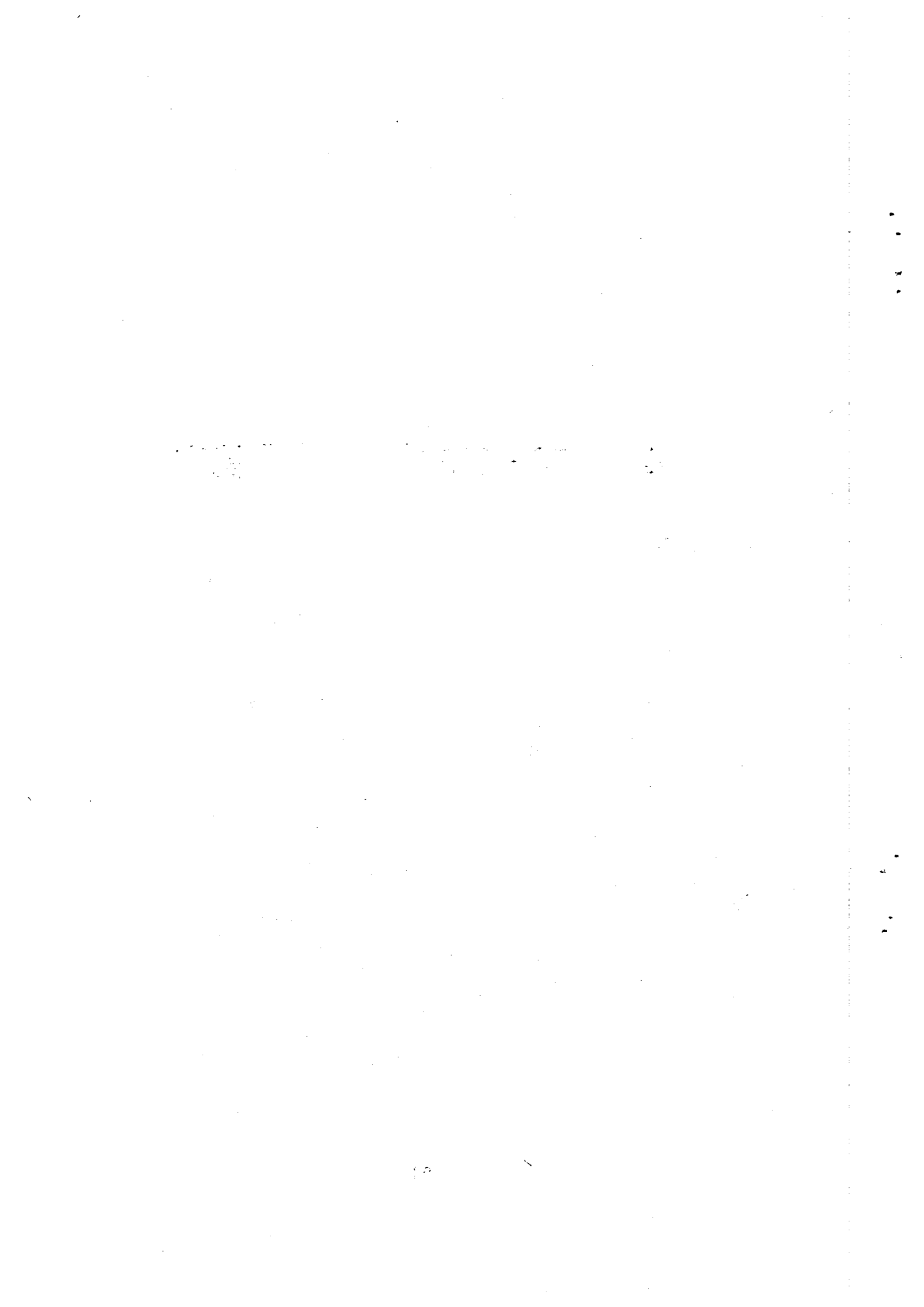
사. 인민체력 검정 실시

인민체육의 계획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48년도부터 실시하게 된 인민체력검정은 그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1949년부터는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사이에 실시되었다. 실시방침은 기본검정과 특수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는데 기본검정은 질주력, 지구력, 조약력, 투척력, 현수력, 운반력 및 체조등이며 특수검정은 영력, 원행력 및 활공등 부분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

광범한 인민대중들은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검정에 참가하여 자기의 기본체력을 파악하며 체위향상을 도모하였다.

이리하여 1949년도에 실시한 인민체력검정에는 전 북반부를 통하여 830,725명의 근로자들과 각계 각층 인민이 자원적으로 이에 참가하였는데 이는 1948년도에 비하여 참가자수에 있어서 12.2배 합격자에 있어서 4배나 된다.

4. 1953—1954年度 事業總和



4. 1953-1954年度 事業總和

공화국의 체육문화는 지난 3년간의 가렬한 전쟁의 시련을 통하여 전후 한층 더 강화 발전되었다.

당과 정부에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육문화 발전에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공화국 내각에서는 체육문화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1954년 6월 23일 내각 직속 체육 지도위원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전후 체육경기의 기술적 향상을 위하여서는 각종 중앙스포츠험회가 조직되었고 이를 통하여 해당 부분 사업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수급별제가 제정되었다.

체육경기는 룩상경기, 각종 구기등과 함께 씨름, 그네, 궁술등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경기를 보급 발전시키고 있으며 수렵, 행군, 모타찌클 해양경기, 그라이더경기등도 광범히 장려하고 있다.

체육문화의 전당으로 되는 체육시설로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의 애국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건설된 모란봉 운동장을 비롯하여 각도 소재지와 주요 도시 및 학교, 농촌, 어촌등지에 설치된 수많은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모란봉운동장은 16,000평방미터에 달하는 근대적 규모의 경기장으로서 4만여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전후 급속히 강화 발전하고 있는 체육경기의 제반 성과는 8.15해방 9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전국 체육 축전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8.15해방 9주년기념 전국 체육 축전에는 직장, 농촌, 학교등의 광범한 대중속에서 선발된 체육팀과 선수들 그리고 민족보위성 내

부성, 교통성 산하에서 선발된 체육팀 및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8.15 9주년 기념 전국 체육 축전의 단체별 성적과 경기 종목별 제1위를 차지한 체육단 및 선수단은 다음과 같다.

○ 단체별 성적

제 1 위 민족보위성 (75점)

제 2 위 평양시 (19점)

제 2 위 함경북도 (19점)

제 4 위 교통성 (18점)

제 5 위 평안북도 (14점)

○ 경기 종목별 제1위를 획득한 체육팀 및 선수

축구 민족보위성

농구 (남자) 민족보위성

농구 (여자) 민족보위성

배구 (남자) 민족보위성

배구 (여자) 함경북도

씨름 민족보위성

그네 리선녀 (자강도) 8미터

100미터 경주 (남자) 박장선 (교통성)

100미터 경주 (여자) 조순녀 (평양시)

200미터 경주 (남자) 리원복 (민족보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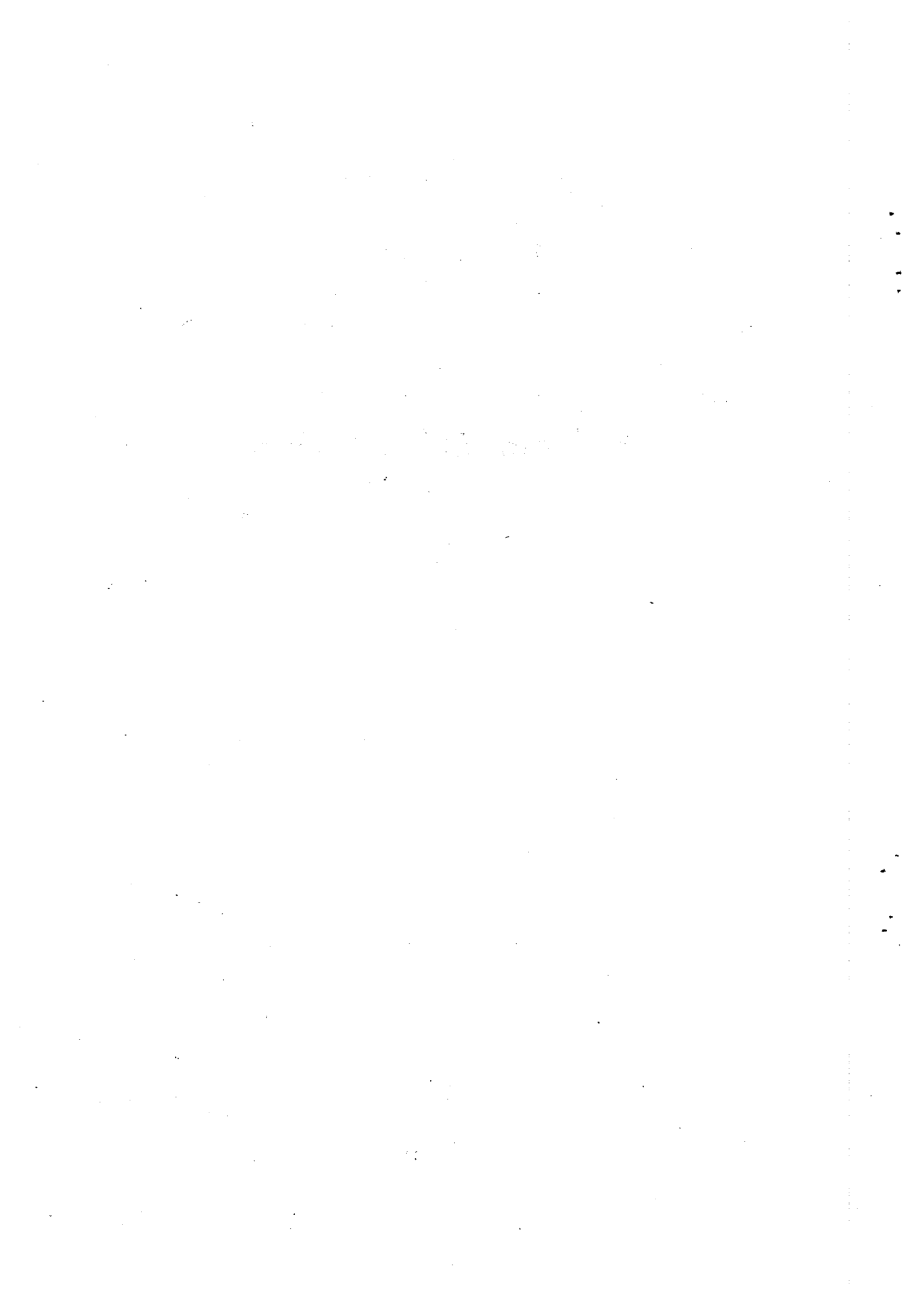
200미터 경주 (여자) 장일순 (민족보위성)

100미터 중량운반 리명하 (민족보위성)

80미터 장애 (여자) 원철성 (평안북도)

110미터 고장애 (남자) 강진중 (민족보위성)

200 메터	장애 (남자)	박원혁 (민족보위성)
400 메터	경기 (남자)	정인철 (평 양 시)
500 메터	경주 (여자)	김정화 (민족보위성)
800 메터	경주 (남자)	박구람 (민족보위성)
1,000 메터	경주 (남자)	박구람 (민족보위성)
1,500 메터	경주 (남자)	김희린 (민족보위성)
5,000 메터	경주 (남자)	강태원 (민족보위성)
400 메터	경주 (남자)	민족보위성



5. 1955年度事業總和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10

11

5. 1955 年度 事業總和

체육지도위원회는 1954년 6월 23일부 내각 결정에 의하여 새로 조직되었다. 체육지도위원회는 체육문화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1955년 4월 20일 일련의 새 규정들을 제정하였다.

<인민체력 점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소년급 제2급 및 제1급의 3계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스포츠 선수 등급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체육인의 최고 영예인 스포츠 명수 칭호를 비롯하여 제1, 제2, 제3급 및 청소년 제1, 제2급등으로 선수등급을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심판원들에게 공화국 심판관 또 심판원 및 시·군 심판원등 3개급씩 자격을 부여하는 <심판원 자격부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체육인들에 대한 교양과 각종 스포츠의 보급 및 스포츠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1955년 11월 1일부터 스포츠 훈련부를 평복을 비롯한 수개 도시에 준설하였다.

또한 지난 기간에 각종 강습을 통하여 1,000명의 체육 지도자들을 육성하였다. 1955년에 각 직장, 학교, 가두 농촌등에 각종 체육단이 조직되었다. 체육시설도 복구 확장되고 있는바 평양시 모란봉 운동장을 비롯하여 원산, 함흥, 청진, 해주, 개성등과 기타 각 도시와 농촌에 경기장들이 건설되었거나 건설되고 있다.

가. 경 기

1955년도에만도 조선 민청 창립 9주년 기념 전국빙상경기대회, 전국스키경기대회, 세계정년주간기념 훈기 3성(민족보위성, 내무성, 교통성) 및 평양시 축구, 룡구, 배구 연맹전 전국 궁술 모범

경기대회 8.15해방 10주년기념 전국체육축전 체육절 기념체육 대회 조선 인민군 창건 7주년 기념 전국 사격경기대회, 전국모형항공기대회, 전국 활공기경기대회 연 145만명에 달하는 운동선수들이 참가한 대중적 경기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8.15해방 10주년 기념 전국 체육축전은 해방후 가장 대규모적이며 다채로운 프로로 진행되었다. 륝상경기를 비롯한 각종 경기에는 각도(평양시, 개성시)와 민족보위성, 내무성, 교통성, 건설성등 15개 단체에서 2,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보천보 총의(함북) 1211고지, 개성시, 신의주시로부터 각각 출발하여 각도 인민들이 김일성 원수와 해방의 은인인 위대한 쏘련 인민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평양까지 전달하는 계주에는 5,000여명의 청년 체육인들이 참가하였으며 마스쎄에는 8,000여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1955년 10월말까지에 있어서 빙상경기에서 3종목을 비롯하여 륝상경기, 력기, 그네, 자전거등에서 38종목의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그중에서 민족보위성 최덕남 동무와 박구람동무는 각각 400메트르와 800메트르 경주에서 스포츠 명수급 기준을 돌파하였고, 민족보위성 김용조, 장병엽, 손길천 동무들은 자전거 경주 50키로메트르 도로경주에서 민족보위성 양재춘 동무는 력기 67.5킬로 그램급에서 각각 스포츠 명수급 기준을 돌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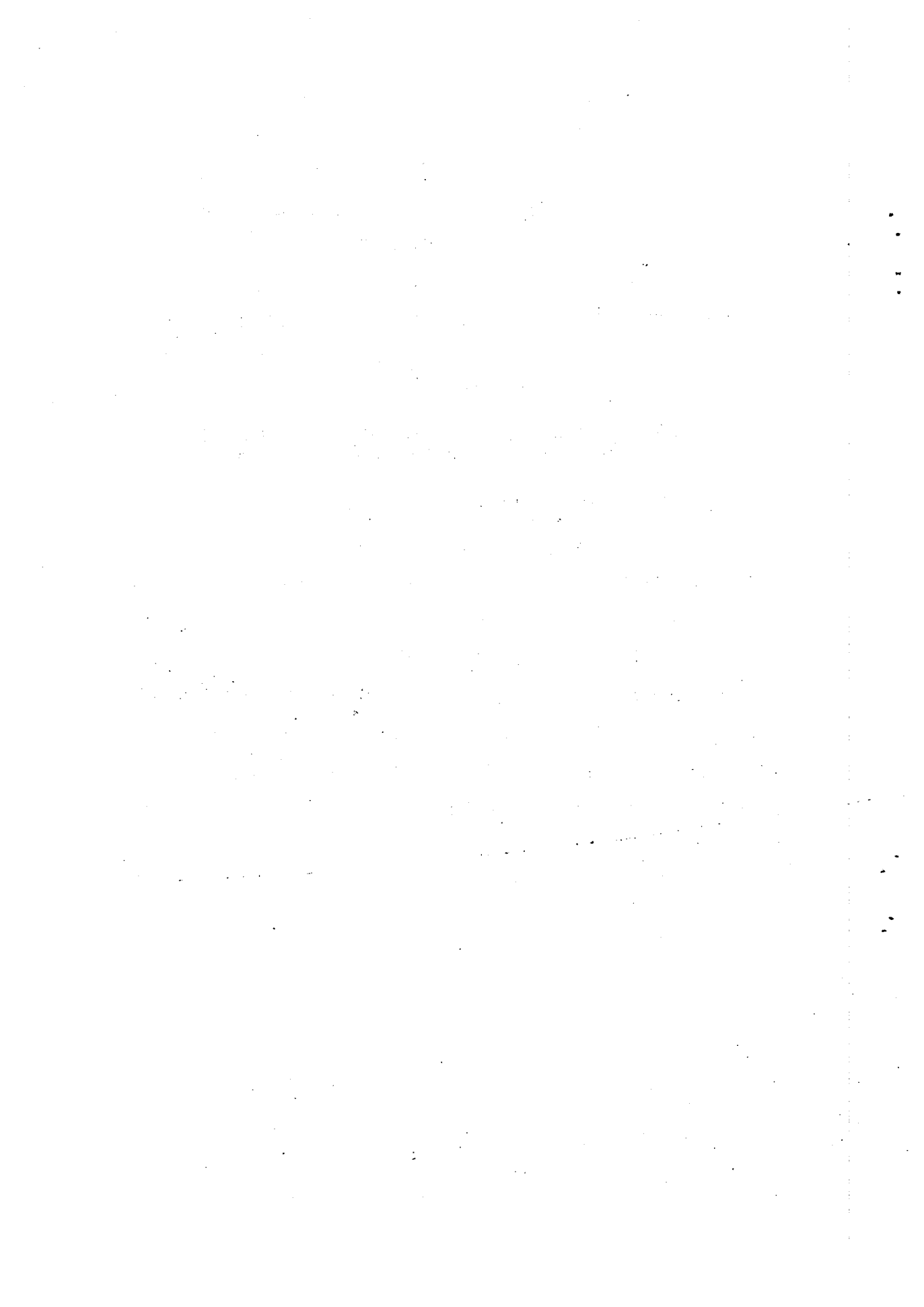
나. 국제적 교류

1955년 6월 체코슬로바키야 해방 10주년을 기념하여 프라가에서 개최된 전국종합체육대회에는 내각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체육지도위원회 교육성, 민족보위성, 내무성 체육대

포단들이 참가하였으며 1955년 7월 31일부터 8월 14일에 걸쳐
와르샤와에서 진행된 제 5차 하계청년학생축전에는 우리의 축구,
농구, 남녀 및 여자 배구팀들이 참가하였다.

그중에서 국제무대에 처음 진출한 여자 배구팀은 소련, 중국,
체코슬로바키야, 루마니아, 파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및 오지리등
세계의 최강팀들과 대전하여 오지리, 독일 및 중국팀들과의 시합
에서 승리하고 루마니아와 기타 국가팀들과의 대전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발휘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6명의 선수들이 개인 상
장을 받았다.

또한 여성 농구팀은 베그루다에서 제 1위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축구, 농구의 남자팀 및 여자 배구팀들은 제 5차세계
청년학생 축전에서의 귀환 도중 소련 레닌 공산청년 동맹의 초
청을 받아 모스크바에 체류하였으며 중국 신민주주의 청년단의 요
청을 받아 약 1개월간에 걸쳐 북경을 비롯하여 상해, 남경, 광
주, 무한등 각지를 방문하여 이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과 우의를
더욱 강화함이 기여하였다. 또한 1955년 11월 11일부터 동
26일까지 중국 수도 북경에서 진행된 국제친선사격경기대회에는
15명의 사격선수들이 참가하였다.



6. 1957年度事業總和

OF THE STATE OF CALIFORNIA

6. 1957 年度 事業 總和

1957 년도 체육 및 스포츠사업은 내각명령 제 14 호를 받들고 전
군중적 운동으로 더욱 광범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
술수준도 현저히 제고되었다.

체계적인 체육사업에서의 성과는 1957 년도 인민체력검정에서 단적
으로 표시되었는바 1956 년도에 비하여 약 6 만명이 증가된 24 만
8, 137 명이 검정기준을 돌파하였다.

1957 년에는 인민보건체조 보급월간의 성과적인 진행이외에 각
지방들에서 등산, 명승지 및 고적 탐승, 야유회, 야영, 행군, 수영 등
에 걸쳐 군중적 행사들이 광범위 진행되어 체육사업에서 레년에
없었던 특색을 이루었다.

1957 년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8, 694 개의 체육단이 도시, 직장,
농촌, 학교등에 조직되어 있으며 이에는 61 만 4, 838 명의 근로자들
과 청년 학생들이 망라되고 있다. 스포츠 발전과 선수 후비 양
성을 위한 스포츠 학교가 17 개 신설되었으며 이에는 4, 305 명의
학생이 망라되고 있다.

1957 년도 현재 스포츠 선수 등급제에 의한 등급선수는 명수
17 명 (그중 여자 4 명) 제 1 급 선수 174 명 (그중 여자 35 명)
제 2 급 선수 142 명, 제 3 급 선수 311 명, 도합 644 명에 달하였
으며 1957 년중에 진행된 각종 체육경기대회를 통하여 명수급 기
준돌파자는 12 명, 1 급선수 기준돌파자는 152 명의 다수를 보게
되어 공화국 스포츠의 비약적인 발전을 증시하였다.

또한 규정에 의한 국가 심판원 92 명, 도 심판원은 219 명에 달
하며 국가 심판원중 5 명이 국제심판으로 등록되었다. 1957 년에
223 명의 경기지도원이 양성되었다. 체육시설도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바 5,000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신의주 정규설의 신설을 비롯하여 송도원 수영장 신의주 10월 청년 경기장, 해산체육관들이 현대적 시설로 완비되었으며 400m 트랙을 인선할 수 있는 경기장 249개와 4,000여개의 대소운동장이 정비되었다.

가. 경 기

전국적으로 진행된 체육 및 스포츠 행사로서는 민청 창립 11주년기념 전국빙상경기대회 (1.20-1.22)

세계 청년 주간기념 전국 권투, 럭기, 레스링 대회 (3.24-3.28)

세계청년주간기념협회련맹전 (3월 - 8월)

전국역전경주대회 (4.6-4.7)

제 6차 세계청년학생축전체육경기대회 및 제 3차 국제청년친선경기대회 참가할 대표선수 선발대회 (6.9-6.11)

8.15해방 12주년 기념 체육축전 (8.15-8.17)

전국 대학생 체육대회 (5.8-5.12)

전국 고중 전문학생 체육대회 (6.27-7.1)

전국수상경기대회 (7.26-7.28)

전국 민족경기 선수권대회 (9.29-10.1)

사회주의 10월혁명 기념 전국 권투, 럭기, 레스링대회 (11.3-11.7)

전국 탁구 및 정구대회와 20회의 각 종목별 협회 련맹전이 있었다. 이에는 1만 318명의 선수(남자 7,317명, 여자 2,992명)들이 참가하였다.

전국 민족경기 선수권대회는 농업협동조합원을 비롯한 광범한 지방 군중들의 참가하에 민족문화 계승 발전에서 전반적으로 양양된 기세를 시위하면서 그네, 널뛰기, 궁술등 종목에 걸친 경기

가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10월혁명 경축 체육절 기념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는 내무성팀이 축구에서 조선인민군 725군부대 남녀팀이 농구, 배구에서 선수권을 쟁취하였다. 정전후 처음 정규축(신의주)에서 진행된 전국 수상경기 대회에는 221명의 선수들이(여자 76명, 학생 123명) 참가하여 38명의 선수들이 평영, 배영등 12개 종목에서 공산국 기록을 갱신하였다.

제 6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국제 계주에는 670명의 청년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1957년에는 스포츠 기술수준도 급속히 향상되어 수상경기를 비롯하여 룡상, 빙상, 럭기등에서 46개 종목에 걸쳐 142명이 갱신하였다. 명수인 박구람 선수는 800 m 경주에서 1분 54초 5, 1,500 m에서 4분 3초로 기록을 갱신하였다.

이밖에 수영에서 400 m 5분 45초, 1,500 m 23분 47초 6, 럭기 75 kg급에서 342.5 kg, 빙상경기에서 3,000 m 5분 52초 5(여자 신기록), 1,500 m 2분 27초 6으로 각각 기록을 갱신하였다.

나. 국제적 교류

1957년에 배구, 룡구, 권투, 탁구, 축구, 빙상, 사격등 종목에 걸쳐 각 국제경기 연맹에 가입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제 53차 총회는 남북조선 올림픽위원회의 단일 민족팀 구성을 예견하면서 공화국 올림픽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경기에서는 제 6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체육경기와 제 3차 국제청년친선경기에 99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권투, 체조, 레스링, 럭기, 룡상등 종목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1957년에 국내에서 진행된 국제적 경기는 조, 중, 몽 월 4개

국 배구친선경기(10.15-10.26)를 필두로 조선 리뜨바 가맹 공화국 <잘기리스> 남녀 농구단, 조선 백로씨야 민쯔끄 <쓰빠르따끄> 축구팀, 중국 제1기계 축구팀들과의 친선 시합들이 진행되었다.

울란 바뜨르에서 진행된 조선 중국, 몽고, 조선, 부랴뜨, 몽고자치공화국간의 4개국 친선경기(남녀 룡상경기 선수참가)의 참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빙상경기 선수단의 중국, 몽고 방문 탁구 선수들의 중국 방문등에서 일련의 친선경기등이 있었다.

1. 체육 및 스포츠 보급과 체육간부 양성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 (1958.3.19)

내각결정 제 30 호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체육적 기능을 발전시키며 체육간부 양성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각상(국장), 기타 중앙기관 책임자 및 각도(평양시, 개성시)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은 근로자들의 체력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 기관을 비롯한 산하 기관, 기업소, 간부 및 농촌들에서 체육 및 스포츠 보급을 장려하며 인민체력 검정사업에 그들을 적극 참가시켜 이에 합격되도록 지도 사업을 강화할 것이며 종업원 1,000명이상의 공장 기업소 들에서는 전임 체육지도원 1명을 당해 년도 노력фон드내에서 조절하여 해당 공장 기업소의 직명 동맹 단체에 배속시켜 체육사업을 지도하도록 할 것이다.

나. 내각 직속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스포츠 기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체육협회 및 체육단들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도 겸열하여 그의 대열을 조직적으로 공고화하는 동시에 스포츠 교수 및 훈련에서 선진 경험들을 적극 도입하여 청소년 학생들과 군중들속에서 각종 스포츠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스포츠 선수 등급 소유자 대열을 확장할데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다. 해당상(국장) 내각 직속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및 각도(평양시, 개성시)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은 스포츠 선수 후배 육

성사업을 계통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현존 스포츠 구락부를 청소년 스포츠학교로 개편할 것인바 각 체육협회(평양시체육단 포함)들에서는 1958년 4월말일전으로 각도(평양시, 개성시)들에서는 1958년 7월말일 전으로 각각 개교할 것이다.

라. 체육간부 양성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양사범대학 체육학부와 신의주 교원대학 체육학과를 통합하여 평양체육대학을 설치한다.

마. 평양 체육대학의 개교 준비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 1) 교육문화상은 평양 체육대학을 별표 제1호(생략)에 의하여 1958년 9월 1일부터 개교하도록 할것
- 2)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평양체육대학의 체육관 기본건설계획은 별표 제2호(생략)와 교육문화성에 추가하여 줄것이며 교통상은 상기 체육관 기본건설공사를 1958년 11월 말일까지 준공할것
- 3) 건설전재 공업상 및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제2호(생략)에 의한 평양 체육대학의 기숙사 및 식당 기본건설을 1958년 평양시 주택건설 펀드에서 조절하여 1958년 8월 15일 전으로 준공할것
- 4)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평양 체육대학의 대지 명시와 금년도 시공 대상들에 대한 설계 기술문건을 1958년 4월 말일전으로 작성 보장할 것이며 평양 체육대학 교원들의 주택 60여대를 1958년 7월 말일까지 보장하여 줄것

바. 체육 및 스포츠에 대한 선전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 1) 교육문화상은 체육 및 스포츠를 선전하는 시보 및 기록영화

를 정상적으로 제작할 것이며 1959년내로 스포츠 예술영화
1편을 제작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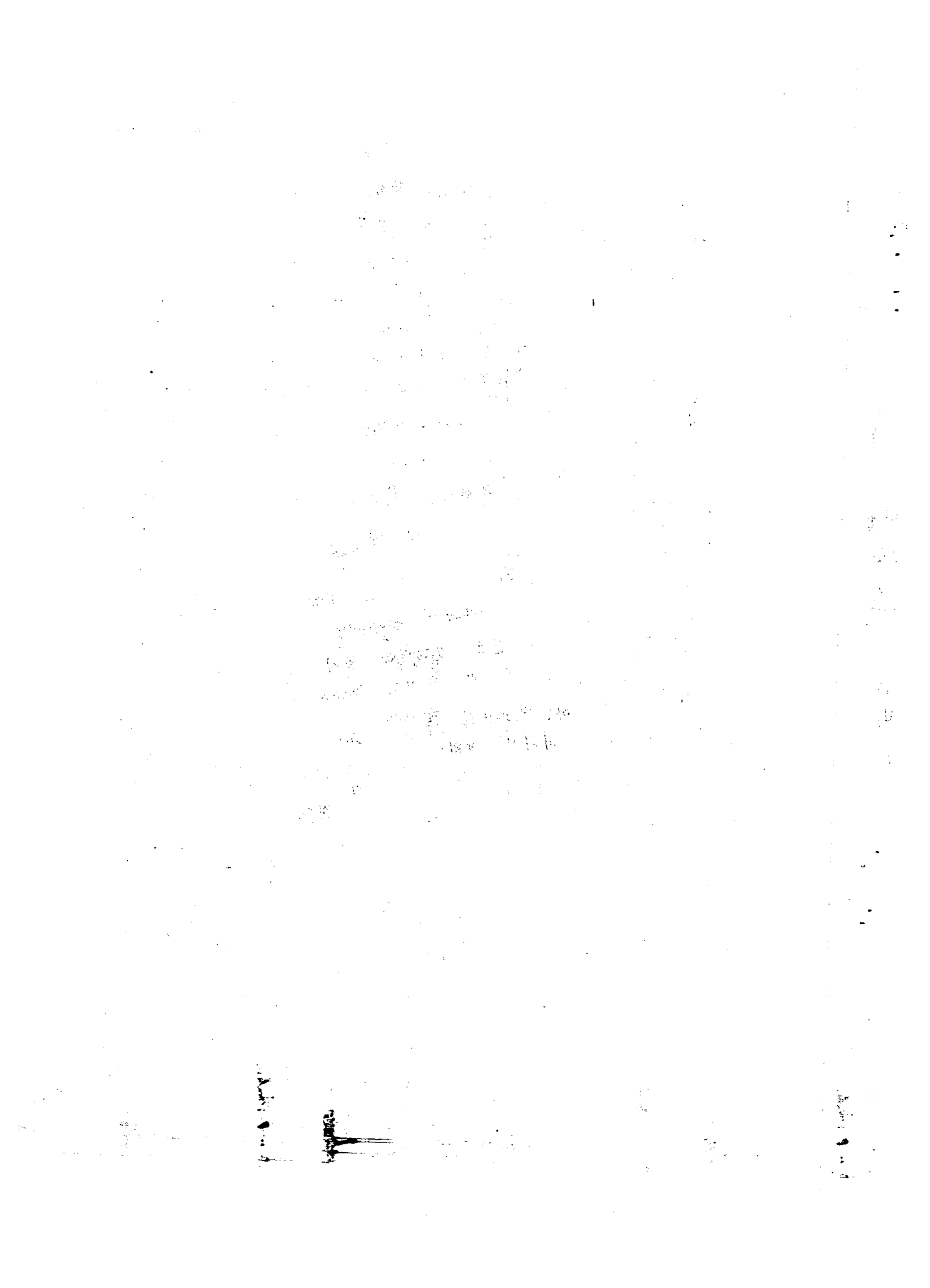
- 2) 내각 직속 체육지도위원회 및 출판 총국장은 잡지〈체육
과 스포츠〉의 질을 더욱 제고함과 동시에 각종 체육도시
들을 계획적으로 출판할것

사. 체육시설을 확장하여 체육기자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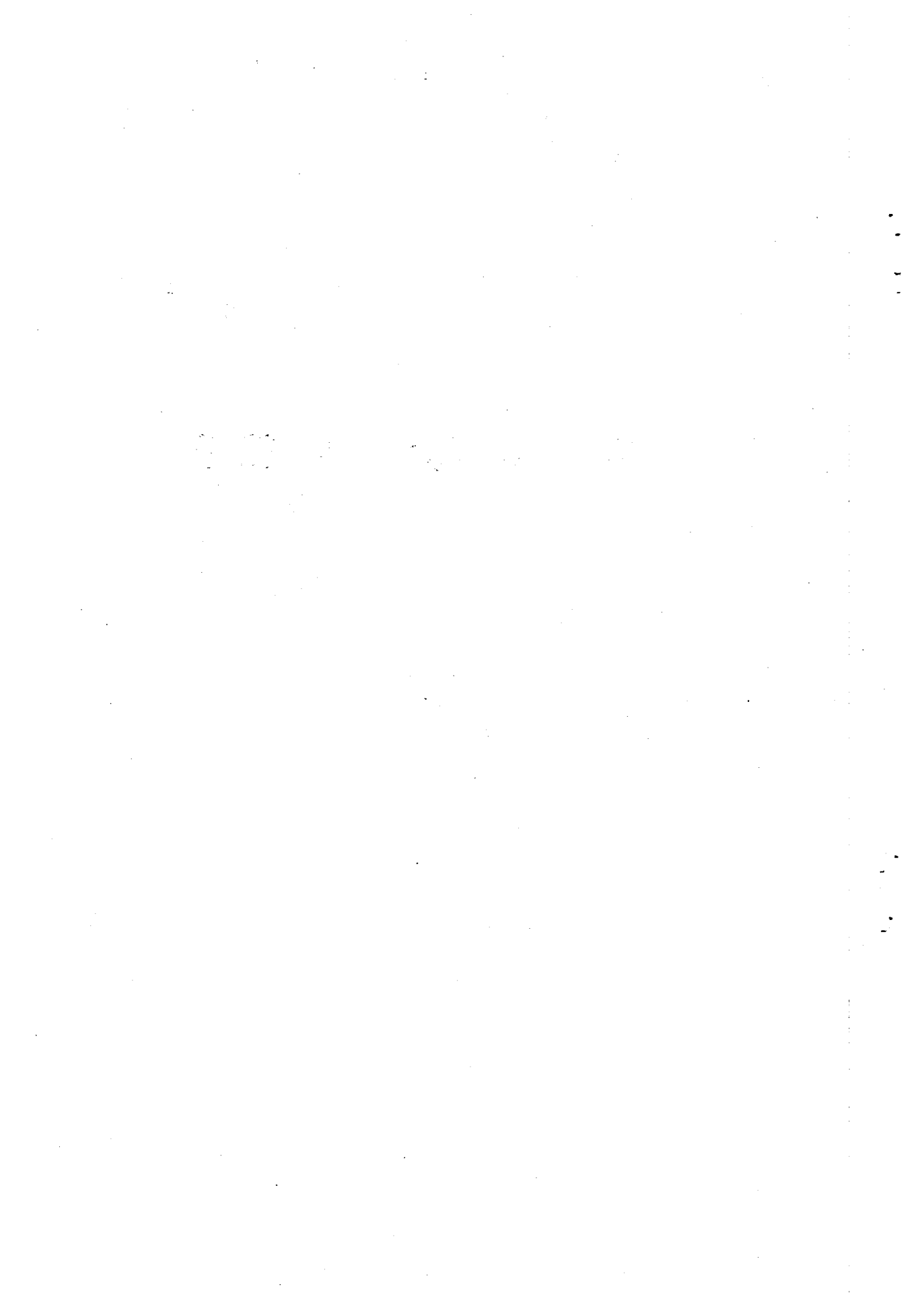
- 1) 각도(평양시, 개성시)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은 1959년내로
도·시·군 소재지의 경기장 및 운동장을 청년들의 애국적
노력으로 정비 확장할 것이며 정규 수영장이 없는 도 소재
지들에는 점차적으로 정규 수영장을 건설할것
- 2) 경공업상 및 생산협동조합 중앙연맹위원회 위원장은 체육
기자재를 생산함에 있어서 표준규격을 엄격히 준수하며 그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종래 외국수입에 의존하던 체육 기자
재들을 점차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하도록 대책을 강구할것

아. 내각간부 국장은 시 체육지도위원회들의 지도적 기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각 시 체육지도위원회에 전임 서기장을 1958
년 4월말까지 배치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 성



7. 1959年度事業總和



7. 1959 年度 事業 總和

제 1 차 5 개년 계획기간에 체육사업은 전체 인민들 속에서 급속히 발전되었으며 스포츠 기술수준도 현저히 제고되었다. 특히 군중체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스포츠 기술수준을 제고할데 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1958년 12월 결정과 1959년 2월 14일부 내각 결정 제 15호가 시달된 후 체육사업 분야에서는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상기 결정들에 근거하여 체육분야에서는 체육사업체계를 확립하며 체육지도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문의 체육협회들과 종목별분과 위원회들을 조직 정비하였으며 군중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직장 및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주민 지구에 체육운동의 기본조직인 체육단을 조직하는등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또한 스포츠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스포츠의 교수 및 훈련 체계를 확립하며 선수 후비 양성사업과 청년팀, 소년팀의 교수훈련 체계를 확립하고 명수 및 유급선수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는 한편 인민체력검정주간(매년 3, 6, 8, 10월의 2주)을 설정하고 전체 인민들이 인민체력검정사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체육사업의 급속한 개화발전을 위하여 제 1 차 5 개년 계획기간내에 국가가 지출한 금액은 1,600 여만원에 달하였는바 그중 1960년도에만도 750 여만원에 달하였다.

1960년도에 체육간부 양성 기관들에서는 200 여명의 체육 간부들을 양성하였으며 2,925명의 체육교원 체육지도 일군 및 사회적 체육 열성자들을 재교육하였다. 150 교의 청소년 스포츠 학교에서는 2만 8,112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미래의 믿음직한 체육선수 후

비로서 1급, 2급 및 명수급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다. 1960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3,465명의 훈련지도원과 3,413명의 공화국 및 도·시·군 심판원들이 있다.

가. 체육단체 및 체육시설

체육단체로서는 강철체육협회, 풍년체육협회, 천리마체육협회, 번개체육협회, 기관차체육협회들이 있다. 체육운동의 기본조직인 초급체육단체는 1만 3,124개에 달한다.

1960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현대적 규모를 갖춘 모란봉 경기장을 비롯하여 71개의 경기장과 4,233개의 운동장 8개의 체육관 183개의 체육실 그리고 1,377개의 대소 수영장이 있다.

나. 군중체육과 인민체력검정

군중체육사업은 1960년도에 와서 더욱 활발히 전 인민적인 사업으로 되었다. 특히 군중체육 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생산과 관련된 생산체육경기가 기양기계공장, 덕천자동차공장, 남포유리공장, 황해제철소를 비롯한 생산직장과 농촌들에서 광범위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혁명 전적지예로의 집단적 달리기를 비롯하여 혁명 전통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체조와 군중적 체육행사들이 그전 해에 비하여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우리나라 체육교양 체계의 기본인 인민체력검정에 132만 9,435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하였는바 그중 66만 7,486명이 합격되었다.

다. 경 기

1960 년도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체육대회로는 민청 창립 14주
년 기념 전국빙상경기대회 (1.24-1.30)

공화국 빙상선수권 대회 (2.25-3.1)

전국 스키 선수권 대회 (3.5-3.2)

전국 초등 및 유자녀 학원학생 체육대회 (6.5-6.11)

제 1 차 체육학교 체육대회 (6.27-6.29)

제 3 차 전국 청소년 스포츠학교 체육대회 (7.17-7.24)

8.15 해방 15주년 경축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육대회
(7.31-8.17)

전국 대학생 체육대회 (8.24-8.28)

조선 인민군 제 7 차 종합체육대회 (8.29-9.10)

제 9 차 내무부 부문 종합체육대회 (9.14-9.18) 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체조, 륝상, 수영, 자전거, 빙상, 축구, 룡구, 배구, 탁
구, 권투, 려기, 레스링, 씨름, 궁술, 사격, 무선통신, 락하산, 활공기,
모터씨클 등 19 개 종목의 1 급, 2 급 선수단 련맹전이 71 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960 년도에 진행된 경기대회에는 신인선수만도 22 만 7,359 명이
참가하였으며 6,370 명이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였다. 1960 년도
에 체육기술수준도 급격히 제고되었는바 명수급 기록 돌파자
365 명, 선수등급 1 급 기준 돌파자 994 명, 2 급기준 돌파자
3,279 명, 3 급기준 돌파자 9,741 명, 청년급 기준 돌파자 9,677
명, 소년급 기준 돌파자는 7,060 명에 달하였다.

1960 년도에 신금단선수(녀자)는 400 m 53 초로, 800 m 2 분
04 초 5 로 뛰여 세계 기록을 돌파하였다.

모형 항공기 부문에서는 아 2급 모형 활공기 선수 리현덕이 900점 기록, 수신수자에서 박홍빈 선수가 430으로부터 520으로, 김정자 선수는 기록 수신수자에서 440에서 450으로, 안명자 선수는 통신 문자 125에서 135로 기록을 달성하였다.

라. 국제적 교류

1960년도에 자전거 종목이 국제경기련맹에 새로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항공, 럭기, 배구, 룡구, 권투, 탁구, 축구, 빙상, 사격, 레스링, 체조등 12개의 종목에 걸쳐 국제경기련맹에 가입하고 있다.

1960년에 우리나라에서 중국 탁구팀, 독일 지나모 축구팀(1:0으로 평양시 종합팀이 승리)

쑤련 크릴리야 쑤베또브 축구팀(8:3으로 중앙체육강습소팀이 승리)

중국 룡상팀, 몽고 룡상팀, 중국 상해 럭기팀(5:2로 평양시팀이 승리) 등 6개팀의 87명의 선수들과 친선 시합이 있었다.

1960년 우리나라 남녀 선수들은 쑤련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즈나멘스끼 형제 기념 국제 룡상경기대회를 비롯하여 중국(북경, 상해)에서 진행된 수영경기, 쑤련에서 있는 룡구, 레스링, 축구경기 파란(와르샤와)에서 진행된 배구경기, 몽고(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된 4개국 배구친선경기대회(조선, 중국, 몽고, 월남), 중국(북경)에서 있는 축구경기(2:1로 2.8팀이 승리)

중국 및 몽고에서 있는 탁구경기등 7개 종목에 걸쳐 111명의 선수들이 친선경기를 진행하였다.

이밖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샌프텐베르그에서 진행된 사회

주의 국가 군대들간의 제 1차 체조 선수권 대회, 철봉경기에서 우리나라 2.8체육단 안준 선수가 1위를 획득했다.

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육대회

5년에 2차씩 8.15를 전후하여 전통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육대회가 1960년에 (7.31~8.17)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대회에서는 룡상, 체조, 각종 구기 경기들과 민족 경기등 도합 35개 종목에 걸쳐 도 대항전과 1급선수단 대항전이 진행되었는데 이에는 노동자, 농민, 학생등 광범한 군중속에서 배출된 5,000여명(11개 도(시)에서와 10개의 1급선수단)의 체육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이외에 체육대회에서는 항공체육인들의 모범출연, 평양 시내 20,000여명 학생들의 대집단체조 <우리조국만세>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각 도민들과 군무자들의 지성어린 편지 전달 제주와 특히 60만 제일 동포들이 김일성 원수에게 드리는 축하문 전달을 위한 112명의 제일조선청년학생 자전거 행진대의 도착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대회에서 200m를 23초8로 달림으로써 종전의 공화국 기록을 또 다시 1초나 단축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신희단 선수를 비롯하여 107명의 선수들이 162회에 걸쳐 공화국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84명의 선수들이 도합 100회에 걸쳐 공화국 스포츠 명수급 기준을 돌파하였다.

특히 자전거 경기에서는 18명이 24회에 걸쳐 공화국 명수급 기준을 돌파하였으며 25명의 선수들이 37회나 공화국 기록을

갱신하였다.

수영경기에서는 22명의 선수가 공화국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력기 경기에서는 22명의 선수가 22회에 걸쳐 명수급 및 공화
국 기록을 돌파하였다.

무선통신에서 중앙체육강습소의 박홍빈, 김정자 선수들은 기록
수신에서 모형항공기 경기에서는 리현덕선수(평양사범대학 학생)
가 아2급 활공기 경기에서 각각 국제기록들을 돌파하였다.

1.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스포츠 기술수준을 제고할 데 대하여
(1959.2.27)

내각결정 제15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은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스포츠 기술수준을 제고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1) 대중 체육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체 근로자들이 매일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체육운동을 실시하도록 한다.
- 2) 각 기관, 기업소, 학교, 협동단체 책임자들이 종업원들에 대한 체육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 3) 1959년부터 매년 3월, 6월, 8월, 10월의 제2주를 인민체력주간으로 설정하고 전체 군중들이 인민체력검정사업에 참가하도록 하되 그에 대한 지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특히 간부들이 출선 참가하도록 한다.
- 4) 또한 생산, 건설 및 사무직장들과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하여 기타 모든 주민지구에서 체육운동의 기본조직인 체육단을 조직하고 광범위하게 군중들을 이에 망라시키는 동시에 체육열성자들을 바탕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 5) 학교의 체육 수업시간을 증가하는 방향에서 체육과정반 및 교수요강을 재검토하며 체육교수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사상 및 과학성을 제고하며 학생들의 육체교양에 대한 교육일꾼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6) 학교내 체육단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원 및 학생들의 과외 체육운동을 매일 1시간씩 조직 진행하며 학생들에 대한 의료검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다.
- 7) 근로자의 사회주의 경쟁을 평가함에 있어서 체육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경쟁 종목의 하나로 포함시켜 평가하도록 한다.

- 8) 근로 인민들 속에서 체육단련을 위한 체육의 기본종목인 체조, 육상, 수영과 스키를 더욱 대중화하는 동시에 국방체육과 민족체육을 발전시키며 체육, 등산, 여행, 야영 등 대중적 체육 행사를 광범히 조직하도록 한다.
- 9) 체육야영과 탐험근거지로서 유서깊은 백두산, 잠시전 호반에 200명을 수용하는 200평방메타의 체육인 야영소를 1959년 3·4분기 중으로 건설하는 동시에 1960년부터 년차별로 부전 호반, 백암에 체육인 야영소를 건설하도록 한다.
- 10) 스포츠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선 스포츠의 교수 및 훈련체계를 확립하며 선수들의 육체단련과 기술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을 체육의료사업과 밀접히 결부시키도록 하는 동시에 경기지도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그들의 기질을 향상시킬 대책을 강구 실시하도록 한다.
- 11) 스포츠의 교수 및 훈련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며 스포츠 분야에 아직 남아 있는 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시급히 청산하고 선수들의 대열을 정치적으로 견실하고 스포츠에 유망한 청년들로서 강화하며 선수 육성사업과 청년팀, 소년팀의 교수, 훈련체계를 확립하고 그의 교수 및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명수 및 유급선수 대열을 부단히 확대하도록 한다.
- 12) 이를 위하여 1959년 4월말까지 매개 전문학교 및 대학들과 2급이상의 기업소 및 농업협동조합들에 체조, 육상, 수영, 사격, 축구, 농구, 배구를 비롯한 중요 체육운동 종목들의 선수단을 조직하도록 한다.
- 13) 1959-1960년 기간에 중요생산 및 건설직장과 시·군 소재지들에 청소년 스포츠 학교망을 200교로 확장하도록 한다.

- 14) 또한 1959년부터 매년 10-12월 기간에 매개 체육인들과 선수 집단들의 연중 스포츠 교수훈련 정형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그에 기초한 각 종목의 급별 연맹전 체계를 수립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교육훈련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대표팀을 1959년 3월 말일까지 조직하도록 한다.
- 15) 각 기관, 기업소 및 학교들로 하여금 선수등급 2급이상을 소유한 선수들과 청소년 스포츠학교 학생들에게 매일 기본임무를 수행한 후 정상적으로 2시간이상 체육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 16) 특히 체육사업 체계를 확립하며 체육지도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 이와 관련하여 1959년 5월 말일까지 체육사업에 광범한 근로 인민들을 인입하며 군중체육 및 스포츠 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부문의 체육협회들과 종목별 분과위원회들을 조직 정비하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 17) 국가 및 사회적 체육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강화할 대책을 강구 실시하는 동시에 체육에 대한 규정 기술지도를 유일적으로 작성하여 공포하며 기업소, 학교, 농업협동조합 및 공원에 체육시설들을 제외한 일체 체육 및 스포츠 시설들을 통일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을 체육지도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한다.
- 18) 체육간부 양성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사범교육 기관들에서의 육체교양사업을 강화하며 평양체육대학의 사업을 시급한 시일내에 개선 강화함으로써 그의 교수 및 훈련사업에서 사상 및 과학성을 제고할때 대한 대책을 강구 실시하도록 한다.

19) 1959-1960 학년도부터 평양체육대학에 예과를 설치하는 동시에 전문부 학생을 추가 양성할 것이며 보통 교육부문 체육 보전들과 체육 일꾼들을 육성하기 위한 재교육반을 설치 운영하되 1959년 4월 1일부터 평양체육대학에 3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재교육반을 1959년 7월 1일부터는 각도 실정에 적합하게도 소재지 또는 지구별로 단기 재교육을 실시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20) 체육과학 및 체육선전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1959년 6월 말일까지 체육과학연구소를 설치하며 사업과 의료사업을 밀접하게 결부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체육의료사업 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체육의료소를 1959년 4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21) 체육기 자재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체육시설들을 확장하기 위한 제반 대책은 지시에 의하면 금후 큰 기업소와 학교들을 건설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그의 기본건설계획에 예견하여 건설하도록 한다.

22) 평양종합체육관 건설을 1960년 기본건설계획에 예견하며 수영장과 기타 실내 훈련장들을 금년내로 건설하도록 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훈체육인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공화국 체육 발전에 특출한 공훈을 세운 체육인들에게 국가적 포창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공화국 체육부문에서 최고의 영예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훈체육인 칭호를 제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훈체육인 칭호에 관한 규정을 승인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 용 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박 문 규

1960년 11월 11일 평양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훈체육인 칭호에 관한 규정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훈체육인 칭호는 우리나라의 체육사업에 있어서 특출한 공훈을 세우고 인민들속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국가 및 사회사업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체육인들과 체육부문에 종사하는 일군들에게 수여한다.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훈체육인 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여한다.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훈체육인 칭호를 수여받은 체육인들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표창장을 수여한다.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훈체육인 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서만 박탈할 수 있다.

8. 1961年度事業總和

8. 1961年度 事業總和

1961년에 체육사업은 보다더 대중화되고 체육수준도 현저히 제고되었다.

각 생산직장, 학교등에서는 집단적 달리기 전적지답사, 체육여행을 비롯한 구중체육이 광범히 진행되었으며 또한 체육을 생산과 밀접히 결합시키는 생산경기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광범히 확대 발전되었다.

특히 구중체육 분야에서 1961년에는 수만명 청년 학생들이 망라되어 종합적 체육성과를 반영하는 집단체조가 급진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체육 기술도 급격히 제고되어 우리나라 체육인들 속에서는 세계 기록 돌파자가 배출되었으며 일련의 국제경기들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1961년에 국가에서는 체육분야에 막대한 국가자금을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체육시설이 확장정비 되었고 근로자들과 학생들 속에서 체육활동이 광범히 보급 발전하여 체육의 대중적 기반이 튼튼히 꾸려졌다.

2급팀은 1960년도에 비하여 축구는 35개로부터 111개팀으로 룡구(남녀)는 36개로부터 130개팀으로 장성되었으며 특히 1960년까지 없었던 송구는 11개팀, 투구는 5개팀이 새로나왔다.

1961년에 84명의 공화국심판원 1,086명의 도급심판원 2,533명의 시, 군급 심판원들이 양성 재교육 되었다.

당과 정부에서는 신금단, 신영규, 연승철, 조병걸, 최기철등 5명에게 <공훈체육인> 칭호를 수여하였으며 285명의 체육인들과 체육인군들에게 국가훈장과 메달을 수여하였다.

가. 군중체육

1961년에 근로자들과 청소년들 속에서는 체조, 룡상, 수영 각종목의 구기와 민족체육 등산야영 혁명전적지와 고적명승지의 탐승 행군등 다채로운 체육활동이 광범히 진행되었다.

혁명전적지와 명승고적지에로의 답사야영 행군에는 3만여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참가 하였다.

또한 1961년에는 공화국 각도, 시, 군 구역들에서 선발된 160만명의 소년단원들이 참가한 <평양-보천보-백두산-달리기>가 진행되었다. 1961년도에 더욱이 대중적으로 발전된 집단체조는 공화국 각지에서 광범히 조직 되었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우리당 정책을 정확히 반영한 여러가지 작품을 창작하였다.

특히 당대회를 경축하여서는 실로 2만7,700여명이 참가한 총 6장의 대규모적인 집단체조<로동당시대>를 창작 출연하여 우리나라 집단 체조예술이 달성한 고상한 사상예술적 성과를 유감없이 시위하였다.

1961년에 창작한 우수한작품(집단체조)은 다음과 같다.

<승리자의 명절> 1만1,600명참가(5월7일)-함흥

<공산주의 후비대> 1만1,000명참가(6월6일)-평양

<8월의 명절> 1만7,000명참가(8월15일)-평양

<로동당시대> 2만7,700명참가(9월21일)-평양

생산경기는 전국적으로 또한 생산직장, 농촌등에서 광범히 조직되었다.

전국 트랙토르 기경통신 경기에는 115개의 농기계 작업소들과 27개소의 국영농목장 들에서 7,990대의 트랙토르가 참가하여

봄갈이와 파종계획을 15 - 20 일간 앞당겨 수행함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소비기준에 평균 5 - 10%의 연유를 절약 하였다.

나. 인민체력 검정

1961년도 인민체력검정은 개정된 (1961.9.19. 내각수상비준 제 599 호에 의하여 개정) 인민체력 검정기준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체육이 대중화되고 체육기준이 발전됨에 따라 인민체력검정 기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961년 인민체력검정에는 108 만 479 명 (그중 여자 43 만 3,776 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합격자는 전년보다 3 만 1934 명이 증가되어 69 만 9,420 명 (그중 여자 25 만 7,962 명)에 달하였다.

다. 체육시설 및 체육단체

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증설되었다. 특히 경기장 수영장들이 정비되었고 학교들에서의 체육시설이 완비되었다. 1

1961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규모를 갖춘 86 개의 경기장과 4,188 개의 운동장, 8 개의 체육관, 120 개소의 간이수영장이 있다.

체육단체 (전문단체)로서는 강철체육협회, 천리마체육협회, 번개체육협회, 기관차 체육협회 등이 있다.

체육활동의 기층 조직인 초급체육단체는 908 개 있으며 여기에는 107 만 505 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 (그중 여성은 47 만 1,266 명)들이 망라되고 있다.

150 여개의 청소년 체육학교에서는 2 만 8,000 명의 청소년들이 선

수 후비로 자라고 있으며 그밖에 각도 소재지와 중요산업지대에 설치된 사격, 해양통신, 자동차, 트랙또르, 항공등 구락부들과 크루쇼크에서 수만명의 청소년들이 선수후비로 자라나고 있다.

라. 경 기

1961년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체육대회로는
민청창립 전국빙상경기대회 (1월 15 ~ 20 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육대회 (스키, 2월 15 ~ 21 일)
전국 트랙또르 기경 통신경기대회 (3월 20 일 ~ 4월 9 일)
전국역전경기대회 (4월 16 일 ~ 20 일)
전국로동자 체육대회 (5월 1 ~ 10 일)
보천보 전투승리 24주년 기념 전국민족경기대회 (6월 4 ~ 9 일)
제 4 차 전국청소년 체육학교체육대회 (6월 4 ~ 11 일) (청년반)
전국마라손경기대회 (6월 18 ~ 21 일)
전국 유자녀학원 학생 체육대회 (7월 16 ~ 23 일)
전국어로생산경기대회 (7월 23 ~ 29 일)
전국 학생 해양체육대회 (8월 3 ~ 10 일)
조선노동당 제 4 차 대회경축 전국해양체육대회 (9월 18 ~ 20 일)
전국 학생체육대회 (지구별대회 8월 20 ~ 27 일) 등이 있었다.

이와함께 체조, 룡상, 자전거, 수영, 빙상, 축구, 룡구, 배구, 탁구, 송구, 투구, 권투, 려기, 레스링, 씨름, 궁술, 스키, 사격, 무선통신, 모또찌클, 락하산, 활공기등 22개 종목의 1급, 2급 선수단의 체육대회들이 진행되었으며 각도에서는 군급 대항전들이 진행되었다.

이리하여 1961년에 진행된 각급체육대회에는 72만여명의 로동

자, 협동농민, 학생등 각계각층이 참석하였다.

1961년에 진행된 체육대회들에서는 221명의 선수가 289회에 걸쳐 공화국 신기록을 수립하였으며 306명이 334회에 걸쳐 공화국 체육명수 기준을 돌파하였다.

또한 19명의 명수, 658명의 1급선수 3,049명의 2급선수, 6,747명의 3급선수 등이 배출되었다.

1급 선수단 제1차 육상기록대회에서 신금단선수(여자)는 800m를 2분1초2(전반을 59초로 후반을 62초2로)로 제2차 육상 기록대회에서는 400m를 52초1로 달리므로써 세계기록 보유자로 등장하였다.

전국 마라톤 경기대회에서 제1위를 차지한 전만홍(2.8팀) 선수는 종전의 기록을 4분14초8이나 단축하여 우리나라 마라톤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국제기록에 점차 육박하고 있다.

마. 국제교류

1961년도에 궁술종목이 국제경기 연맹에 새로 가입되어 현재 우리나라 축구, 룽구, 배구, 탁구, 체조, 자전거, 럭키, 권투, 레슬링, 사격, 항공, 빙상등 도합 13개 종목이 국제 체육경기 연맹들에 가입하고 있다.

1961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야 권투 국가 종합팀 선수권 보유자를 비롯한 12명의 선수들(2.8팀 및 종합팀이 7:1, 6:2로 각각 압도적으로 우승) 16명으로 구성된 독일 여자 룽구종합팀 선수들(7월, 평양시팀, 번개팀 및 2.8팀들이 97:35, 80:45, 101:63으로 3전3승) 16명으로 구성된 버르마 배구 국가종합팀(9월상업 및 매봉산팀들이 각각 3:0으로

승리) 23 명으로 구성된 쏘련 아완 가르트 축구단(9월 2.8 팀이 1:0 으로 승리)과의 친선경기 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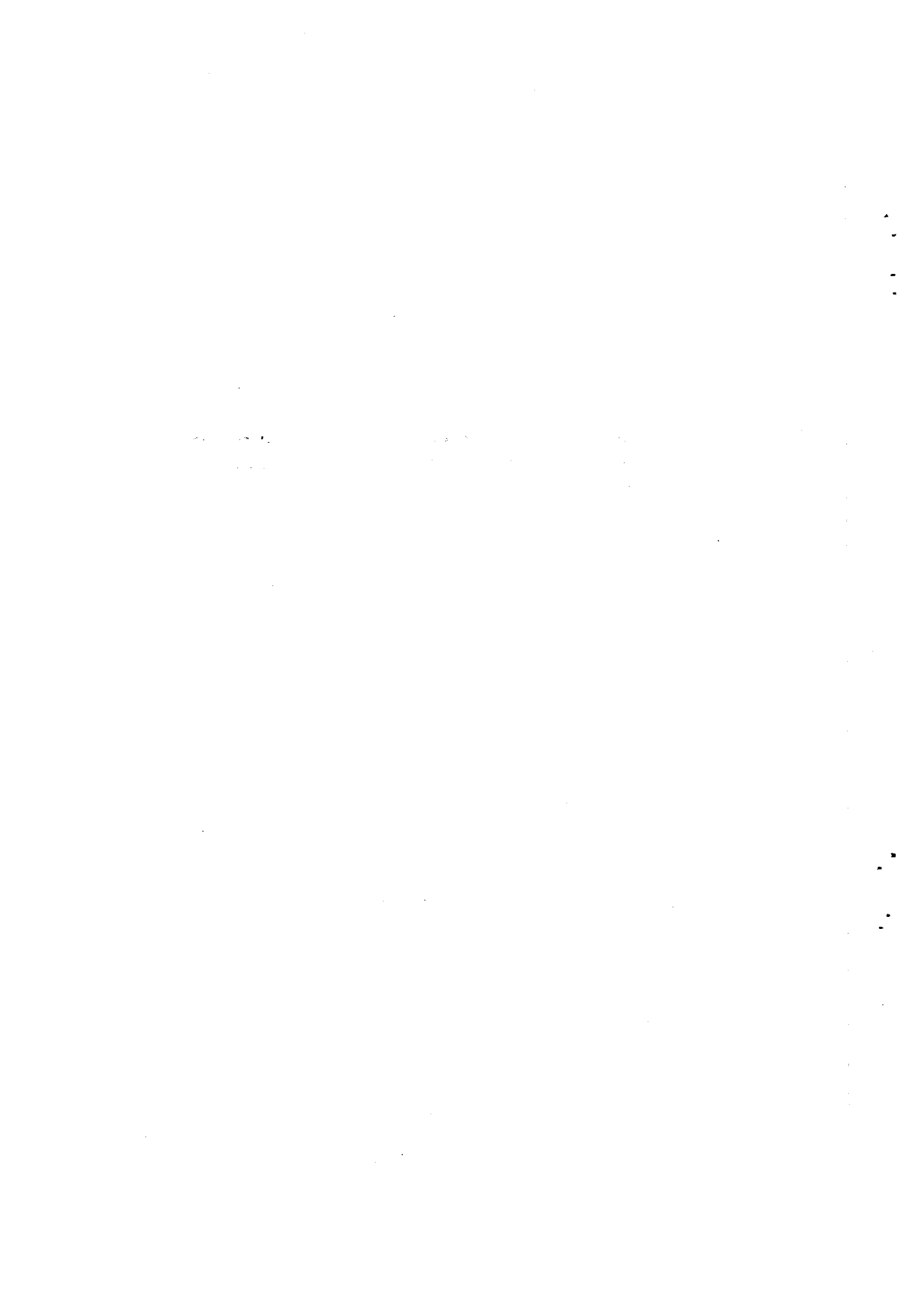
1961년 7월에 모스크바에서 있는 즈나멘쓰끼 형제상 쟁탈을 위한 국제 육상경기에서 우리나라 신금단 선수는 세계 24 개국에서 온 국제올림픽대회 출전자들과 기록보유자들, 구라파 기록보유자들을 멀리 뒤떨구고 400 m (53 초 5)와 800 m (2분 4 초 6) 경주에서 각각 제1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적 패권을 쟁취하였다.

9월에 우리나라 평양시 축구단은 모스크바에서 세계적 강팀으로 알려진 쏘련 스파르따꼬 팀을 2:1로 승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2.8 체조 선수단은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국가 군대체조 친선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평행봉 규정 종목에서 각각 1, 2위를 쟁취하였다.

이 밖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모스크바상 쟁탈을 위한 국제력기대회(모스크바-3월) 4월에 북경에서 있는 제26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남자탁구 선수들 브라질팀, 쏘련팀, 뉴질랜드 팀들과 대전하여 5:4, 5:2, 5:0으로 각각 승리) 9월에 쏘피아에서 진행된 국제대학생 체육대회(우리나라 여자롱구선수들 토이기 팀과 대전하여 105:15로 승리)에 참가하여 일련의 친선 경기들을 진행하였다.

9. 1962年度事業總和



9. 1962年度 事業總和

1962년에 우리나라체육은 보다 대중화 되었고 체육기술 수준도 현저히 제고되었다.

1962년 5월 3일 청소년 교양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있은후 군중체육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학교체육사업은 보다높은 단계로 발전하였으며 인민체력 검정을 비롯한 각종 군중 체육활동도 더욱 광범히 전개 되었다.

체육의 대중적 발전에 기초하여 체육기술수준이 급속히 제고되어 1962년에 일련의 국내 국제경기들에서 세계체육계를 경탄케한 새로운 기록들이 수립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체육의 국제적지위를 크게 강화 하였다.

가. 체육시설 및 체육단체

1962년에 체육시설이 증설되었고 기존체육시설들이 보다 훌륭히 정비되었다.

유서깊은 혁명전적지인 삼지연에 총연장 54키로미터의 스키장이 설치되었으며 수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동궁전 체육관이 신축되었다.

1962년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14개의 체육관을 비롯한 수많은 경기장 축구장 3,177개, 룡구장 4,600개, 배구장 3,608개, 정구장 1,399개, 탁구장 3,647개, 씨름장 6,035개)들과 1,535개의 간이 및 정규 수영장 121개의 체육시설이 있다.

사회적 체육단체로서 수십개의 1급선수단과 구기종목을 비롯한 17개의 종목에 걸치는 590개의 2급 선수단들과 각공장 기업

소 기관들에 조직된 수백개의 3급선수단들이 있으며 이에는 수만명의 우수한 젊은 체육인들이 망라되어 있다. 군중체육발전의 기층조직인 초급체육단체는 9,097개 있으며 여기에는 137만 690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망라되어 있다.

나. 군중체육

1962년에 우리나라 인민들의 특성에 맞는 각종 군중체육활동이 더욱 대중적으로 발전되었다. 1962년 5월 3일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있을 후 학교체육사업에서는 일대변혁이 일어났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체육수업과 과외체육사업이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룡상, 체조, 수영등 체육단련의 기본종목과 함께 각종구기 민족체육, 국방체육등이 전례없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편 각급 학교들에서는 녀학생들에게 예술체조와 체육무용을 보급 일반화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하였는바 이에는 수십만명의 녀학생들이 참가 하였다.

학교체육사업이 활발히 전개된 결과 학생들 속에서 수많은 재능 있는 선수후배들이 배출되었다.

1962년에 열린 전국고등기술학교 체육대회와 전국대학생 체육축전에는 근 5,000명의 선수들중 그의 대다수가 3급선수 이상의 기준을 돌파하였다.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집단적달리기 혁명전적 지어로의 체육여행을 비롯한 각종 군중체육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1962년에 혁명전적지예로의 체육러행과 집단적 달리기에는 수만 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사상 예술적으로 좋고 체육적으로도 훌륭한 집단체조를 광범히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집단체조는 보다 심오한 내용과 기교를 갖추면서 급격히 발전하였다.

1962년에 집단체조는 보다 대중화되어 각도 들에서는 물론 시군들과 많은 학교들에서도 자립적으로 창작 출연하였는바 전국적으로 101개의 시,군들에서 55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이에 참가 하였다.

그중에서도 9월 9일 청진화학섬유공장 준공 및 공화국 창건 14주년을 기념하여 청진시에서 창작 출연한 집단체조<빛나는 우리조국> 2만 7천여명 참가는 1961년에 중앙에서 출연한 <로동당시대> 못지않은 훌륭한 작품이었다.

집단체조는 내용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는바 8월 27일 함경남도(신포시)에서는 해양집단체조 <바다는 청년들을 부른다> (3천명참가)를 항일무장 투쟁개시 30주년을 기념하여 함경남도(장진군)에서는 스키집단체조<보천보의 해발> (1,400여명참가)을 창작출연 하였다.

1962년에 창작발표된 집단체조는 우리나라 집단체조의 급속한 발전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1962년에 우리나라 체육교양체제의 기본인 인민체력검정 사업에는 보다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인민체력검정 참가자 합격자 장성

	1961년	1962년
참가자수	1,080,479명	1,532,770명
합격자수	699,420명	924,015명

특히 합격률에서 소년급 합격자수는 전년에 비하여 143%로 장성하였다.

1962년에 생산체육경기는 여섯개고지 점령에 중심방향을 두고 보다 광범히 조직되었으며 전국적인 범위로 경기체제가 확립되었다.

생산체육경기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직업적 특성과 육체적조건에 적응하게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진행되어 근로자들의 체력을 증진시킴과 함께 새로운 노동 기준량을 창조하고 선진 작업방법의 도입과 창의고안 운동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다. 체육간부, 선수후배 양성

체육선수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평양체육대학 각도 체육 간부양성소들과 각사범학교, 교원대학들에 체육과가 설치되어 체육교원 훈련지도원 및 선수들을 양성하고 있다.

1962년에 평양체육대학 및 각도 체육간부 양성소들에서 4,500여명의 체육간부들이 새로양성 또는 재교육 되었다.

그리하여 1962년에 유급선수양성사업은 전년에 비하여 161%로 그중 명수급 기준을과자 양성은 252%, 1급선수 등급기준 을과자수는 127%로 장성되었다.

또한 1962년에 도, 시, 군 심판원들은 전년에 비하여 19%가 더 많이 양성되었다.

선수후비양성 기관인 청소년 체육학교는 시, 군, 소재지에는 물론 공장 기업소 학교들에 까지 조직되어 있다.

청소년 체육학교수는 1962년에 1960년도에 비하여 8.3 배로 확장되었으며 이에선 수십만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외에 각도 소재지와 주요산업지대에 설치된 사격, 해양, 통신, 항공, 자동차, 트랙또르등 각종구락부 크루쇼크에 수만명의 청소년들이 망라되어 선수 후비로 자라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체육인들에게 그들의 체육기술과 재능에 따라 <공훈체육인> <체육명수> 칭호를 수여하고 있는바 1962년에 새로 12명의 체육인들이 공훈체육인 칭호를 수여 받았으며 체육명수 대렬은 전년에 비하여 1.1 배로 장성하였다.

라. 체육기술의 발전

1962년에 체육의 대중적 발전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체육기술은 현저히 발전되었다. 체육인들 속에서 체육기술수준을 모든 종목에 걸쳐 세계적 수준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해 투쟁이 강력히 전개 되었다.

체육인들은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릴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교수 훈련목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훈련을 목적 지향성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동기간에도 훈련을 계속하여 교수훈련을 년중 중단함이 없이 계속 진행 하였다.

마라손, 권투, 체조, 탁구, 럭기, 빙상등을 비롯한 일련의 종목들에

서 우리 선수들의 특성에 맞는 교수훈련방법과 기술 및 전술체계를 착안 도입함으로써 선수들이 높은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체성 있는 교수훈련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낡은 기록들이 수립되었다.

1958년에 66명의 선수들이 116회에 걸쳐 공화국 기록을 갱신하였다면 1961년에는 221명이 289회 1962년에는 264명의 선수들이 무려 498회나 공화국 기록을 갱신하였다.

또한 1962년에 진행된 체육경기들을 통하여 축구, 권투, 체조, 탁구, 볼구등 일련의 종목들에서 그 기술수준이 현저히 발전되었다.

특히 1962년에는 10명의 선수들이 17회에 걸쳐 세계 기록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 체육기술의 위력을 전세계에 과시하였다.

1962년 6-7월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즈나멘스끼 형제상 경쟁탈을 위한 국제육상경기 대회에서 신금단선수는 여자 400m와 800m에서 세계 기록을 수립함으로써 세계육상계의 제1인자로 계속 나서게 되었다.

또한 1962년에 제38차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은 특별상을 비롯하여 적지않은 금, 은, 동메달을 쟁취하였으며 국제 사격통신경기대회에서 종합성적에서 제1위를 쟁취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63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체육인들은 우리나라 체육기술의 위력을 국제경기를 통해 계속 과시하고 있다.

1963년도 남 녀 속도 빙상 세계선수권 대회(2.20-2.24 일본 가루이자와)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들은 우리인민의 영웅적 기개를 온세계에 떨쳤으며 부카레스트에서 진행된 국제탁구

경기대회 (1963.3) 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남자 단체전에서 1등을 쟁취하여 우승컵과 5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모스크바상> 쟁탈을 위한 제 6 차 국제역기대회 (1963.3.15) 에 참가한 우리나라 이홍천 역기선수는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였다. 1963년 3월 비르마, 인도네시아를 친선 방문한 우리나라 평양축구단은 비르마에서 5전 3승 인도네시아에서 5전 5승 하는 훌륭한 성과를 보였다.

마. 경 기

1962년에는 체육경기 체계를 보다 확립하고 각종 경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1962년에 진행된 주요경기는 다음과 같다.

전 국 대 회

경 기 명 칭	시 일	참 가 자	장 소
전국노동자 빙상경기대회	1.26 - 1.30	250	정주특설빙상경기장
민청 창립 16주년기념 전국빙상경기대회	2.6 - 2.14	625	혜산특설빙상경기장
전국 대학생 스키 경기대 회	2.3 - 2.7	200	삼지연 스키장
전국 스키 선수권대회	2.25 - 3.1	150	삼지연 스키장
항일무장 투쟁개시 30주 년기념 대학생 체육대회	4.15 - 4.21	1,400	동평양경기장

경 기 명 칭	시 일	참 가 자	장 소
전국해양체육대회	8.15 - 8.19	320	원산시
전국고등기술학교 체육대회	9.27 - 10.3	2,800	동평 양모란봉 경기장
전국 제 2 차 체육학교 체육대회	9.20 - 9.22	400	신의주시
제 1 차 전국 대학생 체육 축전	10.14 - 10.20	1,300	동평양 모란봉 경기장

전국대회와 함께 1962년에 축구, 농구, 배구, 탁구, 투구, 송구, 체조, 육상, 자전거, 권투, 역기, 레슬링, 궁술, 예술, 체조등 15개 종목에 걸치는 1급 선수단의 체육대회들이 진행되었으며 이에는 연 4,656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각도와 115개의 시, 군 들에서 연 2,257 회의 각종 경기가 진행되었고 이에는 4만 2,857 개의 선수단 127만 1,142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바. 국제 교류

1962년에 우리나라 육상협회가 국제 아마추어 육상연맹에 새로 가입 되었다.

그리하여 1962년말 현재 우리나라는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체조, 자전거, 역기, 권투, 레슬링, 사격, 항공, 빙상, 육상, 궁술등 14개 종목에 걸쳐 국제 체육연맹에 가입하고 있다.

특히 1962년에는 국제 올림픽위원회 제 59 차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올림픽위원회를 국제 올림픽위원회의 성원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조선에서 유일팀 구성을 남조선측이 계속 반대한다면 우리 체육선수들을 조선을 대표하여 제 18 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일본도쿄)에 참가 시킬것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동적 노력에 의하여 남북 조선 유일팀 구성 문제는 1956년 국제 올림픽위원회 제 56 차 총회에 제기 되었으나 남조선측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올림픽 위원회는 조선 유일팀 구성에 대한 민족적 염원과 고상한 올림픽 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1962년 4 차에 걸쳐 남조선 측에 유일팀 구성을 위한 실무적 문제의 토의를 제기 하였다.

우리나라 올림픽 위원회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1963년 1월 24일 로잔느에서 진행된 남북조선 올림픽위원회 대표들의 회담에서는 남북조선 유일팀 구성에 관한 일부 중요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그후 남조선 측의 무성의와 제동적인 반대로 말미암아 조선 유일팀 구성 문제는 실현되지 못하고 남북조선이 각각 독자적으로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다.

1962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경기대회 및 친선경기는 다음과 같다.

- 조선 - 체코슬로바키아 궁술통신경기대회 (5.8 - 5.9)
- 사회주의 진영국가 통신사격경기대회 (6.27 - 6.29)
- 즈나멘스끼 형제상 쟁탈을 위한 국제육상 경기대회 (6.30 - 7.1)

- 제 15차 세계 체조 선수권 대회 (7.3 - 7.8 브라가)
- 세계 남녀 배구 선수권대회 (10.12 ~ 10.16 소련)
- 제 38 차 세계 사격선수권대회 (10.11 ~ 10.22 카이로)
- 조선 - 중국축구친선경기
 (11.4 - 11.18 평양 함흥에서 우리나라 중앙 강습소팀
 2.8팀 기관차팀·평양팀과 4차례 걸쳐 경기진행)

10. 1963年度事業總和

10. 1963 年度事業總和

1963년에 체육분야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결정 **균중체육사업**을 강화하며 스포츠 기술수준을 제고할데 대하여 (1958.12.30)의 실행 정형을 총화한 전국 체육 열성자대회 (1962.11.2)의 결의 실천에서 큰성과를 이룩하였다.

이해에 체육은 더욱 대중화 되었다. 특히 공화국 창건 15주년을 경축하여 평양 시내 3만7천여명의 학생소년들이 출연한 대집단 체조<천리마 조선>와 8.15해방 18주년을 경축하여 혜산시내 청소년들이 출연한 <노동당 깃발따라>는 그 심오한 사상 예술성과 함께 높은 체육적 기교로 하여 우리나라 집단 체조가 계속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역군으로 교양육성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학교내 체육 사업에서 큰 전진이 있었다.

각급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체력과 재능이 전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상·체조·수영등 체력 단련의 기본 종목과 함께 각종 구기 민족체육, 국방체육 등 여러종목에 걸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진행되었다.

한편 여학생들에게는 예술 체육과 체육 무용을 보급 일반화하는 사업이 모든 학교들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근로자들의 육체적 준비 정도와 직업적 특성에 맞는 각종 생산 체조를 비롯하여 생산과 밀접히 결부된 **균중 체육활동**이 강화되었다.

체육의 **균중화**가 더욱 실현됨에 따라 체육 교양의 기본을 이루

고 있는 인민체력 검정사업에서는 1963년에 큰진전이 이루어졌으며 년중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으로 되고 있다.

1963년 인민체력 검정에서는 전년도보다 22%나 더 많은 합격자를 냈으며 그중 1급과 소년급의 합격자만 하여도 32만 8,588명에 달한다.

체육기술 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맑스-레닌주의 체육이론 및 체육 생리학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나라의 구체적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교수훈련 방법을 창안도입하며 훈련에서 맘을 많이 풀리며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한 결과 체육기술 수준이 급속히 발전 하였다.

그것은 제 2차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육대회와 제 1차 신홍세력 경기대회(가네포)를 포함한 수다한 국내·국제경기들에서 빛나게 과시되었다.

1963년에 우리 선수들은 11개의 세계기록과 229개의 국가기록을 갱신하였으며 64명의 선수들이 73회에 걸쳐 명수급 기록을 갱신하였다.

체육 간부 및 선수후비양성 사업에서도 일련의 성과가 이루어졌다. 1963년에 전년도 보다 1만 5,000여명이나 더 많은 체육 간부들과 선수 후비들이 양성되었으며 64명의 선수들이 공화국 체육 명수 칭호를 받았다.

1963년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170개의 정규경기장 29개의 체육관 354개의 체육실을 비롯한 수많은 경기장들(축구장 3,286 농구장 5,452 배구장 8,115 정구장 2,172 탁구장 4,850 씨름장 5,930)과 1,750여개 정규 및 간이 수영장, 3,844개의 그네장이 있었다.

가. 제 2차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육대회

제 2차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육대회는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육대회는 5년에 두번씩 열리는 체육 행사로서 이번 체육대회는 온 나라와 인민이 공화국 창건 15주년을 경축하는 들끓는 환경속에서 진행된것으로 하여 더욱 이 의의가 깊었다.

특히 각지 인민들이 참가한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전달 제주와 제일조선청년학생 자전거행진대 그리고 평양 시내 3만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대 집단체조<천리마 조선>은 이번 체육대회를 더욱 의의깊게 장식하였다.

9월 9일 오후 4시 각지 인민들이 김일성 동지께 드리는 편지 전달을 위한 제주 대열과 제일조선청년학생 자전거행진대열이 환영을 받으면서 모란봉 경기장에 들어섰다.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보천보와 1,211고지 판문점.아오지 탄광 신의주 화학섬유공장 남포제련소등의 6개 지점에서 출발한 김일성 동지께 드리는 편지전달 제주 대열에는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보유의 초소에서 그리고 학업에서 모범적인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및 청년학생들 근 4만여명이 참가하였다.

20명으로 구성된 제일조선청년학생 자전거행진대는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축기와 축하문을 가지고 8월 20일 청진을 출발하여 함흥 원산을 거쳐 평양에 이르렀다.

이 두대열이 김일성 동지께 편지와 축기 및 축하문을 각각 드린다음 공화국의 찬란한 역사와 그 품속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억센 투지.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

계 내달는 천리마의 기상을 다양한 형식의 체조로 보여주는 대
집단 체조<천리마 조선>이 진행되었다.

체육대회는 노동당 시대에 개화된 우리 체육의 발전상과 천리마
조선의 붉은 체육인의 기제를 남김없이 시위 하였다.

또한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군중 체육의 급속한 발전과 체육의
기술 및 전술적 측면들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대회에서는 육상·체조·구기 등을 비롯하여 민족경기 중경기 국
방체육경기 분야의 20여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경기는
협회별 대항과 도 대항전으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각지 공장·기업소·기관·학교·체육인들로 조직된
13개의 도 종합 체육단을 비롯하여 총 30여개의 단체 체육선
수들이 참가 하였다.

대회에서는 41명의 선수들이 41개 종목에서 58회나 공화국
기록을 갱신 하였으며 무선통신 외국문 송신 수자 송신경기등
3개종목에서는 세계 기록을 돌파하였다.

육상경기에서는 지난 제1차 대회때보다 현저한 발전 면모를 보
였다.

남녀 88명의 선수들이 대회기록을 돌파 하였는 바 협회 대항
전에서는 49명(여자 16명) 도·시 대항전에서 39명(여자
11명)이 각각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특히 협회 대항전에서 6명이 6개종목에서 연 7회에 걸쳐 공
화국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이번 체육대회는 우리나라 체육이 더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닦아지고 있음을 넉넉히 말해주고 있다.

<제 2 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체육대회도별종합성적>

단 체 명	점 수	순 위
평 양 시	751	1
함 남 도	708	2
평 북 도	577.5	3
강 원 도	377.5	4
평 남 도	374	5
함 흥 시	320.5	6
함 북 도	277.5	7
자 강 도	258	8
황 북 도	224	9
청 진 시	147	10
양 강 도	142	11
개 성 시	130	12
황 남 도	96	13

나. 경 기

1963년 우리나라에서는 제 2 차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육대회 제 1 차 전국 대학생 체육대회 6 회에 걸친 협회 도 선수단 체육대회와 2,626 회의 체육경기대회들이 중앙과 지방들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에는 152 만 508 명의 선수들이 참가 하였다.

다. 국제 관계

1963년에 우리나라는 국제 빙상 hockey 연맹·국제 요트연맹·국제 수영연맹에 새로 가입하였다. (1963년말 현재 18개 종목의 국제 체육연맹에 가입)

1963년 10월 국제올림픽 위원회 제 60차 총회에서 우리나라 올림픽 위원회는 이 위원회의 정식 성원으로 가입되었다.

1963년에 우리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경기 대회 및 친선 경기는 다음과 같다.

- 조선 - 버마 축구대회 (1963.2 버마)
- 조선 - 인도네시아 축구대회 (1963.3 인도네시아)
- 세계 속도 빙상선수권대회 (1963.2 가루이자와)
- 사회주의 국가 군대 친선경기대회 (1963.2 하노이)
- 제 27차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1963.3 브라가)
- 모스크바상 쟁탈을 위한 국제 역기 선수권대회 (1963.3 모스크바)
- 세계 레슬링 선수권대회 (1963.5 쏘피야)
- <즈나멘쓰끼상> 쟁탈을 위한 국제 육상경기대회 (1963.7 모스크바)
- 사회주의국가 군대 친선 레슬링선수권대회 (1963.9.26-29 부다페스트)
- 사회주의 국가 친선 배구경기 (1963.7 티라나)
- 사회주의 국가 군대 친선권투선수권대회 (1963.10.1 - 10.6 파란)
- 조선 - 중국 농구 친선경기 (1963.3 평양 - 2.8 팀 : 중국 8.1 팀)

- 조선 - 인도네시아 농구·배구 친선경기
(1963.8.23 평양 - 월비 산팀 : 인도네시아 1963.8.25 평양 -
청년종합선수단 : 인도네시아 1963.8.27 청진 - 사회안전성 :
:인도네시아)
 - 조선 - 중국 육상친선경기 (1963.9 평양)
 - 조선 - 알바니아 농구 친선경기 (1963.9 평양)
 - 조선 - 인도네시아 축구친선경기 (1963.9.4 함흥 1963.9.
10 평양)
 - 조선 - 버마 축구친선경기 (1963.9.10 평양 9.22 함흥)
 - 조선 - 캄보자 탁구·농구·친선경기 (1963.10.13 평양)
- 1963년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국제경기대회에서 대종목에 걸쳐 모두 우수한 성적을 쟁취 하였다.

특히 1963년 11월 10일부터 시작된 제1차 신홍세력 경기대회(가네포)와 부카레스트에서 있던 국제 탁구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빛나는 승리를 쟁취 하였다.

세계 각국 48개 나라에서 2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네포 경기대회에서 우리 체육인들은 20개 경기종목중 13개 종목에 걸쳐 135명의 체육인들이 대회의 각종경기에 참가하여 143개의 금·은·동메달을 받았다.

신금단 선수가 400미터에서 51초4, 800미터에서 1분59초1로 이홍천 선수가 역시 57킬로그램급 용상에서 141킬로그램을 들어 각각 세계 신기록을 수립함으로써 대회에서 수립된 5종목의 세계 신기록중 3개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차지 하였다.

부카레스트에서 진행된 국제 탁구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구라파의 강팀들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남자단체에서 1등을 쟁취

하여 우승컵과 5개의 금메달을 받았다.

신금단 선수는 <즈나멘쓰끼 형제상> 쟁탈을 위한 국제 육상 경기대회에서 여자 400미터에서 52초5로 세계 신기록을 세워 제1위를 쟁취하였다.

800미터에서도 1위를 쟁취하였다.

이흥천 선수는 <모스크바상> 쟁탈을 위한 제6차 국제 역기 대회에서 세계 및 구라파 역기 선수권 보유자들을 물리치고 140.5킬로그램을 들어 올려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1963년 남여 속도 빙상 세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많은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천리마 조선의 기개를 온세계에 떨치었다.

라. 남북조선 유일팀 구성문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올림픽 위원회는 남북조선 유일팀 구성문제의 실현을 위하여 10여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남조선측의 무성의와 일반적인 파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북조선 유일팀 구성문제는 실현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올림픽 위원회는 조선 유일팀 구성에 대한 민족적 염원과 고상한 올림픽 정신으로 부터 출발하여 계속 주동적으로 노력한 결과 1962년에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59차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올림픽 위원회를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의 정원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남북조선 유일팀 구성을 남조선 측이 계속 반대한다면 우리 체육선수들을 조선 대표로 제18차 국제 올림픽 경기대회(일본도쿄)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59차 총회 결정과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1963년 1월 24일 로잔느에서 남북조선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간의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회담에서는 우리측의 진지한 노력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에 따라 유일팀 구성문제와 국가문제(1945년 이전부터 불러오던 민요아리랑) 대표단장에 대한 임명 방법 문제등에 합의를 보았다.

국가 선택문제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쌍방 대표단들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로 하여금 2월 7일에 진행될 동 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올림픽 위원회는 로잔느 회담의 결정에 근거하여 유일팀 구성에 관한 실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로잔느와 홍콩에서 3차의 회담을 진행하였다.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1963년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일팀 선발문제를 비롯한 실무적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조선 올림픽 위원회 대표들의 첫회담이 홍콩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유일팀 선수 선발을 위한 가장 기본조건으로 되는 예선장소와 시일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에서 양측이 서로 접수할 수 있는 아주 공정한 방안들을 제기하고 합의점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의와 인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하였다.

우리 대표단의 적극적 노력에 의하여 심판문제 운동기구문제 예선을 할때대한 문제 재정문제등 9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유일팀 선발을 위한 가장 기본조건으로 되는 경기장소와 시일문제등을 비롯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남조선 측은 이미 로잔느 회담에서 유일팀이 사용할 것발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사실상 명백하게된 유일팀 칭호 문제를 내걸고 부당한 요구들을 제기 하였으며 회의장 내에서 회담을 방해하여 파괴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이어 남조선 대표단은 예선 경기를 국내에서 할 것인가? 제 3국에서 할 것인가? 를 결정 하자는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되었으며 그것을 토의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구실을 내걸고 문제 토의를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회담은 남조선 측의 부당한 태도로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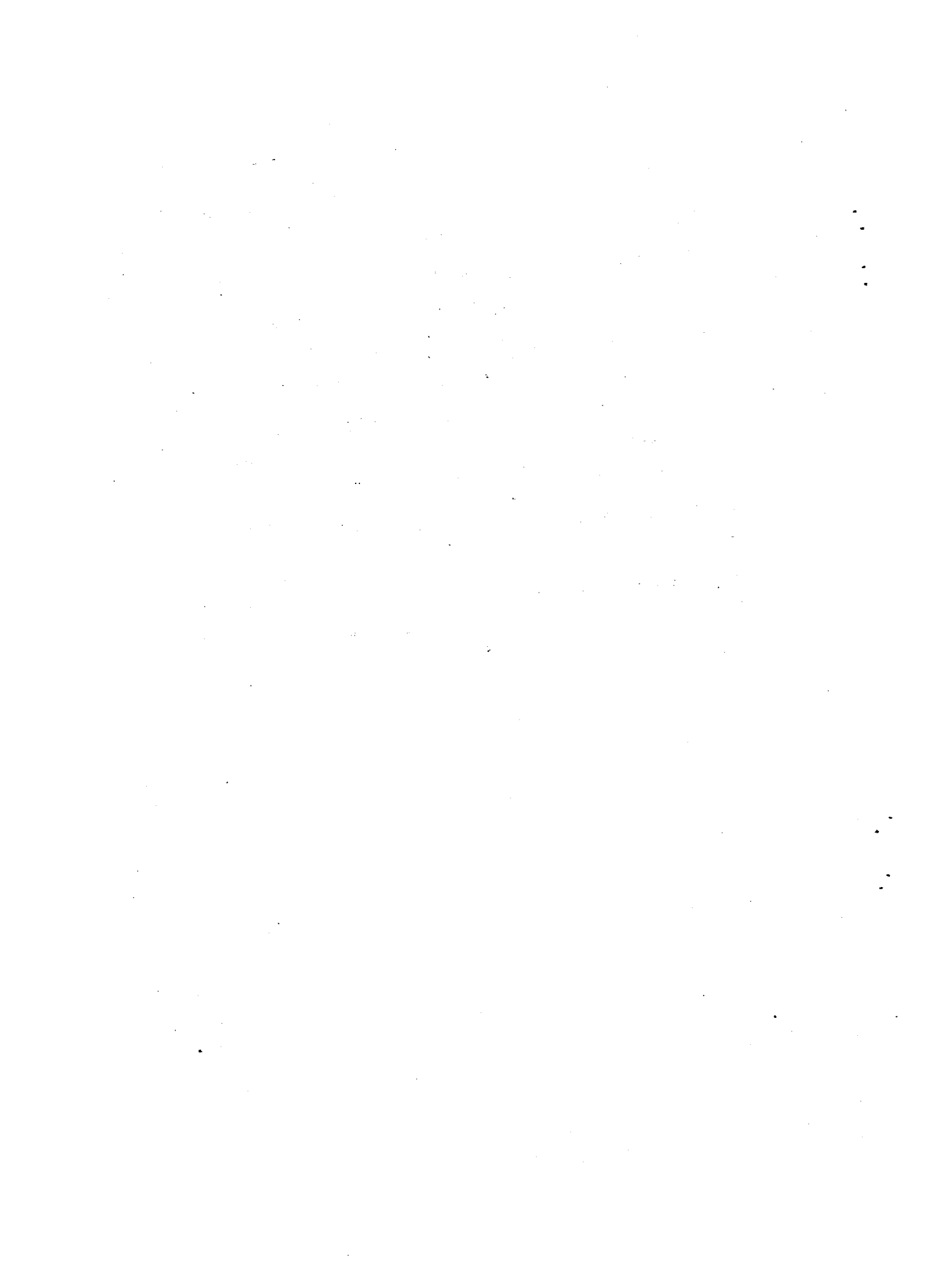
우리나라 올림픽 위원회는 유일팀 구성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과 남북조선 체육인들의 염원을 하루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과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탈선에 의하여 1963년 7월 26일 홍콩과 8월 13일 로잔느에서 회담이 열리게 되었으나 남조선측의 파괴 책동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회담은 열리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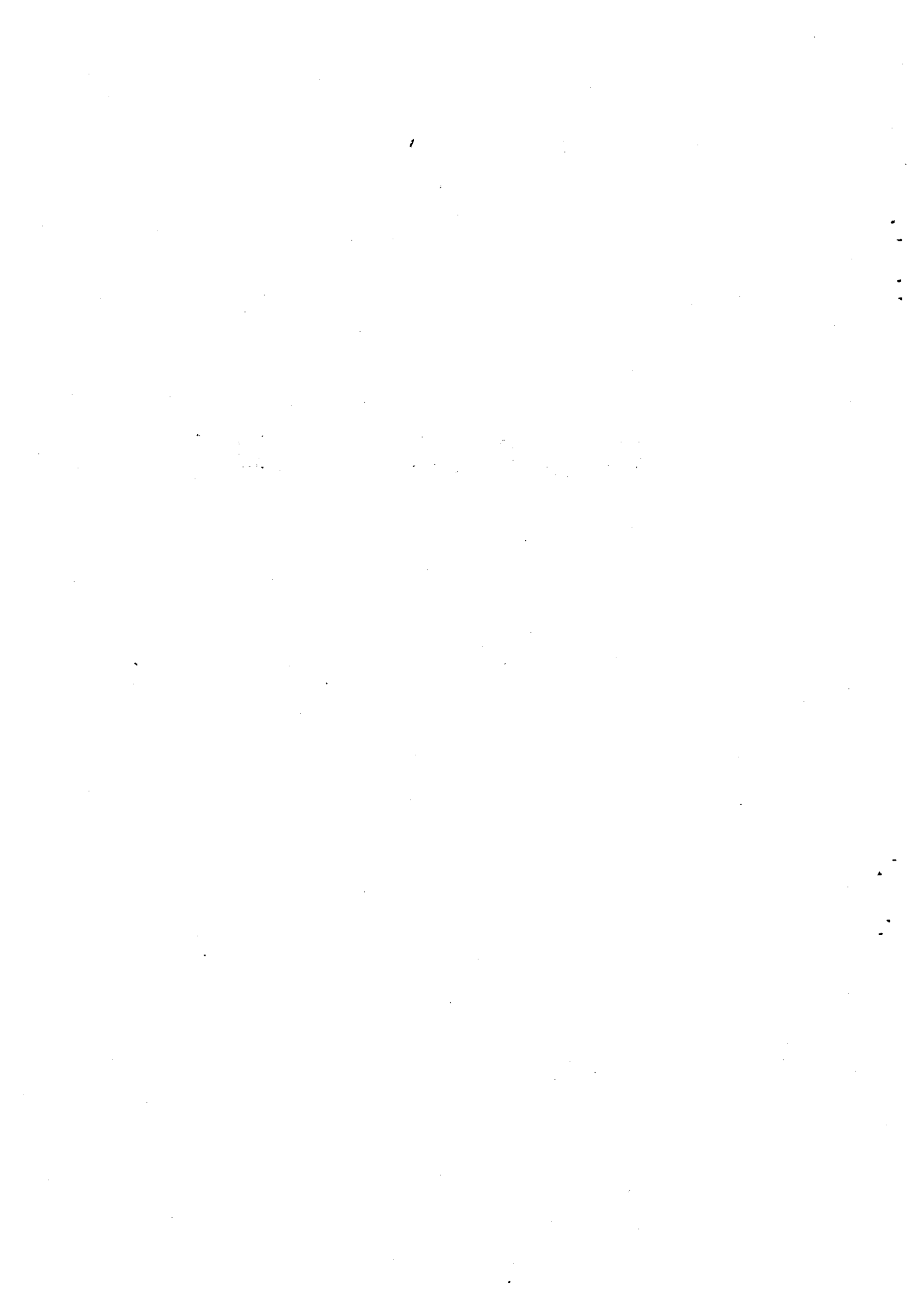
남조선 대표단의 시종 일관한 무성의와 파괴 책동으로 말미암아 온 겨레가 그렇게도 바라던 남북조선 유일팀 구성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올림픽 위원회 제 60 차 총회 결정 (1963.10.19)에 의해 남북조선이 각각 독자적으로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런 조건하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올림픽 위원회가 응당 자기의 독자적인 공인된 명칭을 가지고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침해할 수 없는 조선 인민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 60 차 총회는 우리나라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올림픽 위원회 경기에 파견하는 팀은 <북조선>이란 명칭하에 경기에 참가한다는 부당한 조건을 첨부하였다. 누구에게나 명백한 바와같이 어떤 나라가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정식 성원으로 된 이상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팀의 이름문제는 그 나라 단체에 속하는 신성한 불가침의 권리이다. 국제 체육기구가 그 나라 국토나 이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롭게 규정할 수도 없다. 이것은 또한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킬데 대한 올림픽 정신에도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팀이름 문제에 대한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로 보며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을 것이다.



11. 1964年度事業總和



11 . 1964 年 度 事 業 總 和

1964 年 우리나라 체육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더욱 균중화 되었다.

이해에 체육 사업에서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체육 사업이 전체 근로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근로자들이 자기의 직업적 특성과 육체적 준비정도에 맞게 다양한 형식의 체육에 참가함으로써 사회주의 조국건설에 적극 복무할 수 있게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단련된 사실이다.

특히 균중 체육사업을 전체 인민 대중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모든 종목을 포치하고 선수육성사업을 보다 개선 강화하며 체육 기술을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울 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1963 年 12월 19일과 12월 21일 교시는 체육의 균중화와 체육기술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각급 체육기관과 체육 단체들에서도 체육 분야에 주신 수상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균중체육사업의 가일층 발전을 위하여 체육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는 한편 공장·기업소·농어촌 학교등에 체육교원·체육선수·체육애호가 및 체육열성자들을 광범히 인입하였으며 양양된 전체 대중들의 체육 열의를 조직 동원 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에 상응하게 기관·공장·기업소들에서는 성별·년령별·직업적 특성에 맞게 다양한 체육사업을 조직 진행하였다.

특히 체육을 균중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학교내 체육사업이 더욱 강화 되었다.

1964년에 각급 학교들에서는 체육사업을 사회주의 문화혁명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간주하고 체육사업을 전학교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계절적 특성과 매개 학생들의 소질 취미에 따라 다채로운 경기들을 조직하였다.

중앙 도적으로 진행되는 경기뿐만 아니라 학교단체 단위별 각종 체육경기를 높은 수준에서 조직 진행함으로써 체육 기술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유능한 선수 후보들을 수많이 길러 냈다.

1964년 청소년 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 속에서 체육 활동이 활발해지고 체육 문화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데 토대하여 이 해에 집단체조는 더욱 높은 수준에서 대중적으로 발전 되었다. 이 해에 체육의 대중적 발전에 기초하여 체육 기술도 현저히 발전되었다.

체육 교수의 훈련 체계를 더욱 정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교수 훈련 방법을 창조 보급한 결과 체육 기술 수준은 한계단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1964년에 우리나라 체육인들은 여러차례에 걸치는 국제 경기들에 출전하여 우리 민족의 슬기를 떨치고 공화국의 영예를 대외적으로 빛내었으며 국내국제 경기에서 고귀한 경험과 지식을 체득하였다.

가. 군중체육

1964년에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체조, 육상, 수영, 빙상경기, 해양체육, 각 종목의 구기와 민족체육, 체육무용, 체

육유회 · 집단달리기 · 생산경기 · 등산 · 원족 · 치료체육 등 다채로운 체육활동에 참가하여 마음과 신체를 단련하면서 한가지 이상 체육 기술을 배웠다.

이해에 아침체조와 업간체조 집단달리기는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생활되어 있었다.

특히 3월 8일에 개막된 <평양 - 부산달리기>에는 평양 시내 청년학생만 하여도 35만명이 참가 하였으며 <만경대 달리기> 혁명 전적지 에로의 체육여행과 우리나라 명승고적지 · 고산지대에로의 등산 · 행군에는 수십만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7 · 8월 수영 보급 월간에 원산과 해주 함흥 · 남포 · 청진 · 신의주등 우리나라 동서해안의 해양구락부들에 수만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망라되어 바다에 대한 지식과 수영 체육 기술등을 배웠다.

1964년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대규모의 중앙경기를 비롯하여 중 · 소 규모의 중앙경기 각도 · 시 · 군 경기대회들에는 3만 2천 5개의 선수단에서 131만 2천 536명이 참가하였다.

이해에 각종 경기대회들에 참가한 수많은 신인들이 유급선수 기준을 따라 잡았거나 대회기록을 돌파하였다.

1964년에 각도 지방 경기들에서만도 공화국 신기록 수립자는 2명 명수급 돌파자는 4명 유급선수 기술 돌파자는 7천 320명 (1급 54명 2급 140명 3급 1천 9명 4급 2천 80명 5급 4천 37명) 이었다.

특히 체육절 15주년 기념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대회참가자 1천 734명중 40% 이상이 신인들이었고 그중 많은 선수들이 1 · 2급을 비롯한 유급선수기준을 돌파하였거나 대회기록을 능가하였다.

이해에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된 집단체조는 중앙과 도들에서 창작출현한 경험에 기초하여 군들에서까지 광범히 진행 되었다.

체육절 15주년을 경축하여 평양시내 청소년 학생들 4만 5천 명이 출연한 대집단 체조 <천리마조선>을 비롯하여 <독로강반의 새노래> (평북도내 청소년학생들 2만여명출연)는 그사상예술성이 높고 구상의 대담성과 높은기교, 새로운 시도로서의 배경대형상 우리당 정책의 정확한 반영과 사회주의건설 성과를 실감있게 정확히 반영한 것 등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의 인민적 체육정책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대내외적으로 다시한번 과시 하였다.

특히 1964년에 각 지방의 청소년 학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에 예술체조 등은 우리나라 군중체육 발전의 종합적 성과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

대집단 체조 <황금의 북청벌>

북청군내 1만 2천명의 학생들 출연

집단체조 <풍년든 과수산> (북청군내 학생들 9천명 출연)

비상집단체조 <로동당 시대 아들딸> (평양서성중학교 학생 2천 200명 출연)

비상체조 <자력갱생> (함남도 함주군내 학생들 1천 500명 출연) 등은 각기 자기 지방의 구체적 실정과 생활을 반영한 성과작 들이었다.

특히 북청 경공업고등학교 전교생이 출연한 봉화 집단체조는 그 형식의 독창성과 대담한 창조적 발기로하여 더욱 경험적이며 성과적이었다.

1964년에 체육의 군중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육체교양체계의 기본인 인민체력 검정사업이 더욱 강화된 결과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빠짐없이 참가하였으며 그의 합격자 대렬이 가일층 확대 되었다.

특히 1964년에 1급 2급 합격자수는 1960년에 비하여 156%로 소년급 합격자수는 160%로 각각 장성되었다.

인민체력검정 참가자 및 합격자 장성

(1960 = 100)

	1961	1962	1964
참가자수	81	116	128
합격자수	105	140	170

나. 체육 기술의 발전

1964년에 체육의 대중적 발전에 기초하여 체육기술이 현저히 발전되었다. 이해에 체육부문에서는 기술발전의 뚜렷한 전투목표를 세우고 그를 점령하기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정력적이고 인내력있는 투쟁을 전개 하였다.

1964년도 체육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국내 국제경기를 마다에서 훌륭히 증시 되었다.

1964년 1월 12일부터 1월 19일간에 진행된 민청창립 15주년 기념전국 병상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경축하는 중앙체육대회.

제 18차 올림픽 선수선발 전국종합체육대회 (제 1차 제 2차경기)

1964년도 조선 (종목별) 선수권대회 등에서 수백명의 선수들이 공화국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명수급기준을 돌파 하였다.

특히 1964년도 우리나라 체육기술의 종합적 발전을 보여준 체육절

15주년 전국체육대회(10월 11일 - 11월 2일)에서는 여자 400m달리기와 56키로그램급 그리고 소구경 권총속도 사격에서 각각 세계 기록을 돌파 하였으며 룩상, 사격, 럭기, 조정, 바이다르카등 31개 종목에서 (남자 26개, 여자 10개) 36명의 우수한남녀 선수들이 연 41회에 걸쳐 공화국 기록을 갱신 하였다.

경기대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체육기술 발전은 어느한 선수단이나 몇몇 체육인들에 국한되지않고 선수단, 체육인, 전체가 다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었다.

체육절 15주년 체육대회 룩상 분야에서만도 10명의 선수들이 공화국 신기록과 명수급 기준을 돌파했으며 대회참가자들의 63.3%가 명수급 또는 1.2급 기준을 돌파하였다.

1964년에 연 10명의 선수들이 세계기록을 돌파하였으며 연 852명이 공화국 신기록을 연 160명의 선수들이 공화국 명수급 기준을 돌파 하였다.

우리나라 체육인들은 1964년 1~2월에 오지리 인스브룩크에서 진행된 제 9차 동기 올림픽대회와 스웨리에 크리스티네함에서 진행된 세계여자 속도 빙상 선수권대회 6월에 버마수도 랑군에서 진행된 도쿄올림픽경기대회 아세아지역 축구 결승전(조선타이) 9-10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있는 사회주의국가 군사3종 선수권대회등 국제경기 대회들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제 9차 동기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여자 3,000미터에서 2위를 1,500미터에서 4위를 쟁취하여 국가종합성적에서 제 3위를 차지하였으며 스웨리에 크리스티네함에서 진행된 세계 여자속도 빙상선수권 대회에서 국가순위 제 2위를 차지 하였다. 8월에 자르파에서 진행된 가네포 수영경기에서는 금메

달 1 개와 은메달 1 개를 각각 쟁취 하였다.

사회주의국가 군사 3 종 선수권대회 (9 월 27 일 - 10 월 2 일 , 베이징)에서 우리나라 인민군 종합선수단은 종합성적 2 만 2 천 33 점으로 2 위를 차지하여 은컵 1 개와 은메달 8 개를 쟁취하였다.

도쿄올림픽대회 아세아지역 축구결승전 (조선 - 타이)에서 5 : 0 으로 우리나라가 승리함으로써 도쿄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할 당당한 권리를 획득하였은 것이다.

기타 조선방문 , 인도네시아 룩상선수단 , 캄보쟈 남자배구선수단 , 로므니아권투선수단 중국룩상선수단 월남수영선수단들과의 친선경기를 통하여 우리나라 체육 기술발전의 전 면모와 전술체계의 우월성을 넉넉히 보여주었다.

다. 체육시설

1964 년에 체육의 균중화와 체육기술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들을 재정비 확장 하였으며 체육단체들은 더욱 튼튼히 꾸렸다.

1964 년에 축구장 555 개 룽구장 2 천 255 개 배구장 5 천 632 개 정구장 677 개 씨름장 2 천 534 개 탁구장 4 천 4 개 정규및 간이수영장 564 개 그네장 1 천 383 개를 새로 더 신설하였다.

라. 체육간부 및 후비양성

1964 년에 체육선수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체육기술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체육간부들과 선수후비 양성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였다.

체육대학과 각도체육 간부양성소들 각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 설치되어있는 체육과들에서 수천명의 체육교원, 훈련지도원, 선수들을 양성해 냈다.

특히 이해에 청소년들 속에서 체육사업을 강화하며 전도 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길러내기위해 각협회와 도(직할시)체육지도위원회들은 도, 시, 군 청소년 체육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 공장기업소들의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 하였다.

1964년에 체육간부는 전해에 비해 20%나 더 양성되었다.

이밖에 우리나라 동서 해안의 해양 구락부를 비롯하여 각도 소재지 중요사업 지구에 설치된 사격, 통신, 항공, 자동차 트랙또 르등 각종구락부 크루쇼크등에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망라되어 수만명의 체육선수 체육애호가 체육열성자로 양성되었다.

마. 경기

1964년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경기는 체육절 15주년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하여 큰 규모의 중앙적인 경기대회와 중소규모의 중앙경기 지방경기들을 포함하여 2천 576 회 진행되었다.

이에 망라된 선수단수는 3만 2천 5 개이며 참가수는 131만 2천 539명 (그중로동자 33만 2천 340명, 농민 13만 7천 127명 사무원 9만 3천 208명, 학생 74만 7천 635명 기타 2천 226명)에 달한다.

1964년에 진행된 중요경기들은 다음과 같다.

1964년에 진행된 중요경기

대 화 명	시 일	참가자	장 소
민청창립 18주년기념전국빙상대회	1.12-1.19	799	평양보통가빙상장
전국스키대회	2.26-3.6	233	삼지연스키장
중앙및도체육강습소빙상대회	2.9-2.16	63	부전호빙상장
중앙및도체육강습소스키대회	3.8-3.19	108	삼지연스키장
2.8절 기념 중앙및도체육 강습소 체육대회	2.2-2.11	241	평양
전국 마라손대회	3.22	35	개성
제 18 차 올림픽선수선발	4.26-5.2	2,960	평양
전국 종합체육대회(제 1 차)			
전국 종합체육대회(제 2 차)	7.12-7.29	1,822	평양
중앙및도체육강습소수영대회	8.9-8.15	96	개성
1964년도조선(종목별)선수 권대회	8.23-9.13	1,329	평양
체육절 15주년기념전국체육대회	10.1-10.3	1,736	평양
제 2 차 대학생체육축전 (지역별예선)	8월중	6,600	평양
제 2 차 대학생체육축전 (중앙결승)	10.18- 10.24	1,600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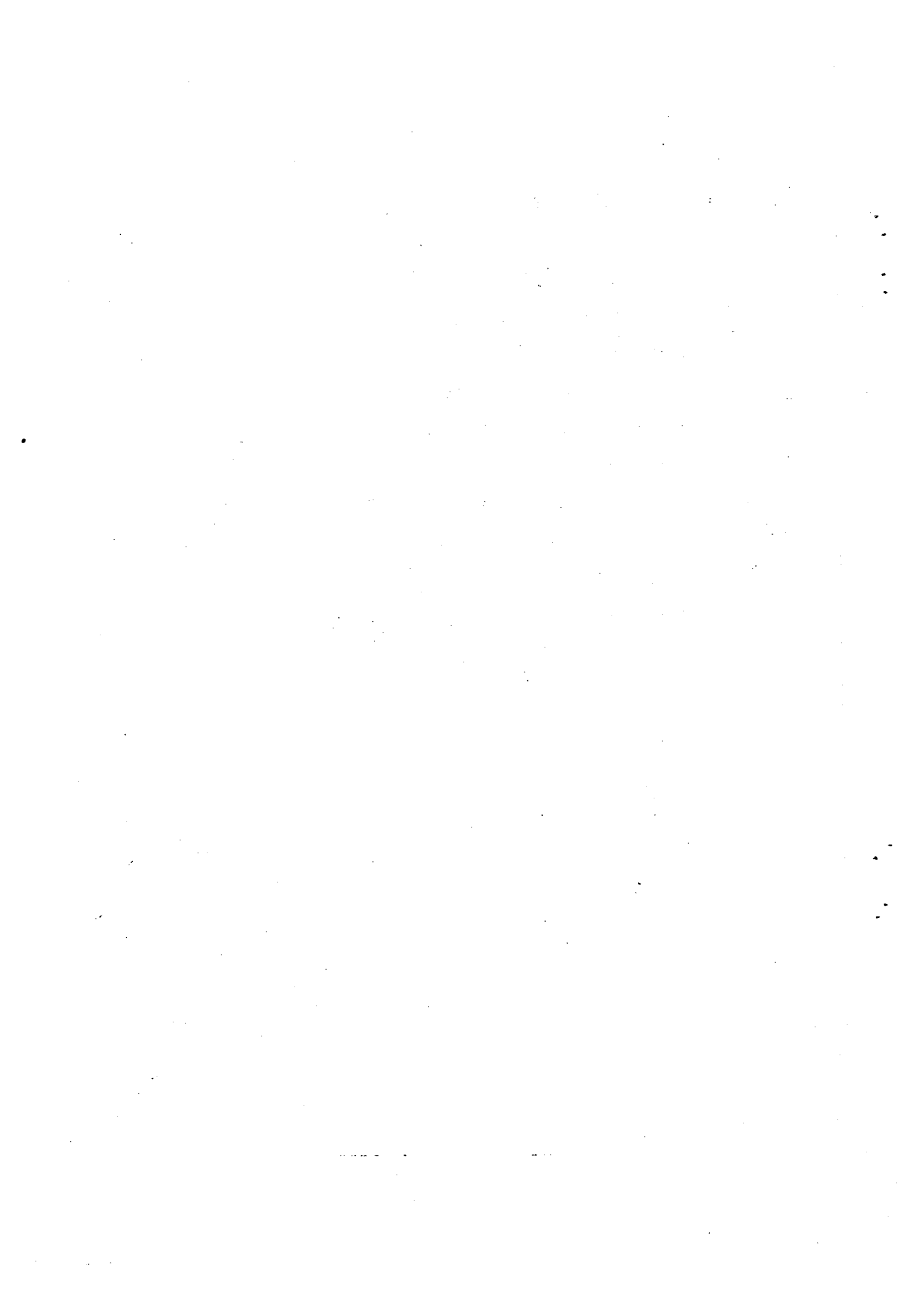
바. 국제교류

1964년에 우리나라는 국제 아마츄어 수영련맹 국제루즈련맹 국제빙상 혹케이련맹 국제유술련맹 국제카노에련맹 국제조정련맹에 새로 가입하였다. (1964년말 현재 25개 종목의 국제련맹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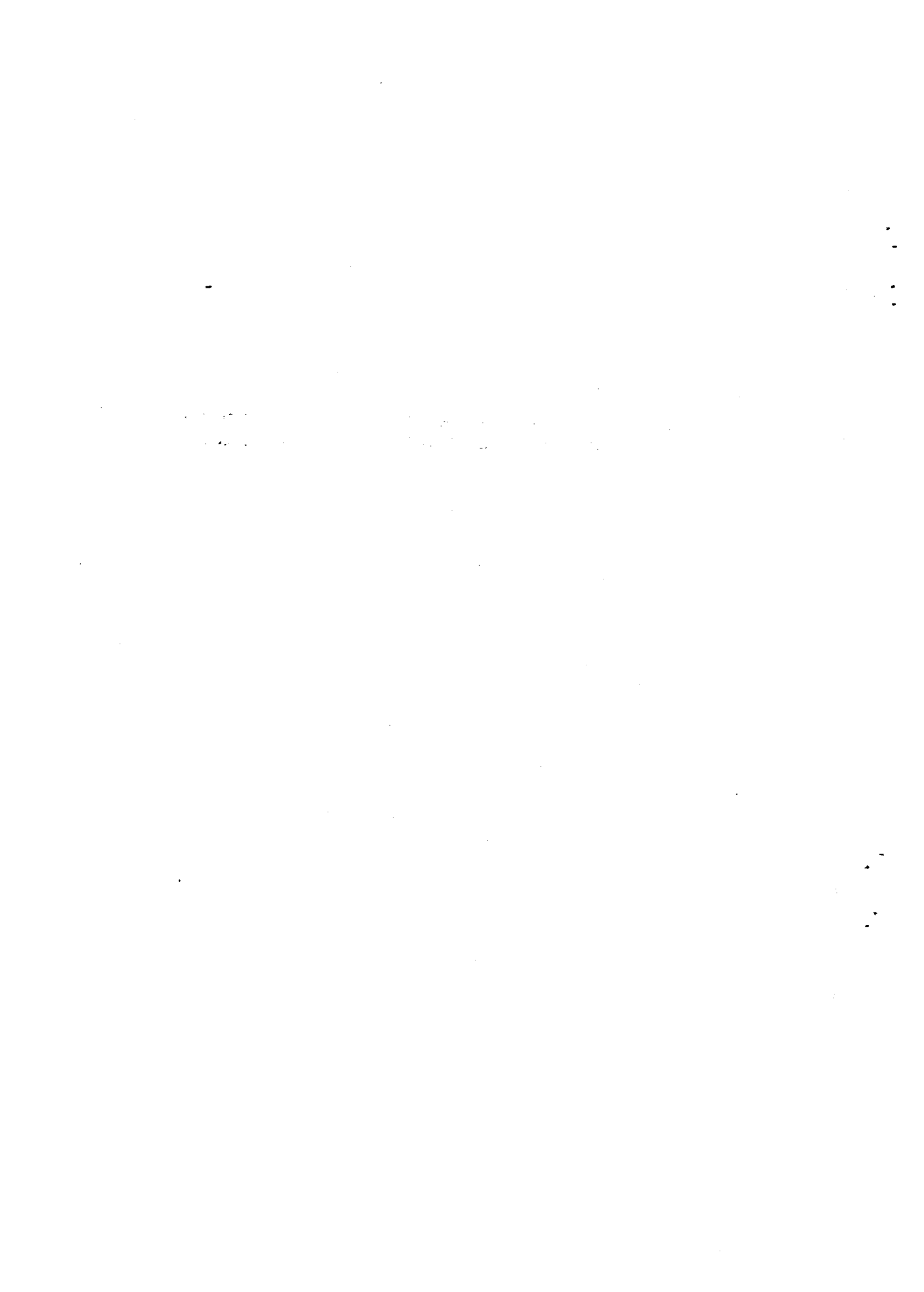
1964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경기대회 및 친선경기는 다음과 같다.

- 제 9차 동기올림픽 경기대회
(1월 29 - 2월 9일 오지리 인스브룩크)
- 1964년 세계여자 속도빙상 선수권대회
(2월 15일 스웨리에 크리스티베함)
-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아세아지역 축구예선경기
(조선 : 버마 2월 22일 랑군)
-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아세아지역 축구예선경기
(조선 : 버마 3 : 1일 평양)
-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아세아지역 축구 결승전
(조선 : 타이 6월 20일 랑군)
- 가네포 수영경기대회
(8월 28일 자카르따)
- 사회주의 국가 군사 3종 선수권대회
(9월 27일 - 10월 2일 중국베이징)
- 조선 캄보쟈 남자배구 친선경기
(9월 6일 - 9월 16일 평양)
- 조선 - 쏘련 탁구경기
(3월 11일 - 4월 3일 쏘련)

- 조선-중국 탁구경기
(10월 14일 - 11월 3일 중국)
- 조선-로르니아 권투 친선경기
(5월 23일 - 6월 16일 평양)
- 조선-중국륙상 친선경기
(5월 23 - 6월 16일 평양)
- 조선-월남 수영 친선경기
(6월 11일 - 7월 28일 평양)
- 조선-인도네시아 레스링 친선경기
(9월 22일 평양)
- 조선-인도네시아 탁구 친선경기
(10월 8 - 10월 10일 평양)
- 조선-인도네시아 축구 친선경기
(12월 23일 자카르타)



12. 1965-1966年度 事業總和



12. 1965年 - 1966年度 事業 總和

1965 - 1966년에 체육부문에서는 체육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1964년 10월 22일)와 이를 구체화한 내각결정 제7호(1965년 2월 19일)을 관철하는 과정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체육지도 체계를 새환경에 맞게 개편하는 동시에 군중체육을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의 체질과 생산로동 생활환경에 알맞게 개선하였으며 적지않은 종목들에서 체육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가. 군중체육

1965-1966년에 군중체육사업에서 달성한 성과는 군중체육 사업의 내용과형식 실시방법을 현실발전에 알맞게 더욱 심화발전 시킨 것이다.

특히 <국방집단 체력경기>는 새로운형식과 방법으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며 완강한 투지와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는데 매우 훌륭한 수단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그리하여 군중체육행사에서 국방체육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2.8절 4월 25일 항일 유격대 창건기념일 6월 4일 보천보 전투승리기념일을 국방체육으로 성대히 맞는 체제가 수립되었으며 이경기에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 하였다.

특히 1966년에 평양시내 기계 경공업 교통운수 보건, 상업, 유통, 부문들과 학교부문들에서 진행된 교정별 국방 집단 체력경기에는 50여만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하여 체력을 단

련하였으며 투지와 집단주의 정신을 키웠다.

또한 군중체육 사업에서 또 하나의 성과는 근로자들속에서 체육사업이 더욱 조직화 된것이다.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조동적으로 맞이할 체력을 단련하기 위하여 <조국통일달리기> 우승기 쟁탈 전국통신 경기에는 1966년에만도 200여만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참가하였다.

농업근로자들 속에서의 체육사업도 개선 발전되었다.

농촌부문에서는 한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 하기위하여 힘썼다.

한편 각지 공장, 기업소, 학교들에서 협동농장 체육문화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수많은 협동 농장들에 체육시설을 꾸려주었으며 다양한 체육종목을 보급하고 체육열성자들을 길러내는등 농촌체육의 면모를 현저히 개선하였다.

이 기간에 학교체육 사업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룩되었다.

1965년에 북청고등원에학교를 비롯하여 수많은 학교들에서는 교육행정계획에 따라 하루한시간 과외체육사업과 과외(체육의날)을 포함시켜 정상적으로 목적지향성있게 체육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그 경험은 계속 전국에 일반화 되었다.

그리고 1966년에는 학교체육사업에서 그것의 체제와 기술방법적 지도리론을 현실에 맞게 개선 하였다.

우선 이해에 수많은 모범학교들에서 산간지대, 평지대, 중간지대 도시와 농촌등 지대적 조건과 학생들의 성별, 연령, 체질, 정서적 특징에 맞게 체육운동의 내용과 형식, 수단, 실시방법을 개선하였다.

1966년 7월에 진행된 전국학교 체육학술 토론회에서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을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많은 기치있는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1965 - 1966년에 계절 체육사업이 광범히 조직 진행되었으며 특히 수영보급사업이 활발하였다.

각급학교들과 각지에서는 지방의 유휴자재를 동원리용하여 수영장을 만들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수영을 광범히 보급일반화 하였다.

평양시의 능라도, 량각도, 반월도, 강원도의 송도원 함남도의 서호등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는 수영장과 유영장들이 새로 확장 또는 정비되어 매일 수천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해수욕과수영, 조정, 단장, 윗트, 카노, 등 체육으로 체력을 단련하였다.

겨울철 체육으로써는 스케이팅, 스키, 썰매, 휘저, 빙상축케이, 종목들과 설상 행군을 비롯한 집단적인 체육활동이 진행되었다.

이기간에 군중체육사업에서 뚜렷한 성과의 또하나는 집단체조가 종래에비해서 비약적으로 또는 큰 규모로 발전한 사실이다.

조선 로동당 창건 20주년을 경축하여 진행된 대집단체조<혁명의시대>는 그 규모와 사상예술성 및 체육적 기교로보아 우리나라 집단 체조력사에서 최고수준에 이른 기념비적 작품이었다.

이것은 지난시기 군중체육의 풍만한 터전우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대작들의 성과에 기초하여 새롭게 발전시킨 대결작으로서 당 창건 20주년에 바친 훌륭한 선물이었다.

전 7장 1절(서막 종막포함)로 된 대집단체조<혁명의시대>에는 도합 4만1천여명이 출현하였다.

집단체조는 조국광복을위한 항일선렬들의 간고한 투쟁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영광스러운 역사적 화폭들을 체육예술적으로

재현하였으며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할 그날을 감명깊게 형성하였다.

특히 이집단 체조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무용적 요소들을 거의 포함시키지않고 완전히 체조적인 동작과 리듬으로 일관 시킴으로써 집단체조를 한거름더 전진시켰다.

그리고 배경대의 발전에서도 새면모를 보여주었다.

이기간에 집단체조 지도자 대렬도 수많이 늘어 중앙이나 도에서 뿐만 아니라 시,군 소재지들과 각급학교 단위들에서 까지도 자체로 집단체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65년 한해동안에남도 년 1500여개의 각급학교들과 시군들에서 집단체조가 진행되었다.

특히 함경남도 신포시 체육애호가들이 집체창작한 1만5천여명의 집단체조 <동해의노래>는 5차에 걸치는 수상동지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일떠선 항구도시 신포시 근로자들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이집단체조는 군 적수준에서 그전령을 창조한 것이었다.

나. 인민체력검정

1965 - 1966년 인민체력 검정에는 200여만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개정된 인민체력 종목과 기준에 합격하였다.

1966년도에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을 보다 전면적이며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위하여 종전까지 진행하던 인민체력 검정종목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

다. 체육구락부

1965 - 1966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종목으로 수백개의 체육구락부가 조직운영되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이 망라되어 해당종목의 수업과 그 훈련을 받고있다.

교수훈련에 필요한 체육시설과 기재들은 모두 국가 부담에 의하여 무료로 제공되었다.

구락부생들에 대한 교수훈련은 공훈체육인, 체육명수, 유급체육지도원 체육전문가들이 지도하고있다.

이리하여 체육구락부에서는 매년 유능한 선수후비를 수많이 길러내고 있으며 지방체육기술 보급의 거점적 역할을 하고있다.

라. 체육기술

1965과 1966년은 체육의 대중화에 토대하여 체육기술이 한걸음 높이 올라선 자랑스러운 해들이었다.

여자속도빙상, 남자탁구, 여자배구, 축구, 여자농구, 룽상, 권투, 레스링 유술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종목들에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체육기술을 온세상에 시위함으로써 세계 인민들은 경탄케 하였다.

1965년에는 룽상을 중심으로한 70여개의 개별 경기 종목들에서 94명의 선수가 148회에 걸쳐 공화국 기록을 돌파하였으며 1966년에는 궁술에서 세계기록을 수립한것을 비롯하여 14개 종목에서 146명이 180회에 걸쳐 공화국기록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10개 종목에서 89명이 96회에 걸쳐 명수급 기준기록을 돌파하였다.

마. 1965 - 1966년도 우리나라 선수와 외국선수들간의 경기

1965 - 1966년에 우리나라 체육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아세아 축구 가베포를 비롯하여 일련의 국제경기에서 승리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외국선수단과의 경기정형

- 1965년 -

우리나라 가베포 위원회의 발기로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아세아축구 가베포에는 우리나라와 남부월남 해방청년련맹 대표단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중국, 월남, 캄보쟈 그리고 아프리카의 기네축구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련맹전으로 진행된 9일간의 경기에서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은 한점의 실점도없이 14개의 득점으로 5전 5승하여 우승컵을 쟁취하였다.

6월 11일 동평양경기장

우리나라 제비축구선수단 : 인도네시아 국방축구 선수단 성적 4 : 2

6월 13일 모란봉 경기장

우리나라 모란봉축구선수단 : 인도네시아 국방축구

선수단 성적 6 : 0

6월 16일 개성시 종합경기장

우리나라 2.8 축구선수단 인도네시아 국방축구 선수단

성적 : 10 : 0

6월 27일 평양시 체육관

우리나라여자 모란봉여자 룡구선수단 : 소련

<페, 페, 페> 여자농구선수단 성적 63 : 53

8월 22일 함흥시 경기장

우리나라 기관차 축구선수단 : 월남 축구선수단

성적 : 1 : 0

8월 29일 개성시 경기장

우리나라 축구선수단 : 월남 축구선수단

성적 1 : 1

9월 3일 평양시 체육관

우리나라 2.8 여자 배구선수단 : 로므니아

청년 종합 여자배구선수단

성적 3 : 0

9월 9일 모란봉 경기장

우리나라 로동자 여자배구선수단 : 로므니아

청년 종합 여자배구선수단

성적 3 : 0

10월 5 - 9일 평양학생소년 궁전 체육관 (5일)과 모란봉 경기
장 (9일)에서 우리나라 선수들과 캄보자 왕국체육대표단 선수들
과의 탁구, 룡구, 배구, 공동훈련

10월 24일 평양시 체육관

평양시 체조선수단 : 쇼련 (백로씨야)

체조선수단 성적 남자 1위 평양시팀 2위 백로씨야팀, 여자 1위
평양시팀 2위 백로씨야팀

- 1966년도 -

4월 19 - 27일 모란봉 경기장

우리나라 선수단 : 로므니아 뿌꾸레슈머

축구선수단 성적 : 1차경기는

압록강선수단이 1 : 0 2차경기는 모란봉 선수단이 4 : 0

8월 16-31일 모란봉 경기장

우리나라 선수단 : 월남 청년축구선수

단과 3차의 경기를 진행

성적 1차경기 압록강 선수단이 4 : 0

2차경기 기관차 선수단이 1 : 2

3차경기 2.8 선수단이 3 : 1

9월 6 - 21일 평양 학생 소년 궁전

우리나라 여자배구 종합선수단 : 소련 여자

배구선수단과 3차의 경기를 진행

3 : 2 3 : 1 3 : 1

10월 25 - 11월 2일 모란봉 경기장

우리나라 축구선수단 : 헝그리아 제 2 축구

종합선수단, 2차에 걸쳐 경기진행

11월 7 - 16일 평양학생 소년궁전

우리나라 탁구선수단 : 로므니아 탁구선수단

2차에 걸쳐 경기진행

성적 5 : 4 5 : 3

12월 14 - 28일 평양시 체육관

평양 청년 탁구선수단 : 소련 로련 탁구

종합선수단 1차경기 - 남자단체경기는 우리나라 선수단이 1조

5 : 3 2조 3 : 0

2차경기 - 남자단체경기는 우리나라 선수단이 5 : 3 남자개인 경기에서 1, 2, 3위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차지하였다. 남자복식 경기에는 1, 3위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차지 하였다.

○ 우리나라 체육선수들의 국제체육경기 참가 정형

- 1965년도 -

세계여자속도빙상 선수권대회

(2월 6 - 7일 필란드) 성적 나라별 종합순위에서 우리나라
제 2위 개인순위에서 제 5위 제 8위, 제 13위

제 28차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4월 15 - 25일 유고슬라비아)

성적단체에서 우리나라 제 3위

반동회의 10주년 기념체육행사

(5월 인도네시아)

성적 - 우리나라 룡구 제 2위 럭기 제 1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와의 무범유술 경기진행

국제여자배구경기 (6월, 소련)

성적 - 우리나라 선수들 일본종합팀과 빨스카 청년팀을 각각
3 : 1로 소련 청년 종합팀을 3 : 0으로 이김 베이징 국제탁구
초청 경기대회

(8월 1 - 9일 중국)

성적 우리나라 남자 제 2위 여자 제 3위 1966년도 세계축구
선수권대회

아세아지역 예선경기 (11월 21일 24일 캄보쟈 수도 프놈펜)
성적 우리나라팀이 오스틀랄리아팀과 대전 승리

- 1966년도 -

11월 25일부터 12월 6일 기간에 캄보쟈의 수도 프놈펜에서 진
행된 제 1차 아세아 가네포경기에 우리나라에서 18개 종목의 선

수단이 참가하였다.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30개 은메달 40개 동메달 33개 계 103개의 메달을 생취하였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성적은 다음과 같다.

륙상 - 남자 400 m 2위 800 m 2위 1,500 m 1.3위
5,000 m 1.3위 10,000 m 1.2위 마라톤 1.2위 포환
1, 2위 높이뛰기 3위 너비뛰기 3위 봉고도 1.2위 3단도 3위
4 × 400 계주 2위 창 1위

여자 100 m 2위 200 m 1.3위 400 m 1.3위 800 m 1위
80 m 장애 2위 포환 3위 원반 2위 높이뛰기 2위 너비뛰기 3위 5종
경기 3위 4 × 400 계주 2위

체조 남자단체 2위 여자단체 3위

남자개인 룰 1.2위 평행봉 2위 안마 3위 자전거 108 km 남자단
체도로경주 3위 200 km 남자개인도로경주 3위 24 km 여자도로경주 2.3
위 54 km 여자도로경주 1.2위

농구 - 여자 2위

배구 - 여자 1위. 남자 2위

축구 - 1위

탁구 - 남자단체 2위 여자단체 2위

남자복식 3위 여자복식 3위

권투 - 51 kg 1위 54 kg 3위 57 kg 1위 67 kg 1위 71 kg 2위

력기 - 52 kg 급 1위 56 kg 급 2.3위 62.5 kg 급 3위 67.5 kg 급 3위
75 kg 급 2위 90 kg 1위 90 kg 이상 급 1위

레슬링 (자유형)

52 kg 1위 57 kg 급 2위 63 kg 급 1위

레슬링 (고전형)

52 kg급 3 위 유술 - 56 kg급 2 위 68 kg급 1 위 80 kg급 1 위

80 kg 이상급 2 위

격점 - 남자 에베 1 위 후루테 2 위

사격 - 남자단체 50 m 자유권총 2 위

남자단체 25 m 속도권총 1 위

여자단체 50 m 소구경보총 2 위

여자단체 50 m 소구경보총 복사자세 3 위

남자개인 50 m 소구경보총 (복사) 3 위

50 m 자유권총 2 위 25 m 속도경기 2 위 3 위

여자개인 50 m 소구경보총 3 위

궁술 - 여자 단체 3 위

수영 - 여자 자유형 100 m 3 위

200 m 3 위 여자배영 100 m 3 위 200 m 3 위

여자 나비영 200 m 2 위 100 m 3 위

여자 혼영 200 m 3 위 여자 4 × 100 m 자유영 2 위

여자 4 × 100 m 혼영 2 위

조정 - 1 인조정 2 위 2 인조정 3 위 4 인조정 2 위 8 인조정 1 위

우리나라 속도빙상 선수들은 2월 18일부터 19일 기간에 노르웨이 의 트론티 하임에서 진행된 세계 여자 속도 빙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구라파의 강자들을 물리치고

종합 2 · 6 위 1,500 m 1 위 1000 m 2 위 300 m 3 위를 쟁취 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생 유술 선수단은 6월 21일부터 27일 기간에 체코 슬로벤스코의 수도브라하에서 진행된 세계 대학생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60kg급에서 1.3위 80kg에서 3위를 쟁취하였다.

우리나라 축구선수단은 7월 12일부터 30일기간에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제 8차 세계축구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탈리아 선수단과의 경기에서는 1 : 0으로 이겼다.

칠레선수단과의 경기는 1 : 1무승부 다음 소련선수단과의 경기를 거쳐 준준 결승에 올라가 5 - 8위 권내에 올라섬으로써 우리나라 축구기술을 온세계에 떨치였다.

우리나라 남녀탁구 선수들은 8월 20일부터 9월 4일 기간에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국제탁구 초청경기에 참가하여 남자선수들은 단체경기에서 일본선수단을 물리치고 2위를 여자선수들은 단체경기에서 3위를 쟁취하였다.

1966년 우리나라 집단체조 전문가들이 캄보자와 콩고(브)에 우리나라 축구전문가들이 캄보자에 우리나라 유술 전문가들이 기네와꾸바에 각각 파견되었다.

13. 1967年度事業總和

10. 1. 08 10 11 11 11 11 11

10. 1. 08 10 11 11 11 11 11

13 . 1967 年度 事業 總和

1967 年에 체육부분에서는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학습, 혁명전통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체육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당의 체육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국방체육을 위주하여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로동과 국방에 더욱 믿음직하게 준비시키는데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체육인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체육인 후배양성 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함으로써 수많은 체육애호가들과 체육선수들을 양성하였으며 적지않은 종목들에서 장래가 기대되는 성과들을 거두었다.

가. 군중체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7 年 5월 30 日 체육사업에서 국방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체육부분에서는 이 교시를 받들고 국방체육을 대중속에 널리 보급하고 그종목을 부단히 확대하였으며 국방체육활동 형식을 다양하게 조직 전개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였다.

1967 年에 보급된 대표적인 국방체육 종목으로서는 백오르기, 바줄을 리용하여 건너 뛰기, 담벽넘어내리기, 경사진담백오르내리기, 도랑건너뛰기, 벼랑에서 내려 뛰기, 등반봉오르기, 바줄로 벼랑오르내리기, 산야 횡단달리기, 각종장애물 뛰어넘기, 신변기재를 리용하여

강을건지기, 각종장애물 극복하기, 수류탄던지기들이 었다.

국방체조, 무기분해 결합

강행군 종목들은 함남도, 영북도, 영남도를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보편화되어 국방체육의 필수종목으로 되고있다.

국방체육에서는 강선제강소가 전국의 모범이 되고있다.

나. 집단체조

김일성동지께서는 1967년 5월 2일 모란봉 경기장에서 5.1절을 기념하여 평양 시내 청소년들이 준비한 대집단체조 <혁명의 시대>와 이해 4월 12일 만경대 혁명학원 창립 스무돌을 기념하여 이 학교 학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 <혁명의 후비대>들을 보시고 이부분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었다. 대 집단체조 <혁명의 시대>를 관람한 외국인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 이체조가 달성한 참신한 주제사상과 체육 예술적 기교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외에 각도·시·군들에서도 적은범위의 집단 체조들이 광범히 진행되었는데 학교부문에서만도 40여만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다. 학교체육

1967년에는 체육수업의 질을 높이며 과외 체육활동을 강화하여 전체학생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과외 체육활동에서는 등반봉 오르내리기, 수영도화훈련, 강행

군, 산야횡단, 군사체육, 유희등 국방체육을 기본으로한 체육을 전체 학생들속에 광범히 보급하였다.

각급학교들에서는 명절과 기념일을 계기로 체육경기행사를 1년에 1 - 2 회정도 조직하였으며 체육노조도 매주 2 - 3 회정도 운영하였다.

천리마창덕학교, 천리마만경대중학교, 삼흥중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에서는 남자들은 봉제조, 여자들은 예술체조를 매일 30 분씩 진행하였다.

라. 인민체력검정

북청군, 송화군을 비롯한 많은 시.군들에서는 인민체력검정대상자의 90%가 그전해보다 기준이 높아진 급들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밖에 인민체력검정에 100%참가 100%합격한 학교, 기관, 기업소 대렬도 그전해에 비하여 급격히 장성하였다.

1967년도 인민체력검정에서 달성한 중요한 성과는 체육훈련을 국방체육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한데서 수검자들은 조국보위에 더욱 튼튼히 준비시킨것이였다.

마. 조선인민군 종합군사 경기대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직접적인 지도 밑에 6월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종합군사 경기대회는 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돌을 맞이하여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여 군인들의 군사기술수준을 한계단 더높일뿐만 아니라 전투 정치훈련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데 그목적이 있었다.

이대회에는 조선인민군 룡해공군 각부대 연합부대와 군부대들의 경기대회에서 뽑힌 우수한 구분대 군인들이 참가하였는데 10.일간에 걸쳐 군종별 보병경기, 포병경기, 전차경기, 통신경기, 공병경기, 화학경기, 군의경기들과 군중체육경기들이 진행되었다. 이군사경기대회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져온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과 당이 인민군대앞에 제시한 군사적 과업 수행에서 인민군장병들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대한 시위였다. 또한 이 군사경기대회는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미제침략들을 짓부시고 우리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할수 있는 만단의 전투준비가 되었음을 여실히보여 주었다.

군중체육경기에서 <월비산>선수단이 1위 <묘향산>선수단이 2위 <매봉산>선수단이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이군중 체육경기에서도 국방 체육종목을 기본으로 하면서 축구, 배구, 룡구, 탁구, 100 m, 400 m, 800 m, 1,500 m, 400 m 계주 500 m, 10,000 m, 럭기, 테스링, 권투, 수구, 불에 뛰어들기등 수십종목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라. 체육후비 및 간부양성

각도(시) 군마다에 수십명씩의 학생들을 망라한 청소년 구락부가 있는데 여기에는 구락부장과 각종목별 교원들이 있다.

또한 1967년 9월부터는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배려에 의하여 각도마다 3 - 5개의 국방체육구락부들이 새로 생겼다.

여기에는 사격, 격점, 모형항공, 모터찌클, 자동차, 트랙모르, 무선통신들을 전문적으로 배워주는 부서들이 있다.

국방체육구락부에는 근 1만여명의 학생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각도와 일부시, 군들에는 해양체육 구락부들이 설치되어 해양체육 선수후비를 키우고 있다.

전국각지에 있는 이 체육후비 양성 기지들에서는 1967년에 만하여도 1천여명의 유능한 후비들을 양성하여 각급 체육단들에 보내었다.

체육후비는 또한 각급학교 체육노조들에서도 대대적으로 육성되고 있는데 1967년 한해 동안에만도 수만명의 체육선수 및 체육애호가들을 길러 내었다.

다른 한편 체육인들은 체육대학양성반에서 매분기마다 공부시켰으며 부문별강습, 방식상학 등을 자주 조직하였다.

체육대학을 비롯하여 각도 사범학교, 교원 대학들에서 체육 간 특히 체육교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였는데 1967년에는 그 졸업생수가 1966년의 근 1.5배에 달하였다.

사. 체육기술

체육기술 부문에서는 국방체육을 위주로하여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1967년 5월 30일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국방체육 증진을 급속히 발전시켰다.

특히 사격, 격검, 해양체육(조정, 요트, 카누, 활우스키, 모터보트) 무선통신, 모터씨클, 락하산, 탈공기, 모형항공기 종목들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 국방실용체육

경기규칙을 가진 국방체육 종목들이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였

고 광범한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속에 대대적으로 보급된것이 특징적인 성과이다.

국방체육경기 종목들은 중앙국방체육단과 각도에 있는 국방체육구락부에서 대대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구락부들을 거점으로 광범한 군중속에 보급하고 있다.

1967년에 각군(구역)들에서는 국방체육 경기대회를 조직하여 그때마다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해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사해주의 국가군대 군사 3종경기 선수권대회(10월 20 - 23일)는 우리나라 국방실용체육발전 면모를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자동보총사격, 수류탄던지기, 장해활극복경기로 구성된 군사 3종경기에서 그어느 종목에서나 1위를 쟁취하였다.

즉 사격에서 1, 2, 3위 수류탄 던지기에서 1위, 3위 장애물 극복 경기에서 1위를 우리나라 군대 선수들이 차지하였다.

개인 종합 순위에서는 1, 2, 3위를 전부 우리나라 선수들이 쟁취하였다.

단체 종합성적에서는 조선인민군 선수단이 1위를 뽐스까 인민군 선수단이 2위를 소련 군대 선수단이 3위를 하였다.

0 배 구

배구기술은 1967년을 전후로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

몽골의수도 울린바 따르에서 있는 사회주의 국가 안전기관 배구 선수권대회(11월 23 - 29일)에서 우리의 배구기술은 급속한 발전면모를 또다시 보여 주었다.

이 대회에는 우리나라 남녀 선수들을 비롯하여 소련(남녀), 민주독일(남녀) 루르니아(녀), بلغ가리아(남), 웡그리아(남녀)

체스꼬슬로, 벤스꼬(남), 뿔스까(녀) 선수단이 참가하여 서로 한번 경기하였다.

우리나라 여자 선수단은 모든 나라 선수들을 3대0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타승하고 금메달을 남자선수단은 은메달을 쟁취하였다.

○ 룽 구

1967년에 우리나라 선수들의 특징에 맞는 독창적인 룽구전술을 창조하였는바 그것이 곧 중장거리 투사에 의한 속도 전술이었다.

헝그리아 여자룽구 종합선수단과 네차례 경기중 세번,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남자 룽구종합선수단과 세차례 경기중 두번승리한것도 이 전술이 가져다준 결과이다.

체육인들은 당의 방침대로 체육분야에 생겼던 사대주의 교조주의와의 투쟁을 통하여 주체적인 기술전술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이해의 강자로 출현한 남자 2.8 압록강 로동자선수단들과 여자 압록강 2.8 평양시 선수단들은 독립적으로 각각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바로 중장거리 투사에 의한 그속도 전술로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 탁 구

탁구기술은 해마다 발전하여 상승일로로 길어온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1967년 4월 11일부터 21일까지 스웨리에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있는 제 29차 세계탁구 선수권대회에서 남자선수단은 스웨리에, 영국, 체스꼬슬로, 벤스꼬등 구라과 강자들을 물리치고 2위

를 하였다.

그밖에 소련, 로므니아등 나라 선수들과 경기를 여러차례 진행하였는데 그때마다 발전하는 탁구기술을 보여주었다.

아. 체육단

1967년 당과 수령의 배려하에 수많은 체육단이 새로 생겼는데 비하여 근 2배에 달한다.

이해말 현재 2.8평양시, 압록강, 기관차, 로동차, 제비, 갈매기, 월비산, 매봉산, 오성산, 반룡산, 묘향산, 체육단들과 두만강, 초병 각도 체육단들이 훈련하고 있다.

△ 주요 체육경기

경기는 국내 체육행사, 국내에서 외국선수단과의 경기, 외국에서 다른나라 선수단과의 경기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중앙체육대회

제 3 차 전국학생 스키 경기대회

삼지연스키장에서 1월 22 - 26일간에 진행 1위 량강도 2위 자강도 3위 함남도 조선 사로청 창립 스물한돛기념 전구 빙상 경기대회 강계에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도간대항 1위 평양시 2위 량강로 3위 함북도 대학간대항 1위 중앙체육대학 2위 김일성 종합대학 3위 혜산농림대학 중앙선수들간의대항 1위 2.8 체육단 2위 자강도체육강습소

제 7 차 전국역전경주대회

평양남포간에서 4월 16일에 진행

1위 평양시, 2위 평남도, 3위 량강도

○ 중앙체육단 및 도강습소 체육대회

중앙선수단 및 도강습소 속도 빙상경기대회

평양시 대성산 미천호 빙상장에서 1월 7 - 8 일간에 진행
여자 500 메터, 1,000 메터, 1,500 메터, 3,000 메터에서 2.8
체육단 선수가 1 위, 남자 500 메터, 10,000 메터에서 모란봉체육
단 선수가 1 위

2.8 절기념 (종목별) 경기대회

평양 (배구), 송림 (권투), 신의주 (무선통신), 삼지연 (스키)에서
2월 5 - 15 일간에 진행

춘기 (종목별) 경기대회

평양 (던지기), 양덕 (수영), 신천 (수구와 불에 뛰어들기)에서
3월 5일부터 4월 25일에 진행

5.1 절기념 (종목별) 경기대회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

그밖에 여름철 경기대회들 비롯한 각종경기들을 진행하였다.

△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국제경기 및 외국선수단과의 경기

5월 18일

평양시 체육관 2.8 여자농구선수단대 웨그리아 여자농구종합선수
단 64:59

5월 21일

평양시 체육관 우리나라 여자농구 종합선수단 대 웨그리아 녀
자 농구 종합선수단 75:65

5월 25일

평양시 체육관 2.8 남자 농구선수단 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남
자농구 종합선수단 90:86

5월 28일

평양시 체육관 우리나라 여자농구 종합선수단 대 헝그리아 여자농구 종합선수단 78:76

6월 4일

평양시 체육관 로동자 남자 농구선수단 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남자 농구종합선수단 68:65

같은날 모란봉 유술선수단 대 쿠바 유술선수단 63.70.80.90
키로그람급에서 모란봉선수단이 승리

6월 15일

평양시 체육관, 평양시 남자배구 청년 종합선수단 대 헝그리아 부다페슈트 남자 배구 종합선수단 3:0

6월 18일

평양시 체육관 우리나라 남자배구 제2종합 선수단 대 헝그리아 부다페슈트 남자 배구 종합선수단 3:2

6월 23일

모란봉경기장
조선인민군 축구종합선수단 대 헝그리아인민군 종합축구선수단
6:1

6월 25일

모란봉경기장 우리나라 남자배구 제2종합선수단 대 헝그리아 부다페슈트 남자배구 종합선수단 3:0

같은날 압록강 축구선수단 대 헝그리아 인민군축구 종합선수단
1:1

6월 29일

원산시경기장 매봉산 축구선수단 대 헝그리아 인민군축구 종합

선수단 0 : 0

7월 21일

평양시 체육관 우리나라 여자배구 청년 종합선수단 대 뽀스까
여자배구 종합선수단 3 : 0

7월 23일

평양시 체육관 우리나라 여자배구 제2 종합 선수단 대 뽀스까
여자배구 종합선수단 3 : 0

7월 25일

평양시 체육관 갈매기 여자배구 선수단 대 뽀스까 여자 종합선
수단 3 : 1

7월 30일

평양시 체육관 우리나라 여자배구 종합선수단 대 뽀스까 여자
배구 종합선수단 3 : 0

8월 18일

평양시 체육관 모란봉 유술선수단 대 쏘련 로련 유술선수단
5승 9무승부로 모란봉 선수단 승리

8월 27일

평양시 체육관 모란 유술선수단 대 쏘련 로련 유술선수단
7 : 3

10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국가군대 군사3총경기 선수권대회 진행
단체 1위 조선인민군 선수단 (25,154 점)

2위 뽀스까인민군 선수단 (21,030 점)

3위 쏘련 군대 선수단 (19,877 점)

개인 1위 조선선수 (4,327 점)

2위 조선선수 (4,277 점)

3위 조선선수 (4,271 점)

자. 우리나라 선수들의 외국방문과 경기

1월 21 - 22일

프랑스 그로노블에서 1967년 국제 속도빙상 경기대회 진행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자 1,000미터에서 1위

1,500미터 3위 쟁취

3월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사회주의 국가군대 레스링 선수권대회

진행

우리나라선수 금메달 쟁취

4월 5 - 25일

우리나라 청년남자배구 선수단이 헝그리아 방문 10전 9승

4월 11 - 21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제 29차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진행

우리나라 남자선수단 단체성적에서 2위

6월 14일

우리나라 영양시 격점선수단이 헝그리아를 방문

공동훈련과 친선경기들 진행

6월 10 - 27일

로선인민군 남자롱구 선수단이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을 방문

1급선수단들과 세번 경기하여 2번 승리

7월 8 - 9일

쑤련에서 즈나멘쓰끼 형제상 쟁탈을위한 국제륙상 경기대회 진행

우리나라선수가 여자 400 메터, 800 메터에서 1 위

7월중순

조선인민군 여자 배구선수단이 쏘련을 방문

모스크바 종합 선수단을 3 : 2 로

그루지야 여자 배구선수단을 3 : 0 으로 승리

8월중순

우리나라 여자 배구선수단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방문

16 일 바드부랑켄부르그에서 독일 여자 배구선수단을 3 : 1 로

18 일 에르푸르트시에서 같은 선수단을 3 : 0 으로 승리

8월말

화란에서 1967 년 세계 자전거 선수권대회 진행, 우리나라선수

들 참가

9월말

로므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사회주의 국가 군인대 권투선수

권 대회를 진행

조선인민군 권투 선수들이 여러개의 메달 쟁취

11월말

쏘련에서 사회주의 국가군대 룩상 선수권대회를 진행, 조선인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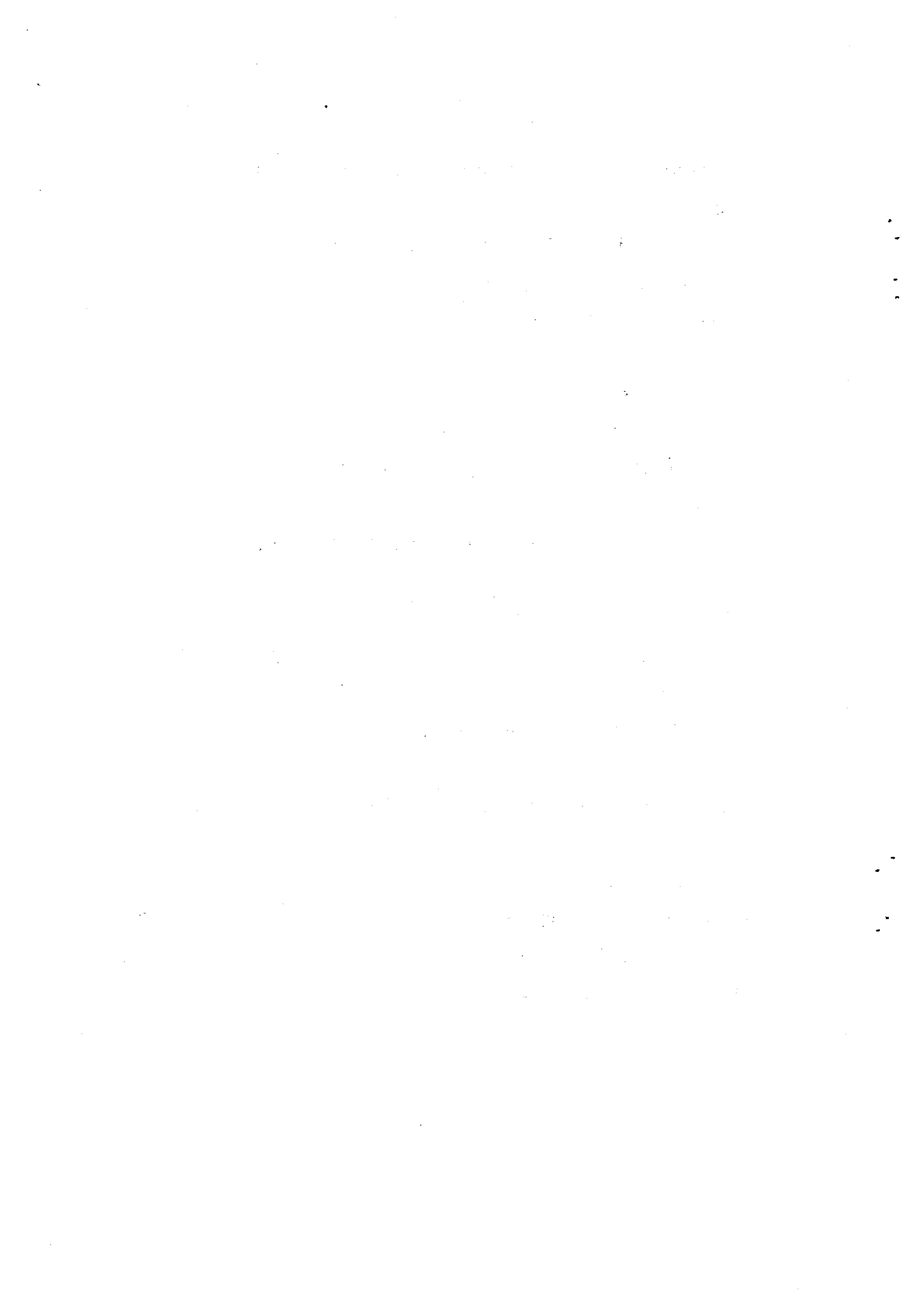
군 룩상선수단이 참가

11월 23 - 29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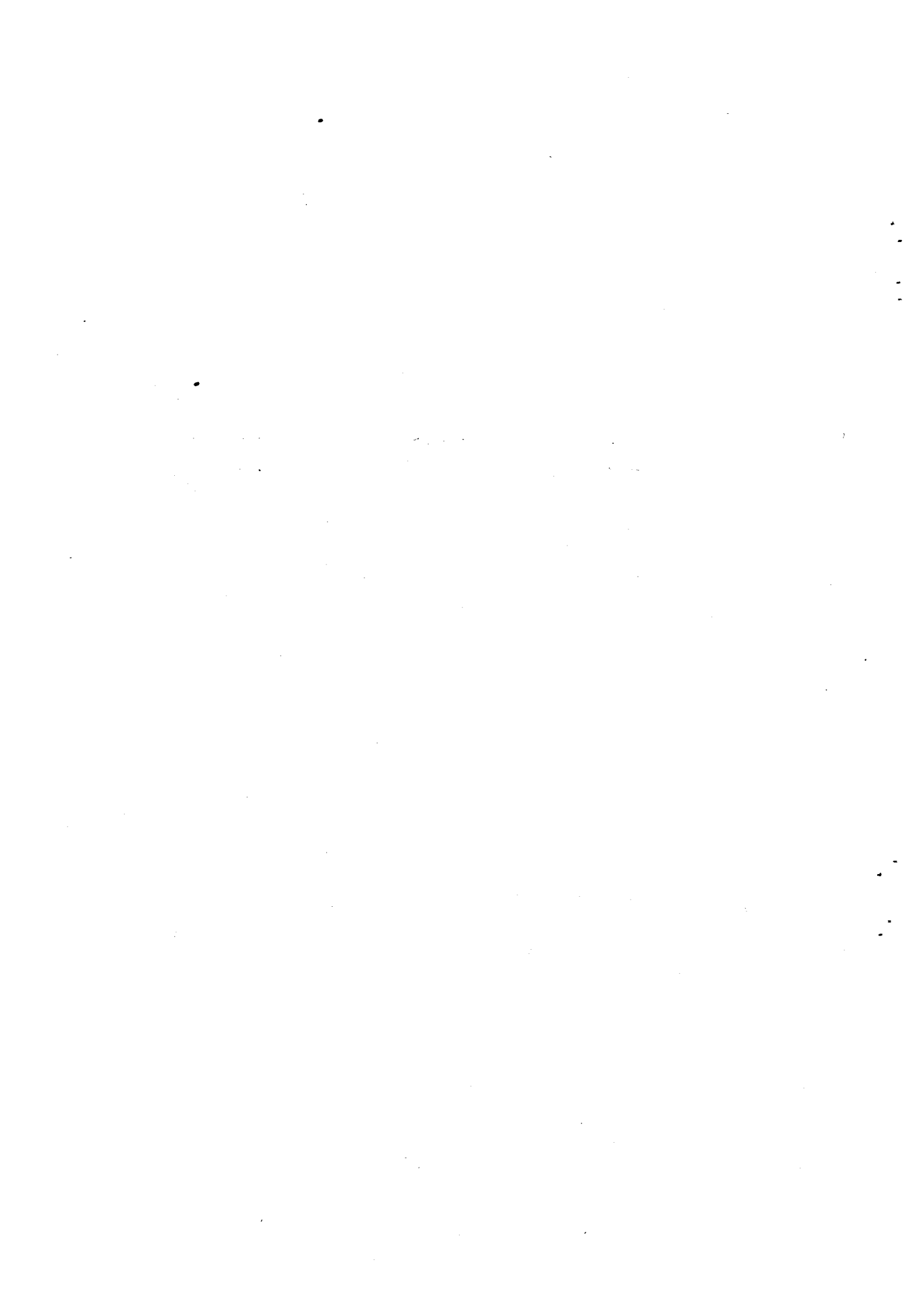
몽골의 수도 울란바따르에서 사회주의 국가 안전기관 배구경기

대회 진행 조선사회 안전성 여자 배구 선수단이 1 위 남자

배구선수단이 2 위를 쟁취



14. 1968年度事業總和



14 . 1968 年度 事業總和

우리나라 체육은 근로자들을 창조적 로동과 국방에대할 준비시키는 사업이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나라의 육성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앞으로 조선의 체육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전국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발전하여야 할것이다. 즉 민주조선을 건설할 썩썩한 전국 투사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민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련시키는 전인민적 체육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일성 선집) (1권 1967년판 221페이지)

김일성 동지께서 1946년 체육인대회에서 하신 이 교시는 우리나라 인민 체육발전의 강령적 지침으로 되었다.

수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고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나라에서의 체육은 인민의 것으로 되고있다.

현시기 우리당 체육정책의 기본은 국방체육을 위주로한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로동과 함께 국방에 더 잘 준비시키는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현대전에 적응하도록 단련시키기 위하여 국방체육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며 국방체육을 위주로한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수령의 이교시는 미제와 싸워이기고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보장하자면 정신적 준비와 함께 육체적 준비도 잘 갖추어야 한다는 철저한 혁명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심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체육이 대중화 됨으로써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단련되었으며 그역세 체력과 불굴의 투지로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떠밀어 나가고있다.

체육이 대중화된 결과에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재능있는 체육인들이 수많이 배출되었으며 그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체육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대한 역할을 담당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며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릴데 대한 당정책이 관철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체육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오늘 우리나라의 붉은 체육인들은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조선인민의 영웅적 기상과 함께 조선체육의 눈부신 발전모습을 당당하게 시위하고 있다.

가. 군중체육

국방체육을 위주로한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로동과 국방에 더잘 준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68년에 체육 부문에서는 국방체육 종목들을 내용으로한 각종 체육경기대회를 광범히 조직하였으며 해당단위의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군중체육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각급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인민정권 기관들 근로단체들과 체육지도기관들에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워 체육생활에 대한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높이는 한편 국방체육을 위주로한 체육을 대중화하여

정상화 하기 위한 조직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체육 소조와 종목별 소조들을 책임진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었다. 그리하여 각급 학교들, 공장, 기업소, 사무 기관, 도시와 농촌 림산마을등 어디에가나 우리나라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은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면서 성별, 연령, 체질과 취미에 따라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아침체조, 업간체조, 병수마찰등은 그들의 문화생활에서 떼어낼수없는 주요한 한 부분으로 되었다.

각급 체육지도 기관들과 학교,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들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한단위에 체육 모범을 창조하고 각종 몸단련 수단과 방법들을 광범한 대중속에 보급 일반화하며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곳에가나 군중적인 체육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 집단체조

1968년에 우리나라 청소년 학생들은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들 높이 받들고 학교체육을 발전시켜온 자랑찬 성과를 집단체조를 통하여 시위하였다. 섹섹하고 절도있는 체조와 유연한 체육수용에 높은 예술성을 배합한 집단체조를 통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학생들은 아버지 수령님의 참된 전사로 지덕체를 다갖춘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자라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훈련한 우수한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김일성원수님 탄생 신여섯 뉘를 맞이하여 진행된 집단체조<김일성 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자>
4장 2절로된 이 집단체조에서는 섹섹하고 절도있는 체조동작

과 다양한 예술적 조형으로서 아버지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훌륭히 형상하고 수령님을 따라 배우는 청소년 학생들의 그이에 대한 충성과 흠모의 정을 보여주었다.

집단체조 <대들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자> (남포 해주 혁명학원 창립 열들을 맞이하여 진행)

전투적이고 섹섹한 체조 동작에 다양한 예술성을 배합한 이 집단체조에서는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하시고 령도하시는 그 어려운 나날에도 원수들에게 부모를 빼앗긴 어린이들을 혁명의 붉은 피줄을 곳곳이 이어 나갈 우리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깊은 사랑과 배려를 돌려 주시는 원수님의 높은 덕성을 훌륭히 형상하고 그이의 육친적인 사랑속에서 조선혁명의 기둥들이 억세게 자라나는 자기들의 자랑스런 모습을 삼명깊게 보여주었다.

대집단체조 <천리마조선> (공화국 창건 스무돛을 맞이하여 진행)

제7장과 서막과 종막으로 된 이 대집단체조에는 4만 5천여 명의 평양시내의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 하였다.

대집단체조 <천리마조선>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지식전개년 영광스러운 항일무장 투쟁시기에 이룩된 공화국의 깊은 뿌리에 대해서와 그리고 공화국의 기치하에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로선과 정책들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천리마의 기세로 달려온 우리인민의 영광에찬 전투력로정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들 미재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 우리혁명의 종국적인 승리를 위하여 더욱 견결히 끝까지 싸우려는 우리인민의 전투

적 기백등을 섹션한 체조동작과 강엄한 예술적 화폭으로 보여 주었다.

이대집단 체조에서 청소년 학생들은 깊은 정치사상적 내용과 높은 예술성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단련되고 훈련된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전국 중학교 집단체조 경기대회 (공화국창건 스무돛을 경축하여 진행)

7월부터 10월말까지의 사이에 진행된 경기대회에는 각 중학교 단위로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였는데 도별 경기성적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등 황해도, 자강도
- 2 등 황북도, 량강도, 함남도
- 3 등 평남도, 함북도, 평북도

2) 학교 체육

1968년에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의 각급 학생들에서는 과정안을 통한 체육 사업을 더욱 발전시켰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과정안을 통한 체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과외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학년과 체질에 맞게 다양한 체육종목들을 선택하였다.

혁명전적지 달리기, 집단체조, 철봉, 너비뛰기, 높이뛰기, 수영, 스키트, 국방체육등 다양한 체육 종목들을 발전시켜 학생들을 로동과 국방에 더욱 믿음직하게 준비시키고 있다.

3) 집단달리기

군중체육을 생활화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기 위하여

각지공장, 기업소사무기관, 인민반들에서는 아침체조, 업간체조와 함께 집단달리기를 정상화 하였다.

집단달리기를 혁명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는데 여러기념일을 계기로 실시된 <혁명 전적지 달리기>를 통하여 자신들을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무장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였다.

4) 체육후비육성 및 간부양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로 설치된 청소년 체육구락부는 1968년에도 체육선수후비 육성기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해에 청소년 체육구락부들에서는 교수훈련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 결과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된 수백명의 유망한 체육선수 후비들을 육성해 내었다.

평양체육대학을 비롯한 각도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체육학부들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높은 체육기술을 소유한 우수한 체육간부들을 수많이 육성해 내었다.

5) 체육기술향상

1968년도에 우리 체육인들은 체육기술의 발전에서 주체들 세우며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릴데 대한 우리당 체육정책을 계속 완강하게 관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체육의 대중화에 의하여 국방체육을 위주로한 체육기술이 급진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사격, 모형항공 총목을 비롯하여 배구, 권투, 룽구, 체조등 일련의 체육종목의 기술이 발전하여 공화국 기술 갱신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하여 여자배구, 남자탁구, 여자빙상, 축구등 여러종목에서 우리 체육은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

6) 배 구

우리나라 선수들이 체질적 특성에 맞는 독특한 배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8년에 이부분에서는 맹렬한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배구기술은 확고하게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

우리나라 여자배구 선수들은 1968년에 진행되 제9차 세계청년 학생축구전에서 소련, 체코슬로벤스꼬, 헝그리아등 각팀들을 물리치고 단연 제1위를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를 방문한 소련 붉은기여자종합 선수단을 3:0으로 이김으로써 우리나라의 여자배구가 세계패권자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수었다.

남자배구도 전년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배구선수 후비도 수많이 자라났는데 매개체육단 배구선수단들이 독립적으로 국제경기에 나가 매번 승리하군 하였다.

7) 축 구

1968년에 여러차례에 걸쳐 국내축구연맹전을 진행하였는데 매번 치열한 격전을 벌리였다.

그것은 강한 선수단들이 많이 출연하였기 때문이었다.

경기에서는 2.8선수단, 압록강선수단, 평양시선수단, 제비선수단이 비교적 강하여 승부들 다투었으며 여기에서 체육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수었다.

8) 룡 구

룡구 부분에서는 중장거리 투사를 위주로한 속도전술 체계들 더욱 완성하여 공고화하는 방향에서 훈련을 진행하였다.

결과 우리나라 룡구 기술도 세계적 수준에 들어섰다.

1968년에 진행된 룡구경기에서 로동자 선수단 2.8 선수단 압록강선수단(이상남자)

2.8 선수단, 압록강선수단, 평양시선수단(이상여자)이 비교적 우수한 단체들이었다.

9) 탁 구

이에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고있는 우리나라 남자탁구 선수들은 1968년에 주로 새로운 높은 기술을 연마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평양시선수단, 압록강선수단, 로동자선수단들에서 새로운 탁구선수 후보들이 많이 자라났다.

10) 체육단

1968년에 각도체육단과 중앙급체육단들에서 훈련하고 있는 체육인들은 자신들을 우리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대렬은 그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졌고 모든 종목에 걸치는 체육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한 맹렬한 훈련이 진행되었다.

이해에도 2.8 체육단, 압록강체육단, 평양시체육단을 비롯한 15개의 체육단과 각도체육단들이 활발히 활동하였다.

나. 국방체육

근로자들의 체력을 현대전에 적응하도록 단련시키기 위하여 국방체육을 위주로한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에 국방체육을 광범히 조직 진행하였다.

전 체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체력을 전면적으로 단련하고 군사기술과 동작에 익숙되며 모든 어려운 조건들을 이겨낼수있는 강의한 육체적 저항력을 길러내기 위해 국방체육훈련을 생활화 하였다.

일상적으로 훈련된 국방체육기술의 높은 발전수준은 공화국창건 스무돛을 기념하여 진행된 전국인민체육대회 종목별경기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전국 국방체육대회에서는 락하산 정점 강하늘 비롯한 여러종목의 락하산 경기들과 중 2급 모형활공기, 1 2급 모형누동력기, 선조종식, 방사속도기의 비행, 격점, 모터씨클 등 수십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도(적할시)철도성의 국방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체육기술에서 주체들 확립하고 훈련에서 맘을 많이 흘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얻은 성과를 훌륭히 보여주었다.

다. 주요체육경기

1968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공화국 창건 스무돛을 맞이하여 진행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드리는 편지전달제주 제3차공화국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중앙급 체육대회와 각도, 시, 군 체육경기들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또한 이해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여러차례의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영웅조선의 높은 체육기술을 온세계에 시위하였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드리는 편지전달제주

제주대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

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는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및 청년학생들 수만명이 참가하였다.

제주대렬은 보천보, 중강, 메고지, 두만강로동자구, 판문점, 영성등 6개지점에서 출발하였다.

편지전달제주의 첫대렬이 8월 12일 우리나라 북단 두만강 로동자구에서 떠나 10월 6일 혁명의 수도 영양에 들어섰다.

이날 모란봉경기장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들 평양시와 각도 제주대렬 학생대표들이 전달하였다.

2) 공화국 창건 스무뽕경축 제3차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육대회

이제 3차 공화국 체육대회에는 각도에서 선발된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여 룡상, 마라손, 체조, 격검, 헤엄, 탁구, 야구, 정구, 사격, 배스링, 유술, 씨름, 축구, 배구, 룡구, 송구, 궁술, 까애크 조정등 모든 체육종목에 걸쳐 경기들 진행하였다.

이 체육대회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밑에 국방과 결합된 체육 생산과 결합된 체육, 교육과 결합된 체육을 정상적으로하여 런마해온 자기들의 튼튼한 체력과 높은 체육기술 완강한 투지들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날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대중체육의 일단을 과시하였다.

대회에서는 자전거 경기에서 3개의 공화국 신기록을 수립한것을 비롯하여 룡상경기에서 만도 지난 제2차 공화국체육대회의 기록을 15개 종목에 걸쳐 뛰어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종합 성적순위

1 위 평양시

2 위 함북도

3 위 함남도

3)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돛 경축 전국중학생 체육대회 (평양 10월 6~12일)

대회에는 각도(직할시)에서 학교별 대항경기를 걸쳐 선발된 2천 6백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경기에서 청소년학생들은 지덕체를 다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할데 대한 아버지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평상시에 련마해온 단련되고 세련된 체육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종합성적순위

1위 함남도

2위 평남도

3위 평양시

4) 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돛 경축전국 빙상 경기대회
(1월 21-23일 강계)

속도빙상 휘거, 홉케이등 종목에 걸쳐 도별 대항으로 진행된 경기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청소년 학생들의 높은 스케트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종합성적에서 1위를한 단체대학부문-평양체육

대학선수단 고등기술학교부문-자강도 선수단

중학교부문-자강도선수단

5) 제8차 전국 역전 경주대회 (4월 14일 평양-남포간도로)

종합성적순위

1위 평양시

2위 황남도

3위 함남도

6) 조선인민군군사 3층 경기대회 (10월 1~3일)

조선인민군 작구분대들에서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잘 준비된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여 사격, 수류탄던지기 장애물 극복경기들 하였다.

대회에서는 병상시에 땀을 많이 흘리면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들 심장으로 받들고 전투정치 훈련에서 모든 정력을 다 바쳐온 인민군 군인들의 전투적 기백과 그어떤 원수도 단매에 처부술수있는 일당백의 기백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7) 중앙 및 도체육단 체육대회

조선 인민군창건 스무돛 경축 전국 체육단 흑케이 경기대회
(2월 13 - 20 일 해산)

우승한 단체순위

제 1 위 평양시 체육단

제 2 위 량강도 선수단

제 3 위 자강도 선수단

8) 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돛 경축 조선인민군 종목별 체육경기대회 (1월 28일 - 2월 8일)

경기대회에는 중앙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여 축구, 룡구, 배구 권투, 럭기, 레스링, 유술등 수십가지 체육 종목들을 가지고 경기하였다.

주요종목에서 1위돌한 단체

탁 구 - 매봉산 체육단

권 투 - 제비체육단

레스링 - 반룡산 체육단

유 술 - 묘향산 체육단

력 기 - 월비산 체육단

룡 구 - (남자) - 재비체육단

(여자) - 초병체육단

배 구 (남 , 녀) - 반룡산 체육단

9) 항일유격대 창건 서른여섯돛기념 중앙 및 도체육단 종목별 경기대회

주요종목에서 1 위를한 단체룡구 (3월 24일 - 4월 1일)

(남자) - 2.8 체육단

(여자) - 초병체육단

탁구 (3월 27일 - 4월 11일)

(남자) - 압록강 체육단

(여자) - 2.8 체육단

축구 (3월 28 - 4월 15일) - 초병 2 조 선수단

10) 5.1 절기념 종목별 경기대회 (4월 26일 - 5월 초)

주요종목에서 1 위를한 단체 권투 , 럭키 - 2.8 체육단

11) 공화국창건 스무돛 경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육대회 체육단경기 (8월 1 - 11일)

경기에서는 70 여개의 공화국 신기록이 수립되었다.

12) 우리나라 선수단과 외국선수단과의 주요체육경기

제 9 차 세계청년학생 축전 체육경기

(7월 29일 - 8월 5일 벨가리아수도 소피아)

경기는 소피아 (남녀배구 , 체조 , 기타 구기부분) 와 플로브지브 (권투) , 하쓰코프 (레슬링) , 플레벤 (탁구) 등에서 진행되었다.

각종 경기들에 우리의 체육인들은 체육부분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가슴깊이 새기고 평상시에 연마해온 높은 체육기술과 완강한 투지 그리고 고상한 도덕적 풍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경기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고 영웅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다시한 번 떨치었다. 특히 우리나라 여자 배구팀과 탁구선수들은 구라파의 경기들을 물리치고 단연 제 1위를 하였다.

우리 체육인들은 이경기들에 참가하여 1개의 우승컵과 금메달 17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9개 도합 48개의 메달을 쟁취했다.

13) 사회주의 국가 청소년국제 여자 배구경기대회

(9월 18 - 24일 구바의 수도 아바나)

우리나라 청소년 여자배구팀 제 1위

14) 우리나라 룡구선수단과 구바 여자 룡구종합선수단과의 친선

경기 (5월 9 - 19일 평양)

2.8 여자 룡구 선수단은 81대 45로

평양시 여자 룡구선수단은 77대 66으로

압록강 여자 룡구선수단은 95대 56으로

우리나라 여자 룡구 종합 선수단은 77대 47로 각각 승리

15) 우리나라 남자 룡구선수단과 헝그리아 인민군

남자 룡구 선수단과의 친선경기 (5월 17 - 28일 평양)

2.8 남자 룡구 선수단은 72대 54로

철비산 남자 룡구 선수단은 81대 67로 각각 승리

16) 우리나라 남자 탁구 종합선수단과 헝그리아 남자 탁구선수

단과 친선경기 (7월 7일 평양)

첫경기에서 우리나라가 5대 1로 승리

17) 우리나라 유술선수단과 뽀스까 유술종합선수단과의 친선경기

(10월 3 - 6일 평양)

2.8 선수단과 청년 종합선수단은 각각 26전 16승 3무승부 7패

평양시 선수단은 20전 18승 1무승부 1패로 승리

18) 국제 탁구 경기대회 (2월 초, 무꾸러슈떠)

우리나라 남자 탁구선수는 단체전에서 제 1위

19) 국제 권투경기 초청대회 (4월 12 - 14일 헝그리아)

우리나라 선수들은 57 키로그램급과 75 키로그램급에서 각각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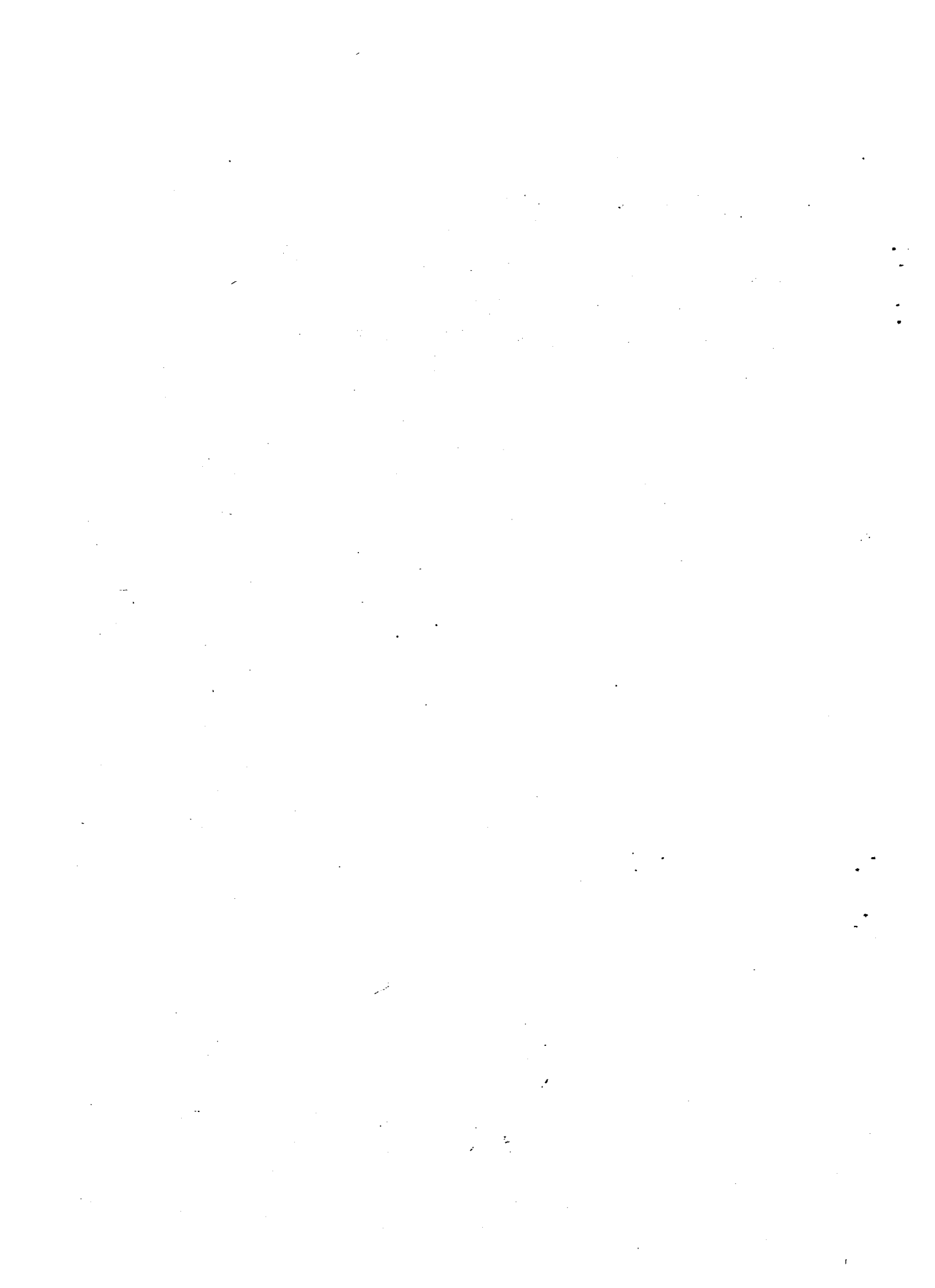
20) 우리나라 여자배구 선수단과 뽀스까 여자배구 종합선수단과의 친선경기 (뽀스까)

첫경기에서 3 대 2 로

둘째경기에서 3 대 0 으로 각각 승리

21) 우리나라 남녀 궁술선수단과 헝그리아 남녀 궁술선수단과의 친선경기 (8월 9일 헝그리아)

개인전에서 우리나라 남녀궁술 선수들 각각 1위



15. 1969年度事業總和

18. 10:00 AM 10:00 AM 10:00 AM

15 . 1969 年度 事業總和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체육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키고 혁명적전 위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체육을 대중화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체육을 대중화하고 생활화하여 광범한 대중속에 널리 보급하여야만 우리민족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체인민들로 하여금 튼튼한 체력과 건전한 사상을 가지게 할수있기 때문이다 >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 로동청년 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1권 38 페이지)

수령께서는 군중체육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국방체육을 위주로 할데 대하여서와 학교체육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교시하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령의 가르치심에 따라 국방체육을 위주로하는 군중체육이 발전됨으로써 어디에 가나 체육은 인민들의 문화생활에서 떼여낼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군중체육이 널리 발전되어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몸은 튼튼해지고 그들속에서 완강한 의지와 집단주의 정신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전체 인민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뿐만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튼튼히 준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있게 되었으며

원수들의 있을수 있는 첩해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믿음직하게 보
위할수 있게 되었다.

체육의 대중화는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체육활동과
문화생활에 적극 참여하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그들속에서 수많은
체육인들이 자라나게 하였다.

우리의 체육인들은 체육분야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
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체육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체육 경기에서도 천리마 조선의 영예를 떨치고 있다.

수령의 일상적 지도와 끊임없는 배려속에서 군중체육을 발전시켜
온 우리나라 근로자들과 체육인들은 1969년에 체육절 스무돛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가. 전국체육인 대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전국 체육인대회가 1969년
11월 3일과 4일에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
배려밑에 우리나라 체육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
고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당의 체육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육사업을 가일층 강화 발전
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전투적 과업을 토의하였다.

대회는 각도, 시, 군 및 조선인민군과 사회안전부, 체육지도 일
군들과 공장, 기업소, 농촌, 학교들에서 선발된 체육인 대표들 재
일본조선인 체육연합회에서온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에 의
하여 우리나라 체육은 처음부터 로동과 국방에 철저히 복무하는

전인민적인 체육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체육기술도 짧은시간내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여 국제무대에서까지 그위력을 과시하였다.

우리의 체육인들은 벌써 1947년에 제1차 세계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하여 축구와 룽구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함으로써 해방된 조선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온세상에 시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신적인 배려에 의하여 우리체육인들은 것처럼 간고하던 전쟁기간에도 두차례에 걸쳐 세계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하여 축전을 통하여 미제 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조선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세계인민들 앞에 유감없이 시위하였다.

수령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분의 복구건설을 조직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모란봉 경기장 복구 확장 공사장에 다섯차례나 찾아오시며 공사의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 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뜨거운 배려에 무한히 고무된 청년학생들과 체육인들은 애국적 헌신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 짧은 기간내에 모란봉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경기장들과 수영장 학교와 공장, 농촌의 체육시설들을 복구 확장함으로써 체육사업을 대중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수령께서는 또한 체육사업 지도체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화국내각에 직속된 조선 체육지도 위원회를 따로 조직해 주시었으며 체육지도 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기능과 역할을 높이고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 주시었다.

그리하여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서 국방체육, 민족체육, 체조, 달리기, 수영을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 종목들이 보급되고 대중화 되었다.

체육이 대중화 됨으로써 체육기술이 전반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으며 근로자들 속에서 우수한 체육선수들이 많이 자랐다. 우리의 체육인들은 1956년 프랑스 빠리에서 열린 세계여자 배구 선수권대회와 모스크바에서 있는 제37차 세계사격 선수권대회에서 미국놈들을 타승하여 조국해방 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신 조선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다시 한번 온세상에 과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체육지도사업 체계를 개편하며 체육간부 양성사업을 개선하고 체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취하여 수었으며 현대적 규모를 갖춘 응대한 모란봉 경기장과 신천 수영관, 삼지연 스키장, 부전호 빙상경기장을 비롯하여 군중체육사업과 체육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필요한 제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행정에서 체육사업은 철저히 국방체육을 위주로하는 전인민적 체육으로 전환되었다.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는 전인민적 육체단련 사업은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일단 유사시에 인민군대와 함께 전체인민이 총을잡고 원수들을 단매에 격멸소탕할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기하신 생산경기는 처음부터 인민경제의 모든부분에 널리 보급됨으로써 천리마시대의 새기준, 새기록 창조에 힘있게 이바지 하였다.

생산경기는 우리시대의 기념비적 건물들인 평양 대극장과 평양역

사 옥류교 평양 학생소년궁전등의 10대 건설장에서 <평양속도>를 창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사회주의 협동벌과 지하막장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대중적 생산혁신운동과 결합됨으로써 위대한 천리마진군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체력 검정에 해마다 수백만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자각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해마다 봄가을에 진행되는 인민체력검정 사업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체위들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적인 집단체조가 급속히 발전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0여차례에 걸쳐 집단체조의 창조사업을 직접지도하여 주시였으며 그때마다 작품의 정치사상적 내용으로부터 체육예술적 기교문제와 훈련방법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수령의 거듭되는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우리체육인들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인민상계관작품인 <천리마조선>과 <영광스러운조국> <로동당시대> <혁명의시대>와 같은 기념비적 대작들과 <독로강반의 새노래> <압록강반의 새노래>들을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다.

수령의 끊임없는 극진한 보살핌과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학교체육사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들에서 교육과 결합되고 국방과 결합된 체육활동이 대중적으로 광범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인민의 체위들 전반적으로 향상시킬데 대한 수령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학생 소년들속에서 키를 빨리 크게하는 운동

이 전국적 범위에서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평균키는 높은 지표에 이르고 있다.

지난기간 우리 체육인들은 가네포와 올림픽 경기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와 세계 강자 경기대회에서 세계 청년학생축전과 국제친선경기들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세계기록을 돌파하고 수많은 우승기발컵과 금, 은, 동메달을 쟁취하였다.

우리 체육인들은 대양과 대륙을 건너 모스크바와 파리, 아바나와 프놈펜 인스부르크와 가루이자와 헬싱키등 세계 도처에 오각별 찬란한 람홍색 공화국 기발을 하늘높이 휘날림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자라난 로동당시대의 붉은 체육전사들의 영웅적 기상을 온세상에 떨쳤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신을 더욱 높이는데 이바지 하였다.

전국 체육인 대회에서는 <체육부문에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붉은 체육전사가 되자>라는 제목의 보고와 토론들을 통하여 수령의 탁월한 영도밑에 우리 체육이 이처럼 세계에 이름 떨치며 발전하여온 빛나는 성과들을 자랑차게 총화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투를 제승하여 해방후 당과수령의 현명한 영도밑에 급속히 개화 발전된 우리나라 체육의 면모와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당의 붉은 체육 전사들의 굳은결의를 형상한 대화폭의 조각작품을 기념으로 드리였다.

이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체육절 스무돛에 즈음하여 수령께 드리는 각도(직할시)체육인들과 조선인 민군 및 사회안전성 체육인들의 편지들을 편지전달 제주 대렬 대표들이 드리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재일본인 총련합회 중앙상임 위원회의 축기 및 60만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맹세를 담은 편지를 재일본조선인 체육련합회 대표단이 전달하였다.

이어 전국 체육인 대회에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의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대회에서는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 일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과 남조선 체육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전국 체육인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인 교시가 있었다.

나. 군중체육

우리나라에서는 군중체육을 생활화하고 널리 발전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체력을 단련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있다.

근로자들이 활동하는 모든곳에 체육소조가 조직되고 광범한 대중속에서 체육이 생활화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노동과 생활은 보다 흥겹고 윤택하여 졌으며 사람마다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희망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두가 체육소조에 망라되어 체육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인민들은 아침체조로 부터 작업전 체조와 달리기 운동을 비롯한 하루한시간 체육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이과정을 통하여 생기발랄한 형명적인 생활기풍과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장과 기소 협동농장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기하신 새로운군중 체육형식이며 생산과 체육을 결합시키는 가장 독창적인 형태인 생산경기가 널리 도입되고 있다.

○ 집단체조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적 체육형태인 집단체조는 해마다 도시, 군 학교들에서 100여만명이 참가하는 광범한 규모로 발전하여 <세계최고봉>의 체육으로 세상사람들로부터 높은평가들 받고있다.

1969년에 각도별 집단체조지도자들을 위한 강습을 진행하고 4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탄생 선일곱돛과 기타 명절을 계기로 학교단위로 되는 집단체조를 적극 진행하였다. 집단체조에는 전국적으로 195개 시, 군의 2,209개 학교들에서 연 117만 8,500여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평양시에서는 만경대구역 학생들을 비롯한 여러 학교들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기념일에 집단체조를 진행하였는데 만경대구역 8,000여명의 학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 <혁명의 요람 만경대> (5막7장)는 사상적 내용과 체조와 예술적 기교면에서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천리마 해산 고등의학학교 학생들은 스키트 집단체조 <수령님께 충성을 맹서합니다>를 창조하였다.

또한 1969년에는 유치원에서도 집단체조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선일곱돛 기념일인 4월 15일을 계기로 평양시와 개성시에서 유치원 집단체조를 진행하였는데 평양시 선교구역 유치원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 <김일성원수님 고맙습

니다> (7장)에는 사상적 면에서나 기교적면에서 어버이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모습이 생동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0 학교체육

학교에서의 체육은 교육 및 생산과 결부되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에 따라 천리마 북청고등원에 전문학교, 천리마 평양안학 중학교, 안변중학교를 비롯한 학교들에서 체육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천리마 해주 혁명학원, 평양신흥 중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학교들에서는 키크기 운동을 통하여 자라나는 후배들의 키를 평균키에 비하여 훨씬높은 지표에 이르게하고 있다.

특히 평양신흥중학교 전체 학생들의 키는 평균키에 비하여 7cm 더 크다.

키크기운동이 대중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토요 체육의날> <국방체육의날>등 과외 체육운동조직에서는 철봉, 륜목, 배구, 룡구, 예술체조, 체육무용, 달리기 운동이 강화되었다.

또한 체육교수에서 주체가서고 키크기 학년간 경기형식이 발전하였으며 체육기자재에서도 새형식이 창안 도입되었다.

한편 키크기 운동에대한 체육과학 연구사업이 강화되었으며 체육운동형식과 내용들이 교안되는 과정에서 체육 교육사업이 더욱 심화되었다.

0 집단달리기

집단달리기는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일과에 의한 체육운동으로 대중화 되고있다.

특히 사상교양과 결부되어 진행되는 집단달리기는 체육 및 사상 교양의 수단으로서 발전하고 있다.

1969년에 체육절 스무돛을 기념하여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하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전달 계주>는 도, 시, 군들에서 전 군중적 규모로 널리 진행되었다.

편지전달 계주 대렬에는 황해북도 하나만 보아도 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24만 8천여명의 군중환영을 받았다.

또한 <혁명전적지예로의 달리기> <만경대-봉화리-보천보>가 년중 계속되었다.

<혁명전적지예로의 달리기> 등산과 체육 행군, 야영등을 당정책 교양과 혁명 전통교양, 공산주의 교양의 힘있는 수단의 하나로써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1969년에 집단달리기는 봄철 체육 개막행사를 계기로 적극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강계시에는 3만여명 함경북도 길주군에서는 2만여명이 참가하였다.

영안남도에서는 도내 현지교사단위들에 이르는 집단달리기가 새로운 형식으로 발기되어 조직진행되었다.

○ 인민체력검정

근로자들의 체력의 기본수단의 하나인 인민체력검정에 해마다 수백만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하여 합격자들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인민의 체력지표는 해마다 제통적으로 장성되고 있다.

1969년에 인민체력검정 합격자수는 1968년에 비하여 151.1%로 1967년에 비하여서는 203%로 장성하였다.

만경대 인민학교, 천리마 길주 여자중학교, 천리마 목청 고등원

예전문학교, 성천교양원대 학생 수많은 학교들에서 전체학생의 100%가 인민체력검정에 참가하여 100% 합격하였다. 특히 천리마 북청 고등원에 전문학교에서는 10년간 인민체력검정에 모든학생의 100%가 합격하였으며 1969년까지 세번에 걸쳐 전국적으로 1위를 하였다.

이리하여 학생들의 몸이 튼튼해짐으로써 공부도 잘하여 이학교 전문반 학생들만 보아도 90%이상이 우등, 최우등 성적을 쟁취하고 있다.

로동자 농민들속에서도 인민체력검정 합격자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1969년에 자강도, 함흥시, 평양시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에서 인민체력검정 참가 대상자의 90%이상이 합격하였다.

0 체육기술향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체육인들은 체육훈련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주체들 철저히 세워 우리민족의 체질적 특성에 맞게 기술과 전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며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민족의 아악하고 재빠르며 투지가 강한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한 독특한 기술과 전술이 배구와 탁구, 축구, 병상, 체조, 모험항공 공술등 많은 종목에서 새로 창조되기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

배 구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질적 특성에 맞는 주체적인 배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맹훈련을 진행한 결과 배구는 확고하게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

1956년 파리에서 열렸던 세계 배구선수권 대회에서 미국, 브라질, 화란, 민주독일을 이긴 우리여자 배구선수들은 1969년 8월 بلغ아리아에서 열렸던 세계여자 배구계의 최강자들이 모였던 경기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소련과 일본팀을 이기고 일등의 영예를 쟁취함으로써 당당히 세계여자 배구계의 최고봉에 올라섰다.

배구에서는 구라과식인 높은 공타격을 위주로하는 완전한 공격전술에 대처하여 우리는 낮고 빠른 공에 의한 순간적 타격을 기본으로 하는 속도전술을 적용함으로써 세계적 강자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세계 여자 배구계에서 틀어쥐게 되었다.

우수한 배구선수 후비도 수많이 자라나고 있는데 2.8 선수단, 압록강 선수단, 기관차 선수단등 수많은 선수단들이 독립적으로 국제경기에 나가 승리 할수있게 되었다.

농 구

농구도 배구처럼 세계 패권을 쥐고 1등을 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69년에 그관철을 위한 투쟁을 적극진행한 결과 큰성과를 달성하였는데 특히 여자 농구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축 구

우리인민의 관장한 투지와 체질에 맞게 중장거리 속공과 전면 공격, 전면방어에 의한 기술과 전술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축구계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1969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사회주의 나라 청소년 친선축구경기에서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은 단연 1위의 성적을 쟁취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축구기술의 발전을

온세상에 시위하였다.

탁 구

탁구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우리나라 탁구 선수들은 1769년에 새로운 보다높은 기술을 연마하는데 중심을 두고 맹훈련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선수들이 수없이 자라났다.

체 조

우리나라 체조기술은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일련의 국제친선경기 등에서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체육간부양성 및 체육과학연구

1969년에도 영양체육대학과 사범대학 및 교원대학의 체육학과 등에서 수많은 체육간부들을 육성하였다.

체육부문학과 등에서 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체육리론, 운동해부학, 체육생리학, 력학, 체육의료학등 체육의 기초 이론과목들과 체육실기과목들의 교육내용을 수령의 위대한 체육지도사상과 우리의 현실적 자료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우리혁명이 요구하는 유능한 체육간부들을 길러낼수 있게 되었다.

체육과학연구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선수들의 사상의지 및 체질적 특성에 맞는 독특한 기술과 전술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데 힘을 넣어 나라의 체육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리하여 배구에서 전위공격, 전인방어와 낮고 빠른 공련락에 의한 타격 및 속도전술 축구에서 전면공격과 전면방어에 의한 속도전술 배스링에서 공격전술 그리고 스के트에서 낮은 자세에

의학 옆으로 강하게 밀어치기와 곡선활주 기술의 현마등 우리나라 선수들의 강의하고 빠른 체질에 맞는 기술 및 전술적 수법들을 연구 완성하여 널리 도입함으로써 세계체육을 뒤흔들어 놓고있다.

다. 국방체육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체육을 위주로하는 군중체육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므로써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고 있다.

체육분화발 발전시킴에 있어서 모든근로자들이 체육을 생활화 하도록 하기위하여 국방체육을 비롯한 체육의 종목을 늘이고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성별, 연령별, 취미와 체질에 따라 여러가지 체육분화 생활에 참가하게 하였다.

국방체육을 대중속에 널리 보급 발전시키는 기지로서 국방체육구락부와 국방체육 소조들이 광범히 조직되고 그활동이 부단히 강화됨으로써 천리마 강선 제강소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모든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서 대중국방 체육사업이 더욱 활기있게 벌어지게 되었으며 군사기술기재에 의한 다양한 군사실용 체육이 널리 보급 발전됨으로써 전인민적 방위체계의 확립에 힘있게 이바지하고 있다.

어떤 어렵고 힘든일에 부닥치드라도 그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겨낼수있는 여러가지 훈련들을 우리현실과 결부하여 진행하는 사업을 1969년에 적극 진행하였다.

특히 해양체육을 발전시킴으로써 누구나다 해염을 치며 배를 탈수있게 하는데 힘을 넣었다.

모형항공, 궁술, 사격 종목들을 비롯한 일련의 국방체육종목의 기술들이 발전하여 국제기록과 공화국 신기록이 수립되었다.

1969년에 진행된 <일당백상> 쟁탈경기 <만경대컵> 쟁탈경기 <보천보 화불상> 쟁탈경기 공화국 선수권대회등 수많은 경기에 모형항공, 락하산, 활공기, 사격, 무선통신, 궁술, 격검, 모터씨클, 조정, 요트등 수많은 종목들이 참가하였는데 43개의 공화국 신기록이 수립되었다.

또한 국제 국내 경기대회들에서도 모형항공, 궁술등 4개의 국제기록이 돌파되었다.

1969년 4월에 진행된 국방체육구락부 지구별 경기대회에서는 무선통신, 프락모르, 사격, 모형항공, 궁술, 격검, 모터씨클등 7개의 종목에 119개팀 1,300여명 선수가 참가하였다.

1969년에 진행된 일련의 국방체육종목 국제경기대회 성적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방체육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1969년 7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사회주의국가 국제모형항공경기 대회의 모형항공 고무동력기 종목 8회전 연장전에서와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헝그리아와의 모형항공 친선경기대회의 모형항공기 7회전과 모형 고무동력기에서 우리나라는 각각 1위를 쟁취하였다. 또한 1969년 6월에 뿔스카에서 진행된 국제궁술경기 대회에서 12팀이 참가하였는데 그가운데서 종합단체에서 1위를 쟁취한 우리나라는 뿔스카에서 진행된 뿔스카에서 진행된 뿔스카와의 친선궁술경기에서 단식종합 남녀 1, 2, 3위를 모두 차지하였다.

1969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몽골과의 친선경기 대회에서 단

체와 개인 남녀 1위를 모두 우리나라가 차지한 것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체육의 높은 수준을 잘보여주고 있다.

라. 주요 체육경기

우리나라에서는 기념일을 계기로 조직하는 경기와 정상적인 훈련경기들 통하여 선수들의 기록갱신과 발전하는 체육기술을 광범히 도입하기위한 경기들 1969년에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0 국내경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전국대학생 체육축전(10월 5 - 14일)

전국의 모든 대학들에서 선발된 2,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체육절 스무돛기념 전국학생 체육축전에서는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하기위해 체육을 대중화하고 생활화하여 부단히 련마해온 투지 높은체육 기술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축전에서는 국방체육경기 민족체육경기, 배구, 룡구, 축구와 자전거 경기등 여러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11개종목의 연 20여명 선수들이 새기록을 세웠다.

우수한 대학순위

1등 김일성 종합대학

2등 김책 공업대학

3등 평양사범대학

<일당백상> 쟁탈경기대회(2월 1 - 15일)

2.8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체육인들의 행사의 하나로 룡구, 배구, 탁구등 수십종목으로 조직된 이경기는 수령의 극진한 배려

속에서 당의 체육정책을 높이 받들고 경상시 훈련에서 길러온 일당백의 장수힘과 높은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계기로 되었다.

우승한 단체순위

농구 남자 1위 로동자 선수단

여자 1위 2.8 선수단

배구 남자 1위 압록강 선수단

여자 1위 2.8 선수단

탁구 남자 1위 2.8 선수단

여자 1위 압록강선수단

<조국통일> 마라손 경기대회 (4월 1~3일)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준비있게 맞이 할수있도록 모든 체육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대회에서는 로동과 국방에 준비된 그들의 튼튼한 체력을 시위하였다.

1위 2.8 선수단

2위 압록강 선수단

3위 평양시 선수단

<만경대컵> 쟁탈경기대회 (4월 15일 - 5월 2일)

4월 15일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신일곰뿔을 성대히 기념하여 체육인들을 그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체육기술을 한계단 높이 발전시킬것을 목적으로 축구, 농구, 배구, 등 구기와 국방체육을 비롯한 여러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보천보 해불상> 쟁탈경기 (6월 4 ~ 12 일)

6월 4일 보천보 전투승리들 성대히 기념하며 전체 체육인들을
우리당의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조
직 진행된 이경기에서는 수령의 품속에서 련마해온 우리 체육인
들의 튼튼한 체력과 높은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9.9절 우승기> 쟁탈을 위한 전국수영 경기대회

(9월 1 - 10일)

모든 체육 종목을 대중화하며 우리의 경기수준을 세계적 높이
에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고
제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가득찬 선수들은 이대회를 통하여 일상적으로
단련해온 왕성한 투지와 튼튼한 체력과 높은 체육기술을 남김
없이 발휘하였다.

우승한단체 (해염)

남녀 1등 압록강선수단

전국학생 해상 체육경기 (8월 15 - 21일 송도원)

2,300여명의 학생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여 해염, 물에 뛰어들
기, 수구, 조정, 단정, 까애크를 비롯한 각종 배타기 경기들과
국방체육종목들인 보트들 가지고 바다를 건너지, 장구류들 휴대
하고 뗏목을 밀고 바다건지기, 도하경기, 수기 신호경기등 종목
에 걸치는 경기들 진행하였다.

우승한 단체순위

1등 강원도

2등 평양시

3등 함남도

고등수산학교 부문

1 등 천리마 신포 고등수산학교

2 등 김책 고등수산학교

3 등 청진 고등해양학교

0 국제경기

사회주의나라 청소년 친선축구경기대회 (10월 17일 - 26일 평양)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로무니아, 벨가리아, 헝그리아, 월남, 쿠바
폴스까, 쏘련선수단들과 우리나라 1조 2조 선수단들이 참가하
였다.

경기대회는 날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체육의 우월성과
그위력을 다시 한번 뚜렷이 보여 주었으며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과 체육인들 사이에 맺어진 친선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들은 영상시 훈련에서 련마한 완
강한 투지와 높은 체육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친선과 단결
동지적 협조의 공산주의적 미풍을 발양하며 빛나는 승리를 쟁
취하였다.

우승한 선수단들의 순위

1 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 조) 선수단 (우승컵과금메달)

2 위 쏘련선수단 (은메달)

3 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2 조) 선수단 (동메달)

사회주의나라 청소년 체조 경기대회

(8월 25 - 27 일 쏘련)

우리나라를 비롯한 쏘련, 쿠바, 벨가리아, 독일민주주의 공화국,
헝그리아, 폴스까, 체스꼬슬로, 맨스꼬, 로무니아선수단들이 참가한

이경기 대회에서는 경기가 진행된 다섯가지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 1위를 쟁취하였다.

그리하여 대회에서 금메달 수상자들에 대한 국가주악 총 8 회중 6 회에 걸쳐 우리나라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고 람홍색 공화국 기발을 무려 16 차례에 걸쳐 경기장높이 휘날리게 하였다.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강의한 전투정신과 높은 기술적기교를 발휘하여 금메달 6 개, 은메달 4 개, 동메달 5 개와 특별상까지 받았다.

<와르나의 여름> 국제 여자 배구경기대회

(8월 27 - 31일, 벌가리아)

경기는 8 개나라팀이 2 조로 나뉘어 조별 런맹전으로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제 19 차 메히코 올림픽 대회에서 1 위를 들한 쏘련팀과 2 위를 들한 일본팀 그리고 로므니아 포스까팀들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단연 1 위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우승한 나라순위

1 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수단

2 위 쏘련선수단

3 위 일본선수단

제 9 차 여름철 사회주의 국가군대 종합 체육대회

(7월 31일 - 8월 8일 쏘련)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4 개의 컵과 금메달 5 개, 은메달 19 개, 동메달 도합 28 개를 받았다.

조선인민군 남자체조 선수단과 헝그리아 인민군 남자체조선수단
들과의 친선경기 (4월 6일 평양)

자유체조, 안마, 룬, 조마, 병행봉, 철봉등 종목으로 진행된 이경
기에서 1.2.3위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였다.

우리나라 여자배구 선수단과 بلغ아리아의 쏘피야 여자 배구 중
합선수단과의 친선경기 (6월 15~22일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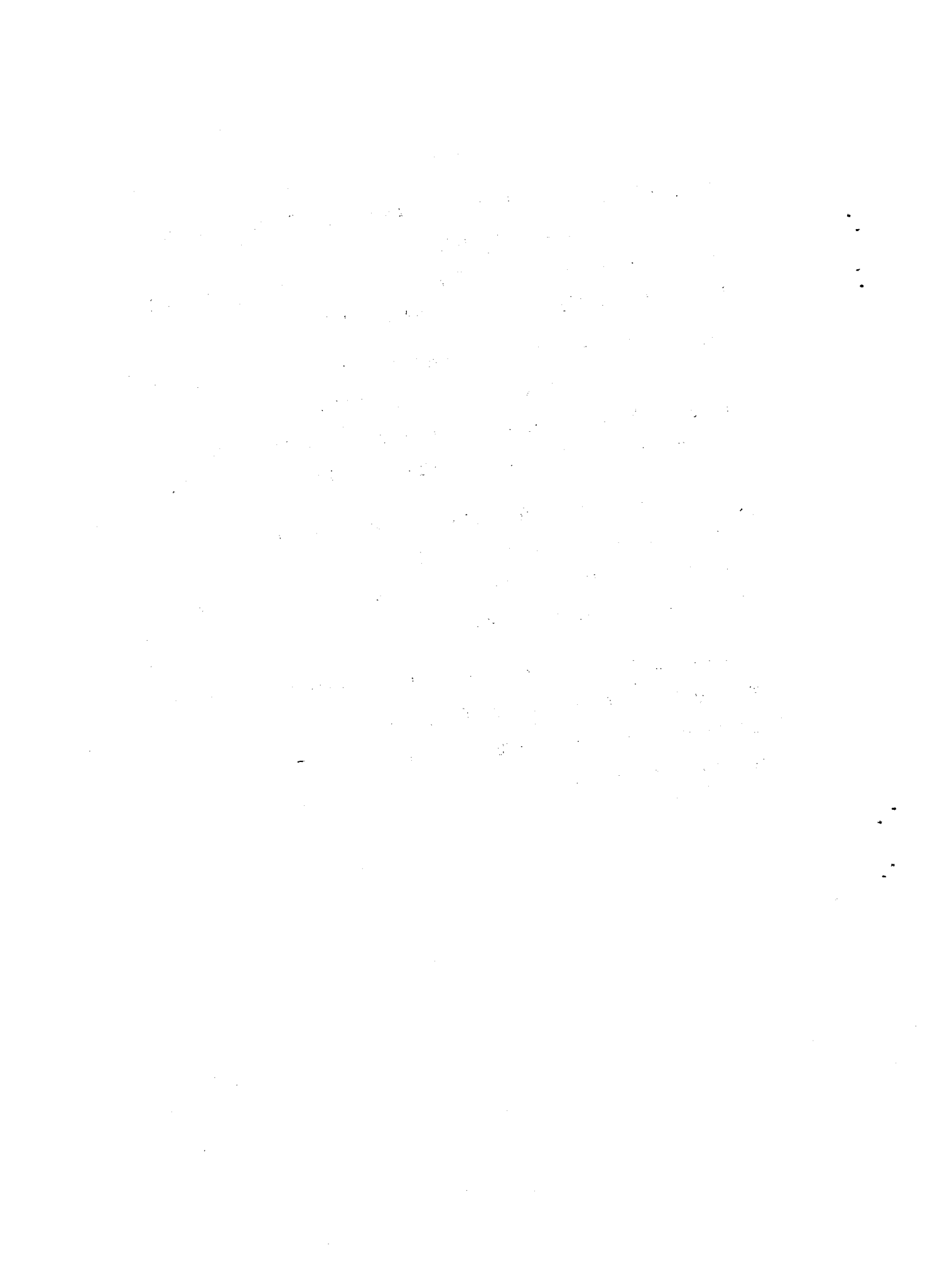
압록강 여자배구 선수단이 진행한 첫경기과 2.8 여자 배구선수
단이 진행한 두번째 경기에서 두번다 3대 0으로 승리하였다.

우리나라 남녀 종합 탁구 선수단과 쏘련 남녀 탁구 종합선수
단과의 친선경기 (9월 12일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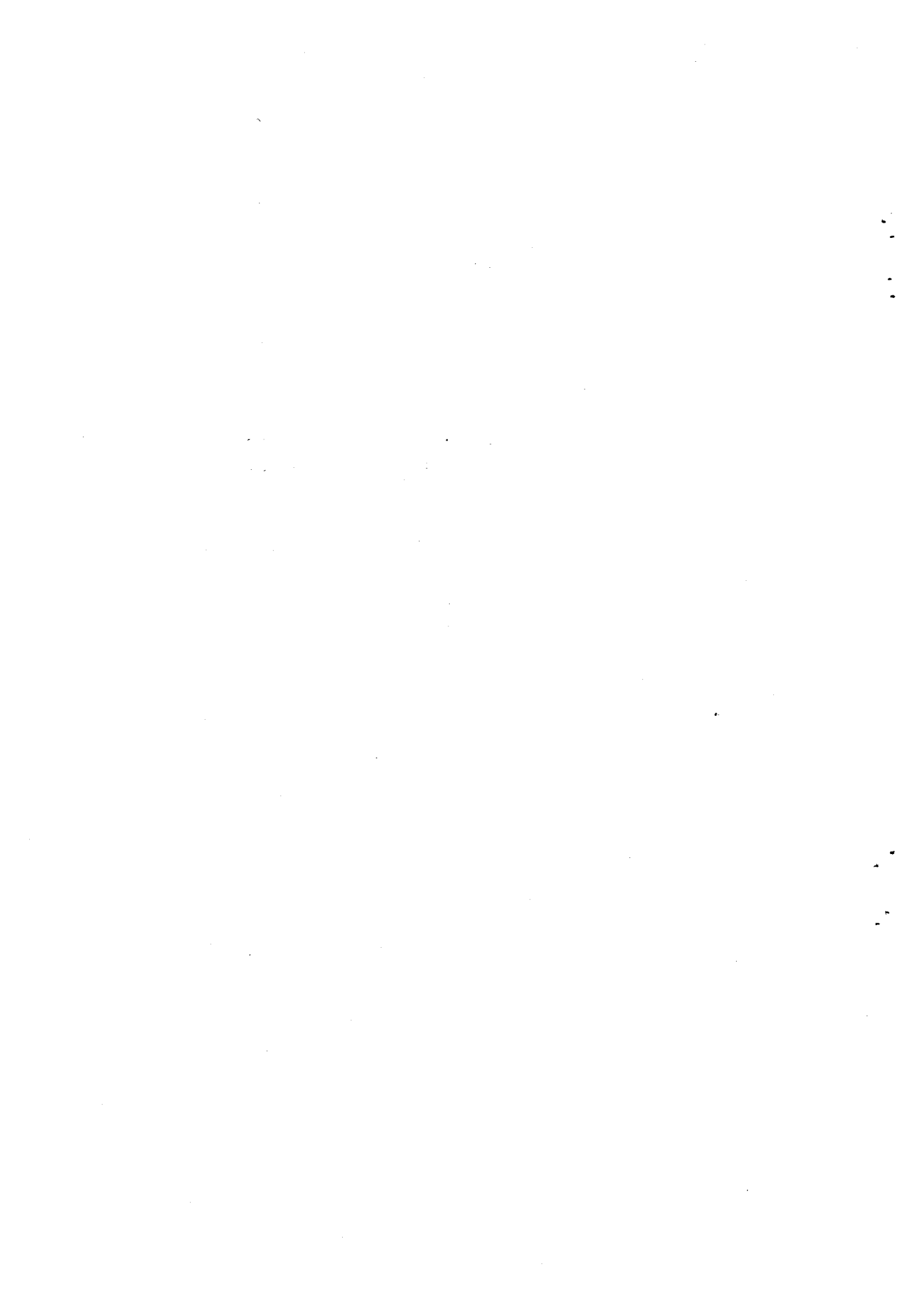
우리나라 남자 탁구 종합선수들이 5전 5승 여자 탁구 선수들
이 3전 3승으로 각각 이겼다.

우리나라 2.8 여자배구 선수단과 쏘련군대 여자배구 종합선수단
과의 친선경기 (12월 14 - 21일 평양)

첫경기에서는 3대 0으로 두번째 경기에서는 3대 2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각각 이겼다.



16. 1970年度事業總和



16. 1970 年度 事業總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의 체육은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적 체육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그이께서는 초기혁명 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체육이 조선 혁명에 철저히 복무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체육 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 유격대원들과 유격근거지 인민들을 그의 실현으로 조직 동원하시며 혁명적 체육활동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을 이룩하시였으며 또한 해방후 우리나라 체육의 발전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였다.

<앞으로 우리의 체육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건국사업의 중요한 고리로서 발전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시말하여 민주조선을 건설할 썩썩한 건국투사들을 키우기위하여 인민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달련시키는 전인민적 체육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체육을 대중화 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

(<청소년 사업과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

1권 38 페이지)

체육의 인민적 성격과 기본사명을 명철하게 정식화 하신 경애하는 수령의 이 교시는 우리나라 체육발전의 위황한 길을 밝혀주는 지도적 지침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9년 11월에 진행된 전국체육인 대회에서 체육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의의에 대하여 또다시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으며 현단계에서 문화혁명의 한구성분으로써 전인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발전시키므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전체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체육사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역할을 놓고 있다.

가. 군중체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검시하시었다.

<체육을 대중화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체육을 대중화하고 생활화하며 광범한 대중속에 널리 보급하여야만 우리민족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체인민들로 하여금 튼튼한 체질과 진전한 사상을 가지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 노동 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1 권 38 페이지)

체육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67년 5월 30일 교시와 1969년 11월 4일 전국 체육인 대회에서 하신 교시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고 체육인들 속에서 우리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국방체육을 위주로하는 체육을 모든 학교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사무기관들에서 더욱 대중화 하기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0 집단체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보살핌속에서 사회주의적 체육의 훌륭한 형태로 집단체조는 그의 높은 사상성과 놀랄만한 규모와 고도로 조직화되고 세련된 예술성과 체육적 기교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세형의 혁명적인 체육예술로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집단체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물질적 배려를 돌려주시었을 뿐만아니라 집단체조의 내용과 사상성을 높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20 여차례 교시를 주시였다.

수령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속에서 우리나라 집단체조는 전국도처에서 널리 창작 출연할수 있게 되었고 그의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다른나라에서도 널리 보급되고 있다.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대집단체조<로동당의 기치따라> 어버이 수령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 5차 대회를 경축하여 진행된 대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1970년 11월 8일에 관람하시였다.

연 7만 5천여명의 평양시 청소년 학생들이 출연한 이 집단체조에는 우리인민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투쟁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세기적 변혁과 불멸의 업적 그이께서 당 제 5차 대회 보고에서 펼쳐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휘황한 전망이 훌륭히 형상되였다.

집단체조는 서막 제 1장 <우리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제 2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만세> 제 3장 <위대한 총화>

제 4 장 <조선로동당 제 5 차대회 결정관철에로>

제 5 장 <싸우는 남녘땅>

제 6 장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들자>

총막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인민의 영웅서사시로 엮어진 력사적 사변들을 변화무쌍하고 호화찬란한 배경대와 체조대의 세련된 기술, 민족적 정서가 풍부한 음악적 선율로 우아하게 형상한 대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나라>는 우리나라 모든 학교들에서 교육과 결합된 체육, 국방과 결합된 체육이 급속히 발전하여 청소년 학생들은 모두가 지덕체를 갖추고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된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역세계 자라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집단체조 <세상에 부럼없어요> (서막 5장 총막)

6.1 국제아동절 스무돛을 기념하여 평양시 유치원 어린이들 55천여명이 출연한 이 집단체조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햇빛보다 따사로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끝없는 행복과 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따라 배우며 아동단원들처럼 어버이 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붉게 피어날 꽃봉오리들의 불타는 충성의 마음을 썩썩한 체조와 아름다운 물동에 담아 훌륭히 보여 주었다.

0 전국중학생 집단체조 경기대회

로동당 제 5 차대회를 계기로 1970년 8월부터 10월말까지의 사이에 진행된 이 경기대회에는 전국 각 중학교 단위로 모든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이 땅위에 깊이 꽃피어나갈 청소년 학생들의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후대교육을 위하여 항상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새세대들의 교상한 집단주의 정신과 불굴의 투지 튼튼한 체력과 높은 체육기술훈을 남김없이 시워하였다.

대회에서는 영남도 순안군 수안 여자중학교의 서막과 종막에 3장으로된 집단체조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자라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차장도 전천군 학부중학의 서막과 종막에 5장으로된 집단체조 <김일성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걸사대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학교 체육

우리나라의 각급학교들에서는 과정안에 의한 체육교육과 과외 체육활동을 널리 조직 진행하여 교육과 결합된 체육, 국방과 결합된 체육을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청소년 학생들을 키워내고 있다.

1970년에 각급 학교들에서는 체육교육과 체육훈련을 활발히 진행할 목적으로 <토요체육의날> <국방체육의날>을 정하고 공중손그네, 회전그네, 률목등을 통하여 키크기 운동을 적극 벌리면서 체력단련의 기본 종목인 철봉, 기계체조, 쌍봉, 달리기, 출당기기과 민족체육 종목들인 씨름, 그네, 널뛰기등 활발히 벌리었으며 수영, 배타기등 해양체육과 등산, 수영강행군 등을 활발히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인내성, 대담성, 용감성, 집단주의 정신을 키우도록 하였다.

한편 청소년 학생들을 청소년 체육 구락부와 체육소조에 광범

히 망라시켜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하게 하였다.

평양시에서는 청소년 학생들속에서 겨울철 체육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기위해 만경대 인민학교 (과외 1시간체육 활동) 만경대 중학교 (체육수업)에 체육사업의 본보기를 꾸리고 이를 일반화 하기위해 방식상학을 조직 진행하여 따라배우도록한 결과 체육수업을 적극 당정책화 하게 되었다.

키크기운동이 활발히 인내성있게 진행됨으로써 평원군 삼봉중학교 박천군 물곡중학교 랑주군 삼훈중학교 학생들의 키는 1970년 한해동안에 평균 4-5센치메터나 더 컸으며 학교체육사업에서 앞장서고 있는 안변중학교에는 한해동안에 10.02센치메터나 큰 학생까지 있다.

㉠ 집단달리기

70년에 각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 사무기관, 인민반들에서는 아침운동, 입간체조, 랭수마찰, 토요일과 일요일의 체육훈련등을 활발히 벌리면서 집단달리기를 생활화 하였다.

집단달리기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전달 계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 학습과 결부된 만경대, 보천보등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에서의 집단달리기로 발전하여 우리당의 유일사상 체제확립을 위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그리고 공산주의 교양과 밀접히 결부된 형태로서 널리 조직진행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체력을 튼튼히 단련시키는 동시에 그들을 우리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 하고 있다.

1970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붉은기 쟁취를위한 혁명전적지에

로 달리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집단 달리기를 벌려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뿐만아니라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키우는데서 큰성과를 이룩하였다.

◎ 인민체력검정

1970년에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 사무기관, 학교들에서는 인민체력 검정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체력지표를 계통적으로 높였다.

1969년도 전국인민체력검정 집단성기 대회에서 1등한 만경대 인민학교 (인민학교부문)

2중 천리마 길주여자 중학교 (중학교부문)

2중 천리마 북청원에 고등전문학교 (고등 기술학교부문)

선천고양원대학 (대학부문)

조선중앙통신사 (사무부문)

와포협동조합 (협동농장부문)의 인민체력 검정지표를 따라잡기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리었다.

각부문들에서는 체육의 대중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인민체력 검정지표를 달성하기위한 연간 훈련 계획을 세밀히 세우고 적극 밀고 나갔다.

우선 체육지도 위원회에서는 집단달리기를 통하여 다리힘을 키우고 호흡기와 심장계통등을 발달시키게 함으로써 인민체력검정 달리기 종목에 합격하게 하였고 국방 체육활동을 하면서 수류탄던지기, 등반오르기등을 하여 인민체력 검정기준을 돌파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대중적인 체육활동에서 인민체력 검정훈련을 중심으로 진행한 결과 인민체력 검정에서 10년간 계속 100% 합격

한 2곳천리마 북청고등 원에 전문학교에서는 1970 년에도 또다
시 100 % 합격 하였으며 안변중학교는 1968 년부터 계속 100 %
합격 하게 되었다.

함남도 인민체력검정 사업의 경우 하나만 보아도 도적으로 인민
체력 검정합격자수가 1961 년을 100 %로할때 1969 년에는
191 %로 늘어났다.

㉠ 체육후비 양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체육인 대회에서 나라의
체육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며 체육선수 후비들을 민
음직하게 키우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 교시들 높이 받들고 영
양체육대학을 비롯한 각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체육학과들에서
교수훈련의 질을 높이는 한편 전국 각도, 시, 군의 체육구락부
들에서는 학생들로 구락부생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 모두를
민음직한 체육선수 후비로 키워내고 있다.

청소년 체육구락부 들에서는 구락부생들을 그들의 육체적 준비
성도와 소질, 취미에 맞게 무선동신, 소조, 빙상체육소조, 배구소
조등 여러가지 소조에 망라시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나 기
술적으로 훌륭히 준비된 당의 붉은 체육전사로 준비시키기 위
하여 교수훈련에서 과학사상성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선포시에 있는 함남도 해양구락부를 비롯한 바다를 낀 지대의
해양구락부 들에서는 청소년들을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로 키우
기 위하여 7 - 8 월 수영 보급월간에 청소년 학생들속에 해염
치기들 보급하는 한편 불속에 오래있기 위한 참을성키르기, 배
타기, 물에 뛰여들기, 수구, 해염치기와 수기신호 훈련을 적극진행
하였다.

그리하여 체육구락부에서는 명수급에 이른 수많은 체육선수들이
자라났다.

◎ 체육기술향상

1970년에 축구, 빙상, 탁구 여러부문에 걸쳐 체육기술이 더
욱 향상되었다.

축 구

축구부문에서는 우리선수들 체질에 맞는 주체적진법인 전면공격
과 전면방어에 의한 중장거리 측면 속공전술을 성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훈련을 적극 진행하였다. 전면공격과 전면방어에
의한 중장거리 측면 속공전술은 우리선수들의 특징을 옹계 살
린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축구전법을 지향한 것이었다.

배 구

배구에서는 높은공 타격을 위주로 하는 완만한 공격전술에 대
처하여 우리선수들은 주체적인 속도전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
지하는 순간과 쌍순간 타격전술은 경기에서 정용하기 위한 훈
련을 적극 진행하였다.

롱 구

1970년 우리나라 롱구선수들은 이미 달성한 성과를 발전시켜
새로운 보다높은 기술을 연마하는데 중심을 두고 맹훈련을 진
행하였다. 이 과정에 새로운 선수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탁 구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우리나라 탁구 선수들은 경애하는
수령께서 체육부문에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일상적인 훈련
에서 주체를 철저히 시키고 땀을 많이 흘려온 결과 1970년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국제탁구 경기대회에서 1, 2, 3위를 쟁취

함으로써 천리마 조선체육인의 기상을 다시 한번 떨치었다.

마라손

전국 체육인대회가 있은후에 마라손 분야에서는 마라손 기록을 높이자면 속도 인내력과 5키로메터당 구간속도를 해결하는 훈련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많은 힘을 넣었다.

0 속도빙상경기

이미 세계적으로 그이름을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 속도빙상선수들은 훈련강도를 더욱높여 맹훈련을 함으로써 1970년에 핀란드에서 세계 속도빙상강자들이 모여 진행한 국제대학생 동계올림픽 체육경기대회에서 또다시 그 위용을 떨치었다. 우리당의 올바른 체육정책에 의하여 축구, 배구, 룡구, 탁구들 비롯한 모든 종목의 체육기술이 급속히 향상됨으로써 오늘 우리 선수들은 수많은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수령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천리마조선의 영웅적 기상을 떨치고 있다.

나. 국방체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4년 10월 22일 교육 및 체육부문 일군 협우회와 1967년 5월 30일 그리고 1969년 11월 4일 전국체육인 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교시들에서 국방체육을 위주로하는 체육을 대중화할때 심오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방체육 종목을 더욱

높이고 대중적으로 보급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기업소들에서는 또한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때 정상적으로 장애물이겨내기, 담벽뛰여넘기, 달리기와 같은 국방체육을 많이 하는것이 좋습니다>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인민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자> 단행본 11 페이지)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체육부문에서는 1970 년에 산과 강이 많고 해변이 바다인 우리나라 자연지리적 조건을 쉽게 극복하는데 도움을주는 대중적 국방체육 종목들을 늘이고 장애물이겨내기, 담벽뛰여넘기, 해염, 강하천극복하기 행군 특히 야간행군과 등산등을 전체 근로자들속에 널리 보급 발전시켰다.

이와함께 사격, 무선통신, 락하산, 활공기 등 현대적인 군사 기술기재들을 잘 다루고 그에 정통할수 있게하는 국방실용체육 종목들을 많이 하는데 힘을 넣었다 .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을 대중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하게는 육상, 체조, 수영을 비롯하여 집단달리기 생산체육, 인민체력전정등을 널리 발전시키었다.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복잡한 기술동작에 익숙시키는 동시에 현 대전이 요구하는 높은 기동성과 교열, 냉한등 온갖 고난을 이겨 나갈수있는 그러한 강의한 육체적 저항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이미있던 국방체육구락부들 더잘 운영하는 한편 일반체육구락부로 운영하여 오던것을 국방체육구락부로 많이 개편하고 리론과 실기를 옹게 배합하는 원칙에서 각소조별로 행군, 사격, 장애물물과, 격검, 궁술, 모험항공, 자동차 트랙도르운전, 무선통신, 모터저클 훈련을 맹렬히 진행하였으며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1970년에 진행된 전국국방체육 및 해양구락부 경기대회와 전국지구별국방 체육구락부 경기대회 성적이 보여준 바와같이 국방체육의 각 종목에 걸쳐 대회기록을 갱신한것은 국방체육을 위주로한 체육이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속에서 대중화되고 그 기술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녀맹 창립 스무다섯돛을 기념하여 진행된 전국녀성 국방체육대회에참가할 체육선수들이 모형활공기들인 고무동력기, 교예기, 분사식속도기 채공기들의 비행 그리고 장애물극복, 부상병나르기등 여러종목의 경기에서 발휘한 성적이 보여준 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녀성들속에서도 국방체육이 더욱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있다. 인민군군인들 속에서의 국방체육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조선인민군 군사 3종 경기대회의 사격, 수류탄던지기, 장애물극복경기 성적이 보여준 바와같이 우리인민군 군인들은 뛰어난 사격술을 가지고 있으며 구분대의 전투준비완성과 전투력 강화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중화할데 대한 자위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한 주체적인 체육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있다.

다. 주요체육경기

1970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국내경기와 국제경기들에서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체육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0 국내경기

조선로동당 제 5차 대회를 경축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속도빙상 및 휘저 선수권대회와 전국 스키선수권대회 전국중학생 체육대회 (9월 9 - 17일 평양), 조선인민군 군사 3종경기대회 (6월 19 - 21일 평양), 조선인민군 축구 경기대회가 진행되었으며 녀맹창립 스무다섯돛을 기념하여 전국 녀성 국방체육대회 (11월 평양)가 진행되었다.

또한 조선인민군 창건 스물두돛을 기념하여 <일당백상>쟁취를 위한 체육경기대회 (2월초 - 25일 평양과 함흥, 해주, 강계, 삼지연 전국대학생 체육경기대회 (2월 7 - 12일 개산) <일당백상> 쟁취를 빙상축케이 경기대회 (2월 1 ~ 7일)가 진행되었으며 <조국통일 마라손>경기대회 (4월 1일 평양)

제 9차 전국 민족 체육경기대회 (4월 28일 - 5월 1일 평양)

제 10차 <만경대 봉화리 제주> 경기대회 (4월 12일)

1970년도 <만경대컵> 쟁취를 위한 체육경기대회 (4월 15일 평양)

1970년도 <일당백상> 쟁취를 위한 레스링경기대회 (2월 10 ~ 12일 함흥)

전국지구별 국방체육 구락부 경기대회

전국 국방체육 및 해양구락부 경기대회 (8월 23 ~ 28일 평양)

전국학생 스케트 경기대회 (1월 25 ~ 31일 강계)

전국학생 스키 경기대회 (2월 7 ~ 10일 자강도 룡림군) 등 수많은 경기들이 진행되었다.

경기들에서는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 의하여 전체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과 국방에 튼

튼히 준비되고 있음을 뚜렷히 보여 주었다.

0 국제경기

1970년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국제탁구 경기대회(12월 24~30일)

제 6차 국제대학생 동기 올림픽 체육경기대회(4월 핀란드) 사회주의나라 청소년

<친선> 속도빙상 선수권대회(1월 17~18일 베를린) 등 수많은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여 천리마조선 체육인의 기재를 떨치었다.

국제탁구 경기대회는 로므니아, 쏘련, 왕그리아, 월남, 체스코슬로벤스꼬

우리나라 1, 2조 선수단들의 참가밑에 진행되었는데 우리선수들은 단체전에서 1, 2위를 개인단식과 복식경기에서 1, 2, 3위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하에서의 체육의 발전면모와 높은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